전문 용어 정리 방법론 연구

국립국어원

한국학술단체연합회
책임 연구원: 고석주
공동 연구원: 이현주
연구 보조원: 이상욱 외 6명

차 례

I. 전문 용어 정리를 위한 이론적 배경

1. 전문어와 일반어 그리고 전문 용어

2. 전문 용어의 정의와 체계
   2.1. 전문 용어의 정의 및 특성
   2.2. 개념과 전문 용어의 체계
   2.3. 전문 영역과 전문 용어의 다의성

3. 전문 용어의 정리와 표준화
   3.1. 전문 용어 정리의 목적
   3.2. 전문 용어 정리의 기준
   3.3. 전문 용어 정리 방법 및 절차
   3.4. 전문 용어 자료의 처리 방안

II. 전문 용어 정리 사례

1. 국외 사례
   1.1. 일본에서의 전문 용어 정비 사업
   1.2. 중국에서의 전문 용어 정비 사업
   1.3. 러시아에서의 전문 용어 정비 사업
   1.4. 프랑스에서의 전문 용어 정비 사업

1.5. 캐나다에서의 전문 용어 정비 사업
1.6. 북한에서의 전문 용어 관련 사업

2. 국내 사례
2.1. 전문용어연구공학센터(KORTERM)
2.2. 한국학술단체연합회
2.3. 각 학회별 전문 용어 정리 작업

III. 전문 용어 사례 분석

1. 전문 용어와 어문 규정
1.1. 한글 맞춤법
1.2. 외래어 표기법

2. 전문 용어의 조어법
2.1. 전문 용어 형성의 형태적 유형
2.2. 전문 용어 형성의 형태론적 유형
2.3. 전문 용어 형성의 의미적 유형
2.4. 원어 용어 번역의 유형
2.5. 원어 용어 차용 시 대역 기준

3. 물리학, 철학, 의학 분야 전문 용어 사례 분석
3.1. 용어 내적 구성
3.2. 단어 대응성

3.3. 용어 구성 방식
3.4. 의미 번역 방식
3.5. 축약 여부
3.6. 고유 명사 사용 여부

IV. 전문 용어 정리 방법론 제언

1. 문제점
1.1. 어문 규정과 현실의 괴리
1.2. 전문 용어 담당 기관의 부재
1.3. 사회 문화적 인식 부족

2. 전문 용어 정리를 위한 제언
2.1. 어문 규정의 유연성과 언어 현실을 반영한 정리 방법론
2.2. 전문 용어 담당 기관과 정비의 지속화

참고 문헌

I. 전문 용어 정리를 위한 이론적 배경

1. 전문어와 일반어 그리고 전문 용어

전문어는 일반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일반어와 대립되는 것으로서, 그 언어의 사용자가 전문인들로 제한되어 있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언어를 말한다. 전문인들은 자신의 활동 영역 안에서 분명하고도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길 원하는데, 이러한 명확한 의사소통의 성패는 그 언어를 구성하는 전문 용어와 표현 어구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 용어는 전문적 개념을 지칭하는 어휘 또는 어휘의 집합을 말한다. 하지만, 어떠한 언어 단위가 전문 용어인지 선별해 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보통, 전문 용어와 대립되는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용례의 어휘 단위를 단어라는 모호한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겠다. 의미를 갖는 어휘 단위로서의 광의의 단어가 아니라 일반 언어를 구성하여 전문 언어를 구성하는 용어와 대립되는 단위로서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사실 용어를 정리하는 사람들에게 일반 단어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단어와 차별되는 용어의 특징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 된다. 이를 통해서만, 용어 선별 및 수집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일반 단어가 다의성의 산물임에 반해 용어는 그가 속하는 전문 분야 안에서 하나의 의미만을 갖는다. 개념과의 일대일 대응성(일지시성, 일의성)은 용어만의 특징이라 하겠다. 하나의 용어에 여러 개

념이 대응되는 다의성은 전문 용어에서 가능하면 회피해야 할 요소이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의 개념을 여러 개의 명칭으로 나타내는 동의어 또한 용어 체계 전체에 혼돈을 주므로 표준화의 대상이 된다. 일반 단어가 비교적 다양한 표현의 도구라면, 용어는 명칭과 개념 사이의 항상성, 안정성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도구이다.

전문 용어의 경우, 이를 둘러싼 문맥이 다양하지 않으며, 표현 어구들은 형식화되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많다. 전문가들의 의사소통을 이해하고 또 그 용어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어의 의미뿐 아니라 그 용어가 쓰이는 표현 어구들, 즉 숙어와 같이 고정된 표현들이나 한 용어가 제한적으로 선택하는 연어 구성을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 전문 용어만 외우고 있다고 해서 전문가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용어와 함께 사용하는 술어가 무엇인지 알아야 자연스럽게 전문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문어에서 발견되는 연어 구성 또한 정리 작업의 중요한 대상이다.

단어가 모든 품사를 망라하는 반면, 용어는 그 품사와 문법 구조가 제한되어 있다. 전문 용어를 이루는 대다수의 형식이 명사 또는 명사구이며 다른 품사들은 용어 정리 작업 시에 종종 외면당한다. 또한 거의 전 분야에서 단일어로서의 명사보다 복합어 형태가 훨씬 많이 발견된다. 용어가 그 조어 방식으로서 단일어보다 복합어를 선호하는 이유는 용어가 우선 개념 전달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개념적 속성과 다른 개념과의 연관성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복합어의 형식으로 인해 수월하면서도 다량으로 용어를 생산할 수 있다. 쉽게 복합어를 형성한다는 용어의 특성은 용어를 추출할 때 가장 첫 단계

에서 이용되는 기준이기도 하다. 한 어휘 단위가 다른 복합 용어들 속에서 많이 발견되면, 그 어휘 단위 역시 용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 전문 용어의 정의와 체계

2.1. 전문 용어의 정의 및 특성

국제 표준화 기구 ISO는 “전문 용어 작업의 원리 및 방법”을 기술한 규범집 ISO 704:2000에서 전문 용어 정리 작업에 필요한 기본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전문 용어가 지칭하는 대상인 개념에 대한 정의, 전문 용어 정의 방식, 전문 용어의 특징 및 형성의 일반 원칙, 표준화에 대해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특기할 만한 사항은 용어 자체에 대한 분석보다 개념의 유형과 관계 그리고 그 정의 방식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다. ISO나 여러 산업 기술 표준 기구의 용어 작업은 그 목적이 용어가 아닌 개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용어 정리 작업은 개념과 그 체계를 세우기 위한 기본 작업이고 용어란 개념에 붙여진 이름표, 즉 명칭으로 간주되고 있다. 현재 이러한 관점은 용어학적으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ISO의 규범(『전문 용어 작업을 위한 어휘집』) ISO 1087-1에 의하면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용어: 한 전문 분야에 속하는 일반 개념에 대한 언어 명칭.

여기서 일반 개념이란 유일 개념(또는 개체 개념)과 상반되는 것으로서 공통 속성을 갖는 두 개 이상의 대상이 하나의 집합을 형성할 때 이에 해당하는 개념을 일컫는다. 이처럼 개념과 용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개념이 먼저 존재하고 그에 알맞은 명칭을 찾아가는 명칭론적 방법론, 즉 개념의 용어에 대한 우위성과 개념의 체계가 그 명칭의 체계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용어의 투명성, 그리고 개념 체계에 혼돈을 주지 않기 위해 하나의 개념에 하나의 명칭만을 부여한다는 용어의 일의성 등이 용어에 대한 규범적 관점이 주장하는 주요 골자이다. 그래서 전문 용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 체계와 용어 체계와의 상관관계를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한다. ISO 704:2000에서 가장 많이 기술된 부분도 바로 개념 체계와 개념 관계에 관한 부분이다. 전문 용어의 체계적인 정리가 그 해당 분야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지식 구조를 성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용어를 만들고 정리하는 사람들도 개념적 관계망을 일관되게 반영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① 용어의 일의성:

하나의 용어는 하나의 개념을 지칭해야 하며 또한 하나의 개념은 하나의 명칭으로 불려야 한다.

② 용어의 투명성과 명시성:

용어는 개념의 반영이다. 용어를 통해 그 개념이 무엇인지 유추할 수 있을 만큼 명시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용어의 투명

성과 명시성을 보장하는 형식으로서 합성어 형식이 많이 쓰이는데, 일반적으로 합성 용어는 용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통해서 해당 개념이 속하는 상위 개념과 해당 개념의 특수한 속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③ 용어의 간결성:

개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한, 불필요하거나 너무 과도한 정보를 명칭에 담지 말아야 한다. 너무 긴 합성 용어는 개념 파악을 오히려 어렵게 만든다. 위에서 말한 용어의 명시성과 용어의 간결성은 서로 대립되는 용어의 가치이다. 명시성에 중점을 두면, 간결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 너무 간결하여 개념 파악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 두 요건을 적절히 충족시키는 선택은 용어의 실제 사용자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④ 용어의 일관성:

개념의 체계와 용어의 체계는 일관된 방식으로 서로 대응되어야 한다.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개념을 지칭하는 용어는 가능한 한 동일한 형식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개념이 더 특수화할수록 그 명칭 또한 더욱 정밀해져야 한다. 일반적인 상위 개념을 지칭하는 용어보다 그 하위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가 더 길고 구체적이다.

2.2. 개념과 전문 용어의 체계

지금까지 '개념'이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써 왔다. 하지만, 일반적

으로 논리학, 철학, 인식론 등에서 사용되는 이 용어를 정의하는 것만도 무척 버거운 일일 것이다. 여기서는 각 표준화 기구가 제시한 정의들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 개념이란 추상화된 정신 구조이며, 세계의 개체들을 분류하는 역할을 한다.(영국 표준화 기구 BS 3669)
- 개념은 사고의 단위이며, 공통 자질들로 연결된 개체들의 집합으로부터 생겨난다.(독일 규범화 기구 DIN)
- 개념은 어느 정도 자의적인 방식으로 추상화된 세계의 개체를 분류하기 위한 정신 구조이다.(국제 표준화 기구 ISO 704: 초판)
- 특징들의 독특한 조합으로 창출된 지식의 단위. 주석: 개념들은 특정 언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반면, 사회문화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아 여러 범주화를 보이기도 한다.(국제 표준화 기구 ISO 1087-1: 2000)

이처럼 개념이란 정신적인 것, 어쩌면 해석이 불가능한 유동적이고 모호한 정신이나 사고의 단위일 수 있으나 용어학에서는 정의라는 작업을 통해 일의성을 띠게 된다. 이때 의미의 단순화와 축소화라는 대가를 어쩔 수 없이 치르게 된다. 개념은 정의와 명칭을 통해 언어로 표현될 수 있고, 개념과 그 명칭인 용어 사이에는 일대일 지시 관계가 성립하며 그 사이에는 어떠한 주관적, 함축적 기능도 없다.

용어학의 창시자라 불리는 뷔스터(E. Wüster)는 용어학을 탄탄한

이론적 바탕의 독립된 학문으로 세우기 위하여 전문 용어의 제 문제를 명명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그 시발점인 개념들 간의 체계 구축을 위하여 계통학의 방법론을 빌려 온다. 계통학의 역사는 18세기의 동물학자, 식물학자, 더 나아가서는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여기서는 언어학적 측면만을 간추려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다.

계통학은 개념의 의미가 필요충분조건을 충족시키는 본질적인 속성들의 합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그 속성들에 다른 여타의 속성들이 가감되거나, 또는 존재하는 속성들의 변형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개념이 생겨나고, 그렇게 생긴 여러 개념들이 모여 하나의 가족 모형을 이룬다. 가족의 구성원인 개념들은 특정한 함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데, 관계 유형에는 크게 "유-종"의 관계와 "전체-부분"의 관계가 있다. 이 두 관계 유형은 모두 상위 차원과 하위 차원을 상정하는 계층적 구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형도의 모델로 도식화할 수 있다.[1)]

---

1) 이현주(2006:278~279) «전체-부분 관계는 학자에 따라 훨씬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학자들마다 전체-부분 관계에 대한 규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물체'와 그 '구성 요소'(총-방아쇠, 개머리판), 그리고 '물체'와 '구성 성분'(물-수소, 산소, 시간-분, 초, 산-봉우리, 마루, 중턱)과 같은 시공간적 관계를 전체-부분 관계로 간주하는데, '집합'과 그 '구성원'(교직원-강사), '덩어리'와 그 '일부분'(파이-조각 파이), '순환 주기'와 각 '단계'(생리 주기-배란일) 간의 관계들도 이에 포함시키는 학자들도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전체-부분 관계를 여러 하위 관계로 구분하는 기준도 다양하지만, 어떤 한 관계의 범주 안에 어떠한 예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다. '방아쇠', '개머리판'은 총의 일부이며, 물체-구성 요소의 범주에 해당한다. '총알'은 총의 구성 요소인가? '리모콘'은

유종 관계는 하나의 범주에 어떤 개념들이 속해 있는지 구분하고, 그 안에서 보다 넓은 상위 개념인 유개념과 보다 좁은 하위 개념인 종개념이 순차적으로 정렬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이때 한 개념에 속한 정보는 그 하위 개념으로 전이가 가능하다. 즉, 상위 차원의 정보들이 고스란히 하위 차원에 저장되는데, 경제성의 원칙에 입각한 이러한 속성의 공유 체계를 "상속 체계"라 하며 이러한 정보 전달 능력으로 인하여 계층적 관계 중에 용어 명명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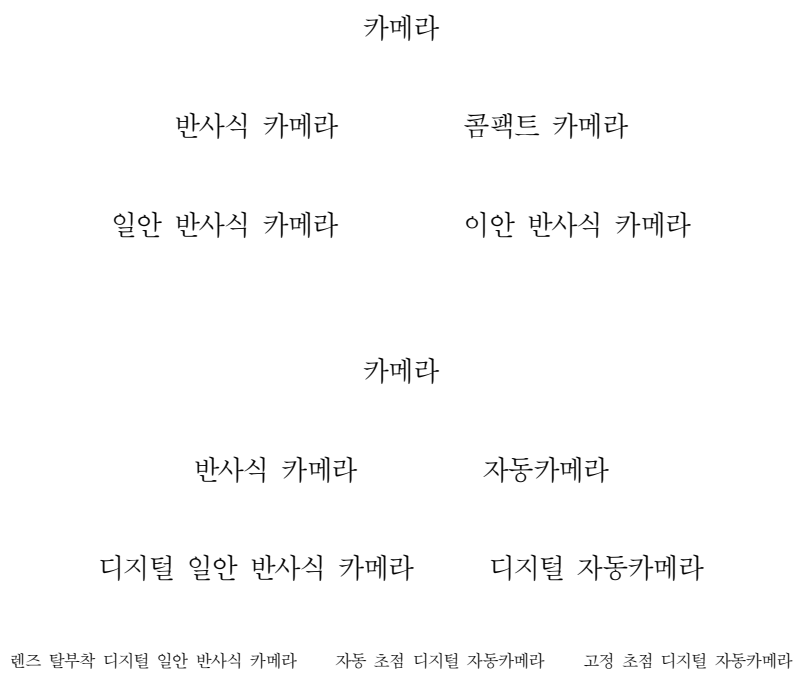
용어학의 방법론을 규정하는 UN 산하 기구 Infoterm의 『용어개설』에는 유종 관계와 전체-부분 관계로 용어를 정의하는 방식을 추천하고 있으며 특히 유종 관계 정의 방식이 가장 체계성을 띤다고 설명한다. 러시아의 저명한 용어학자 로트[D.S. Lotte(1981:4)]는 용어 형성의 방법에도 유종 관계가 가장 적절함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① 용어 체계는 계층적 분류법에 의거하여 확립되어야 한다.
② 용어는 필요충분조건을 만족시키는 개념의 속성들을 직접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③ 용어는 주어진 개념과 다른 개념들 간의 공통 관계와 동시에

텔레비전의 부분으로 간주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의문들은 개념 관계의 필요충분조건에 근거한 범주화의 객관주의적 관점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사실, 오트만[G. Otman(1996:81~84)]이 지적한 대로, 유-종 관계와 전체-부분 관계도 구별이 그리 쉽지 않다. '생화학'은 생물학과 화학의 교집합을 다루는 학문으로서 생물학과 화학의 부분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으나, 생화학을 화학의 일종이라 보는 관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 개념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분류 체계 내에서) 동일한 위상에 위치한 개념들은 동일한 형식을 띠어야 한다.

다음은 유종 관계가 전문 용어 조어에 투명하고 일관되게 반영된, 이상적인 형태의 용어 예이다.



위의 예를 보면, 유종 관계에 있는 개념들이 하위 개념으로 갈수록 상위어의 요소들에 종차 개념을 덧붙여 더 특수한 의미를 갖게

되고 이것이 일관된 방식으로 용어의 기표에 반영되어 있다. 총칭 개념, 즉 상위어가 피수식어가 되고 종차 개념이 수식어가 되어 하위어를 만들어 내고 그 하위어는 다시 최하위어의 피수식어가 되는 점층적 명명 방식이다. 동위 관계를 이루고 있는 용어들 또한 구성 요소의 대비로 인해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매우 인위적인 조어 방식이지만, 이는 용어 자체가 인공적 어휘 단위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 이 같은 조어 방식은 라부아지에(Lavoisier)의 화학 용어, 뷔퐁(Buffon)과 린네(Linne)의 식물학명, 퀴비에(Cuvier)의 동물학명 체계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역사가 매우 깊다. 하지만, 현대 학문에서도 이러한 용어 구성이 빈번히 이용되고 있다.

브레이크(brake)

액압 브레이크(hydraulic brake)

액압 동력 브레이크 (hydraulic power brake)

액압 배력 브레이크 (hydraulic servo brake)

브레이크

디스크(식) 브레이크

드럼(식) 브레이크

프론트 브레이크 슈셋

리어 브레이크 슈셋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라이닝

——— 유종 관계
------- 전체-부분 관계

외국어 용어를 차용하는 경우, 위의 '액압 브레이크'의 예는 유종 관계에 있는 용어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번역을 하여 매우 바람직한 예라고 하겠다. 더욱이 원어 power와 servo가 가지지 못한 형태적 유사성까지 한국어 용어로 번역할 때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브레이크의 예는 브레이크와 종 관계에 있는 드럼·디스크 브레이크와 이들과 전체-부분 관계를 맺고 있는 부속품들이 서로 대응되는 방식으로 조어되었음을 보였다. 용어 조어의 일관성은 이처럼 수직적 관계뿐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서도 보일 수 있다.

외국어 용어를 차용하는 경우, 우리말 언어 습성에 비해 원어가 너무 길다고 느껴질 때, 원어 용어의 구성 성분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음차하거나 번역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동위어의 동일한 요소를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진용어사전"<미진사>:
일안 반사식 카메라 - 이안 반사식 카메라 - 반사식 카메라

"사진용어대사전"<조형사>:
일안 리플렉스 (카메라) - 이안 리플렉스 (카메라) - 리플렉스 카

메라

반면, 두 동위어 '고정 초점 카메라(fixed focus camera)'와 '에이에프 카메라(autofocus camera)'는 원래의 원어 용어에서 보이는 개념적 대비를 보여 주지 않는다. 용어의 합성 구조를 통해 카메라와 "전체-부분" 관계를 맺고 있는 초점의 속성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킨 원어 용어의 조어 방식과는 달리 '자동 초점' 방식이 새로 발견된 획기적인 기술이고 전문적 개념에 해당하는 용어임을 부각시킬 수 있게 원어 약어를 그대로 음차하였다.

2.3. 전문 영역과 전문 용어의 다의성

전문 분야란 학술 분야 또는 전문적인 활동의 영역을 말한다. 한 어휘가 전문 용어이기 위해서는 그 어휘가 어떤 전문 분야에 속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즉, 용어는 전문 분야와의 관련하에서만 정의할 수 있으며 의미를 갖는다. 전문 영역은 해당 용어가 속하는 개념 체계의 총체, 즉 최상위 범주로 볼 수 있다. 전문 영역이 주어짐으로 인해 그 용어의 개념이 한정되고 정의될 수 있다.

더욱이 전문 분야는 용어의 의미 분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전문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용어의 다의성을 처리할 수 있다.

다의어나 동음이의어는 모두 서로 다른 개념에 하나의 명칭이 부여된 경우를 말한다. 동음이의어의 경우, 단어 간에 개념의 차이가 뚜렷해서 혼동의 여지가 없고 단지 형태만 같은 경우이다. 반면, 다의어의 경우, 한 용어에 둘 또는 여러 개념이 부여되었지만 그 개념

들 사이에 의미상 공통점이 있어 완전히 개별적인 두 단어 또는 여러 단어라 간주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사전에서 동음이의어는 서로 다른 표제어로 취급하고, 다의어는 하나의 표제어에 의미를 분화시켜 기술한다.

전문 용어의 경우 동음이의어의 형성은 가급적 피하고, 다의어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하지만 언어는 유한하므로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의 출현은 불가피한 언어 현상이다. 전문 용어 내에서도 다수의 동음이의어와 다의어가 발견되는데, 이를 관리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영어의 class는 “집합”, “부류”, “계급”, “강(綱)” 등의 의미를 갖는 다의어이다. 전문 용어 사전에서는, 위와 같이 일반어에서 다의어로 처리되는 단어의 경우, 각 개념이 속하는 전문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의미를 구분하고 이들을 다의어가 아닌 동음이의어로 취급한다. 즉, 생물학 분야의 class와 사회

---

2) 일반어에서는,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서로 의미가 다른 단어들을 동음이의어라 한다. 여기서 “같은 형태”란 한글 철자법상의 동일성을 뜻한다. 발음의 장단에 차이가 있거나 한자 표기가 다른 단어의 경우에도 한글 철자가 동일하면, 동음이의어로 간주한다. 다음의 예들이 동음이의어에 속한다.

① 눈(目) / 눈 : (雪): 고유어로서 장단이 다른 경우
② 장(場, 토론의 장) / 장(腸, 신체 장기) / 장 : (欌, 가구) / 장 : (醬, 간장, 고추장, 된장 따위): 한자어로서 한자 표기가 다른 경우(장단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음.)
③ 작살(연장의 일종) / 작살(여지없이 깨어지거나 부서져 결딴이 남): 고유어로서 발음상 차이가 없는 경우
④ 장군(將軍, 군을 통솔, 지휘하는 무관) / 장군(將軍, 장기에서 상대편의 궁을 잡는 수): 한자어로서 한자 표기가 동일하나 의미의 분화가 확실한 경우

학의 class는 서로 다른 두 용어로 취급된다. 우리말의 '핵'도 마찬가지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핵은 8가지의 의미를 갖는 다의어로 취급되어 있다. 그중 7가지가 전문어 용례이다. 전문어 사전에서는 서로 다른 전문 영역에 속하므로 각각 다른 표제어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어 사전:

class *n.* ① 집합, 부류 종류. ② 사회 계급, 계급 ③ <생> 강綱. [……]

전문어 사전:

class *n. biology.* [……]

class *n. sociology.* [……]

<표준>

핵 명 ① 사물이나 현상의 중심. ②『군』=핵무기. ③『물』원자핵. ④『생』생물 세포의 중심에 있는 공 모양의 소체. 핵막으로 싸여 있으며, 그 속에 가득 찬 핵액에는 염색사와 인이 들어 있다. 세포 작용의 중추가 되며, 세포 분열에 관계한다. =세포핵. ⑤『식』과실의 종자를 보호하고 있는 단단한 부분. 과실의 종자를 보호하고 있는 단단한 부분. 과실의 내과피가 굳어진 것으로 매실, 복숭아 따위에 있다. ⑥『지[1]』지구의 중심핵. 지표에서부터 깊이가 약 2,900km 이상인 부분으로, 외핵과 내핵으로 나뉜다. =코어. ⑦『화』유기 화합물을 구성하는 고리. 벤젠

핵 따위가 있다.

또한 같은 분야에 속하는 용어라 하더라도 그 하위 분야(소분야)나 응용 분야가 다를 경우 서로 다른 용어로 취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트라이크'는 체육학 분야의 용어지만, 야구 용어인지 볼링 용어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이때 하위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의미가 다른 두 용어로 취급할 수 있다.

스트라이크[1] 명 (체) <볼링>
스트라이크[2] 명 (체) <야구>

전문 영역과 그 하위 영역의 명시가 전문 용어의 의미 분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실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은 캐나다 퀘벡 주에서 제공하는 용어 은행에서, 영어 표제어 scale이 속하는 전문 영역을 나열한 것이다.

scale
agriculture
    harvest processing equipment
    wine growing
apparatures
art
    music
    harpsichords

biology
botany
brewing
cartography
chemistry
climatic engineering
    heating
construction
    architecture
drafting
education
    measurement and evaluation
electricity
    displaying measuring instruments
    electrical cable
finance
geology
    mineralogy
geomatics
glass
graphic desgin
instruments
leisure activities
    outdoor leisure equipment

- camping
- marine activities
  - boat engines
- mathematics
  - operation research
- medicine
  - dermatology
  - veterinery medicine
- metallurgy
  - metal coating
  - metal corrosion
  - semifinished metal processing
  - metal treatment
  - enamelling
  - metallography
  - metal tubes
  - iron and steel metallurgy
- metalworking
  - dimensional metrology
- oil and natural gas
- painting
  - paint quality control
- paper industry
  - paper surface defects

photography
physics
    metrology
    musical acoustics
plumbing
postal service
printing
    copy preparation
psychology
    psychometry
railways
    rail defects
    track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railway traction equipment
shoe industry
sports
    boxing
    weight lifting
    wrestling
    sports equipment
    horse racing
    gymnastics
sugar industry
    maple syrup preparation

transport

air transport

urbanplanning

water

hydrology

zoology

herpetology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에 대한 기준과 관점은 상대적인 것이므로 간단히 규범화되기 어렵다. 일반어의 경우도 동일한 어휘에 대해 사전마다 처리하는 기준이 다르다. 전문 용어의 경우 용어의 다의성과 동음이의성에 대한 연구는 현재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므로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3. 전문 용어의 정리와 표준화

3.1. 전문 용어 정리의 목적

전문 용어의 정리 작업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 쓰일 수 있다.

① 전문 지식의 전달

용어와 개념 분석을 통해 용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분야 내뿐만 아니라 인접 분야와의 의사소통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한다. 동일한 개념을 서로 다른 용어로 지칭한다거나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여 지식 소통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를 방지하려

는 차원에서 용어 정리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② 전문 영역을 이루는 기본 어휘의 교육

한 전문 분야의 근간을 이루는 어휘를 교육하고 습득하는 데 용어 자료가 이용될 수 있다. 이는 학술 분야뿐 아니라 기술 분야나 특정 직업에서도 마찬가지로 활용될 수 있다. 그 분야나 직업을 새로 접하는 사람들에게 개념의 습득과 소통의 자료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③ 번역 및 통역

서적을 보면서, 제대로 번역되지 않은 용어로 인해 혼동을 겪은 경험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용어 정리 작업은 하나의 언어뿐 아니라 이중어나 다언어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때 번역가나 통역가는 용어 자료의 가장 일차적인 사용자가 될 것이다.

④ 언어 정비

언어 정비란 언어 내적 의사소통의 질을 향상시키고 빈번한 접촉이 있는 외국어와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여 끊임없이 언어 체계를 새로이 정립하는 활동을 말한다.(Antia:2000) 언어 정비는 다음의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전문 용어는 언어 정비의 중요한 동인이 된다.

- 언어 행위의 실제 모델들을 연구, 관찰, 기술하는 것
- 언어 용례의 표준화 절차를 평가·감독하는 것

- 언어 활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개입하는 것

⑤ 학술적, 기술적 글쓰기

학술 목적의 논문, 행정 부서 및 관청의 공문서에서 제품의 사용 설명서까지 모두 고도로 전문화된 용어를 사용한다. 법률 분야와 같이 규정 용어만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배타적으로 꼭 사용해야 하는 용어, 용인되는 용어, 피해야 할 용어 등의 목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⑥ 용어의 로컬화(용어의 조정)

'로컬화'라는 개념은 시장의 논리나 소비자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대상이 되는 문화와 특성을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용어의 로컬화는 예를 들어 한 언어가 지역에 따라 다를 때, 즉 영국, 미국, 호주 등의 영어가 각자 지역별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다양성을 고려하여 용어의 지역적 변이형이 생성되고 또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개념은 그 범위를 넓혀, 용어의 대중화와도 깊은 관련을 갖는다. 일반 대중에게 보다 친숙한 어휘로 용어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아무리 대중화된 용어라도 사람마다 표현이 달라서는 안 되며, 하나의 개념은 하나의 명칭으로 통일되어 대중에게 정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2. 전문 용어 정리(표준화)의 기준

① 사회 언어학적 기준

- 사용자 집단에서 그 용어에 대한 요구가 있는가
- 용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가
- 용어가 해당 분야에 적절한가

② 심리 언어학적 기준
- 한국어 화자의 언어 습관에 합당한가
- 윤리적, 미학적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가: 금기시되는 표현이나 비·속어, 발음상 듣기 거북한 용어는 피해야 한다.
- 심리적 이질감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가(익숙하지 않은 외국어 표현이나 발음 표기, 너무 길거나 과감하게 축약된 용어 등)
- 국가적 또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가

③ 국어학적 기준
- 전문 용어의 표준화는 국어 표준화의 모든 기준에 합당해야 한다(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띄어쓰기 규칙 등)
- 일반적인 단어 형성 규칙에 맞는가(조어법 기준: 합성어의 구성, 파생 방식 등)
- 여러 사전류에서 검증된 용어인가(표준국어대사전 등)

④ 용어학적 기준

- 앞에서 살펴본 용어의 특성, 용어의 일의성, 투명성, 일관성,

간결성을 갖추어야 한다.

- 각 전문 분야 내에서만이 아니라 전문 용어 전체의 조화와 통일을 이뤄야 한다.

3.3. 전문 용어 정리 방법 및 절차

① 전문 말뭉치 구성

말뭉치 구성은 전문 용어 사전이나 용어 은행을 구축하는 사업뿐 아니라 표준 용어 목록 구축 등 모든 용어 정리 작업에 선행하는 단계로서 정리의 대상이 되는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전문어 말뭉치로 우선 구성되어야 한다. 전문 말뭉치는 경우에 따라서 전문성이 높은 텍스트뿐 아니라 전문 지식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텍스트도 포함할 수 있다. 국가나 학회, 기업 등이 전문 용어를 정리하려는 계획이 있을 때, 이 계획의 규모나 목적, 이용 대상자들에 따라 말뭉치를 만든다. 일반 사전을 위한 대규모 말뭉치는 전문 용어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전문 용어 DB 구축에 쓰일 만큼의 세밀한 정보를 주지 못한다. 예를 들어 의학 용어를 포함하더라도 그것이 병리학에 속하는지, 면역학에 속하는지 구분하기는 힘들 것이다. 반면, 이러한 분류는 용어 정비에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용어 수집과 자료 분석에 앞서 말뭉치 구축 작업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어 말뭉치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텍스트는 가장 풍부한 용어의 저장고이므로 용어 인증의 장이다. 즉, 용어가 존재하고 또 전문가들 사이에 실제로 사용

되고 있음을 보이는 증거가 된다.

- 용어의 빈도수와 분포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정의의 요소를 제공한다.
- 용어의 변이형을 보여 준다.
- 용어의 상위어와 하위어에 대한 정보를 준다.
- 용어가 지칭하는 개념과 전체 또는 부분 관계를 맺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보를 준다.
- 용어가 지칭하는 개념의 기능이나 원인·결과 등의 개념적 관계에 대한 정보를 준다.
- 용어의 동의어, 반의어 그리고 동위어를 보여 준다.
- 용어와 공기하는 연어적 요소들을 보여 준다.

일반적으로 전문어 말뭉치의 규모는 일반 말뭉치보다 덜 중요한 기준이다. 반면, 소분야별, 학파나 유파별 텍스트의 적절한 분배가 중요하며 전문 용어의 개념 기술에 수반되는 문맥 정보를 위해 말뭉치의 표본성이 요구된다.

② 전문 용어 채집

전문어 말뭉치에서 후보 용어들을 추출해 내는 작업에 해당한다. 이 후보 용어들에 대해 전문가들과 용어학자들이 모여 수차례 선별 작업을 행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용어의 유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일반 언어를 구성하는 단어가 전문적 의미를 부여받아 용어

가 된 경우

[컴] 정보, 처리/처리하다, 저장/저장하다, 설정/설정하다
[물] 간섭, 독립성, 유도

- 기존의 어휘에 존재하지 않는 형태로 새로이 용어를 구성하는 경우(인구어의 경우, 그리스·라틴 어원을 이용, 우리말의 경우 한자를 새로이 조합하여 신조어를 만든 경우)

[수] 기약(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분수, 단사(일대일 사상)
[물] 증분
[가정] 비탁법(nephelometry)

- 기존에 존재하는 단어나 용어들을 조합하여 복합어나 구를 만들어 하나의 개념에 대응시켜 단일한 의미 단위가 되도록 하는 경우

[의] 신경자극, 고리나선신경종말, 혀밑신경

- 축약어의 경우 합성어의 각 단위의 두음을 따서 줄임말을 만드는 경우와 합성어 단위 중 하나를 생략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산자부(산업자원부), 재경부(재정경제부), 원폭(원자폭탄), 노

조(노동조합)
교육부(교육인적자원부), 문화부(문화관광부)

특히, 많이 쓰이는 축약어의 경우 그것이 다시금 하나의 단위로 간주되어 파생어나 합성어를 만들기도 한다.

원폭피해자, 노조원, 노조위원회

- 공식 명칭(행정적인 부서명, 지위나 조직, 기관명)

금융감독원, 한국노총, 과학기술총연합회, 재무이사, 프로듀서

- 언어 단위뿐 아니라 기호나 단위 표시, 화학 원소 기호, 화학 분자식 등을 전문 용어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 €, $, ±, ÷, <, >, ∀, ∑, *(언어학의 비문 표시), ℃, km, cm, Fe, NaCl

③ 전문 용어에 대한 자료 수집

용어를 기술하는 데 이용할 만한 정보를 수집한다. 앞에서 수집된 용어가 등장하는 문맥들을 말뭉치에서 추출하는 작업과 기존의 용어집이나 사전 등 다른 정보 출처를 조사하는 작업을 병행한다.

④ 자료 분석 및 종합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 용어학적 지식, 국어학적 지식이 총동원되어 모은 자료들을 분석, 심의하고 결정을 내리는 단계이다. 용어의 의미 구분 방식, 관련 개념 집합 조성 등에 대한 선택 작업을 완료한다.

⑤ 자료의 기술

용어 정리의 틀과 목적에 따라 위의 분석 사항을 실제로 기술한다. 용어의 정의, 문맥 정보, 이중어나 다언어로 된 용어 자료의 경우 각 언어로 된 등가어 등을 기술한다.

⑥ 전문 용어 자료의 처리 및 조직

가나다 순서, 알파벳 순서 또는 주제별 분류에 따라 자료를 처리한다.

⑦ 전문 용어 자료의 관리

용어 사용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자료의 수정, 첨가, 삭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3.4. 전문 용어 자료의 처리 방안

3.4.1. 전문 용어 목록의 구성 방식

① 표제어

기술의 대상이 되는 용어를 기입한다.

② 문법 정보

대부분의 전문 용어는 명사이지만, 다른 품사의 용어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표기한다.

③ 사용역 표지

용어 사용에 있어 특징적인 것을 명시한다. 지역적, 지리적 특수성, 직업적 특이성, 표준화 기구의 평가나 시대에 따라 변천을 겪은 용어 형태 등을 기입한다.

④ 전문 분야 또는 그 하위 소분야

전문 분야를 명시하는 것은 분야별 용어 선별에도 필요하지만, 용어의 의미를 기술하는 데 필수적 요소이기도 하다. 동일한 하나의 개념이 두 영역에서 다른 용어 명칭으로 불릴 때도 있고 또는 어떤 A 영역에서 a라는 개념을 가리키는 용어 t가 B 영역에서는 b 개념을 명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초반에서부터 영역 분류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한 개념이 한 영역 또는 여러 영역에 속하는지 보일 수 있고 또 영역별로 다른 개념을 지칭하는 한 용어 명칭의 용례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⑤ 정의

정의란 특정 전문 분야 내에서의 용어 의미에 대해 기술한 문장이다. 용어의 정의는 개념의 속성과 그 개념이 지시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들, 그리고 다른 동위 개념들과의 차이를 드러내야 한다. 정의문은 간략하고 명시적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내포적 정의 방법, 외시적 정의 방법, 반의적 정의 방법('~의 반대 또는 대립어'와 같이 정의하는 방식), 동의어 정의 방법('~의 동의 또는 유사어', '~의 다른 표현' 등과 같이 정의하는 방식), 메타언어적 정의 방법('~일 때 쓰는 말', '~를 일컫는 말', '~라고 부른다'라는 표현들이 쓰임) 등이 많이 이용된다.

⑥ 주석

전문 용어가 가리키는 개념을 파악하는 데 정의문 하나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백과사전적 추가 정보를 주게 된다. 정의문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유형의 정보가 이 범주에 들어간다.

⑦ 문맥

전문 용어의 의미는 그 용어가 실제 문맥에서 실제 술어(명사인 경우)와 함께 쓰이는 것을 보았을 때 더욱 잘 파악될 것이다. 표제어가 포함되어 있는 그대로의 문장을 준다.

⑧ 연어 구성 정보

용어와 함께 고정적으로 많이 쓰이는 술어 정보를 준다.(용어가 동사나 형용사일 때는 논항 정보를 준다.) 특히 그 술어가 일반 어휘와 결합할 때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면 꼭 기입한다.

⑨ 삽화

많은 전문어 사전이 흡사 제품 설명서와 같이 삽화를 넣고 있다. 퀘벡 정부의 용어 은행인 Banque de terminologie du Québec은

풍부한 삽화로 유명하다. 특히 삽화는 표제어와 전체-부분 관계를 이루는 용어들을 한눈에 알아보게 해 줄 것이다.

⑩ 관련어

개념적 관계망 속에서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용어들을 표기한다. 해당 개념과 원인-결과, 재료-산물, 재료-행위, 방법-절차, 방법-산물, 절차-공간, 활동-척도, 대상-속성 등의 관계를 맺고 있는 용어들을 밝힌다.

⑪ 참고 문헌

참고 문헌은 직접적인 용어 관련 자료는 아니지만, 용어 은행의 경우에는 언제나, 용어 사전의 경우엔 가끔씩 수록되어 있다. 용어를 기술하는 데 소용된 문서의 출처를 밝힌다.

3.4.2. 대표적인 전문 용어 파일의 예

3.4.2.1. 프랑스 전문 용어 및 신조어 센터(CTN)의 용어 파일

프랑스 전문 용어 및 신조어 센터(CTN)는 인지과학 분야 용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파일을 만들어 작업하였다. 용어학적, 언어학적 정보가 가장 풍부히 들어 있는 전문 용어 파일 중에 하나라고 보인다.

CHAMP	내 용
FRA	프랑스어 표제어(대문자)

GRA	품사
SOU	저자, 출처, 장소, 날짜
LEN	LENOCH 코드(유럽 연합의 분류 체계)
DOM	전문 영역
SDO	하위 영역(개념이 속하는 커다란 주제 분야)
DOA	응용 영역
DEF	정의 또는 정의문
DE2	정의문 계속(필요할 경우)
CON	문맥 정보(텍스트적 정보)
SOU	문맥의 출처
TYP	문서 자료의 유형(서적, 학위 논문, 잡지, 신문, 보고서 등)
SYN	동의어 프랑스어 등가어(축약어와 철자 변이형)
STA	표준 형태(표준화 기구 명칭 기입 ISO, AFNOR, OLF, BTQ 등)
ENG	영어 등가어, 동의어, 축약어
NOT	주석(백과사전적 정보)
COM	용어가 직접 성분으로서 전형적으로 구성하는 구: 술어동사, 전치사, 한정어 등
SOR	유종: 유종 관계를 이루며, 바로 상위에 있는 총칭적 개념
PAR	부분: 전체-부분 관계를 이루며, 이 개념이 포함되는 전체 개념

PRE	술어: 가장 전형적인 행위, 기능 술어(예를 들어 이것이 어디에 소용되는지 기술하는 술어) 또는 개념의 속성
ARG	논항: 기술 대상이 되는 개념에 전문가들이 가장 자동적으로 연결시키는 관련 대상
BEM	파일 작성 기관(CTN)
RED	파일 작성자 이름
MAJ	가장 최근의 업데이트 날짜, 아니면 파일 작성 날짜
CFI	파일의 신뢰도(0~1)
REF	파일 번호
FAM	같은 개념 집합: 참조
VED	표제어(소문자: 프랑스어의 경우 대문자로는 악센트 부호가 생략되고 소문자에서는 다 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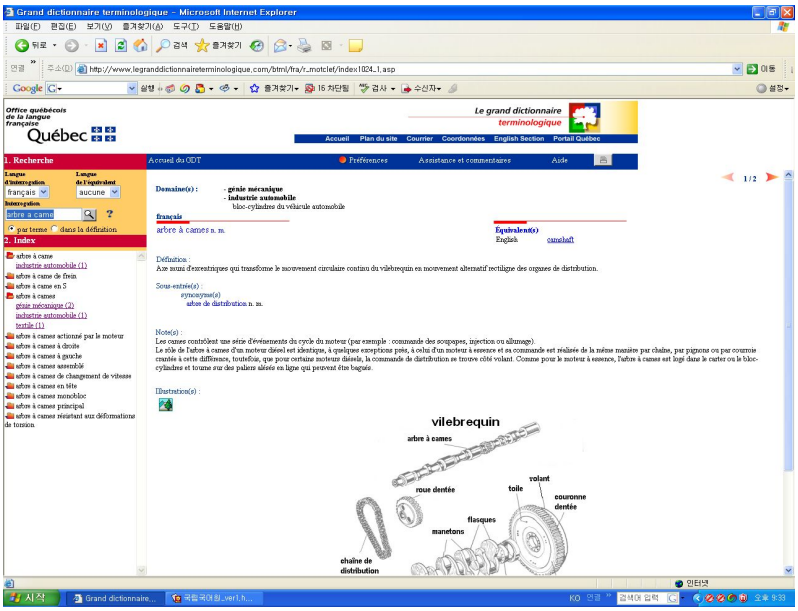
3.4.2.2. 퀘벡 프랑스어 연구원(OLF)의 용어 은행

캐나다 퀘벡의 프랑스어 연구원(Office québecois de la langue française)은 프랑스어와 영어의 이중어를 다루는 용어 은행을 무료로 제공한다. 각 파일에는 해당 전문 분야와 하위 분야를 명시하고 프랑스어를 검색어로 하였을 때 정의문 및 주석 등 모든 설명이 프랑스어로 제공된다.(영어 표제어를 검색하였을 때는 영어로 제시된다.) 영어 등가어가 제시되며, 많은 경우 삽화와 함께 그림 속에 등장한 구성요소들의 명칭이 함께 제공된다.

아래는 arbre à cames(캠축)이라는 프랑스어를 검색한 것인데 왼

쪽 기둥에 arbre à cames와 arbre à cames이 포함된 모든 복합어(arbre à cames de frein, arbre à cames monobloc 등)의 리스트가 제공된다. 각 표제어를 클릭하면 각 전문 분야가 표시되고, 공통의 정의를 갖는 분야는 공통의 용어 파일을 공유하며, 의미가 다른 경우, 새로운 파일을 열도록 구성되어 있다.

http://www.legranddictionnaireterminologiqu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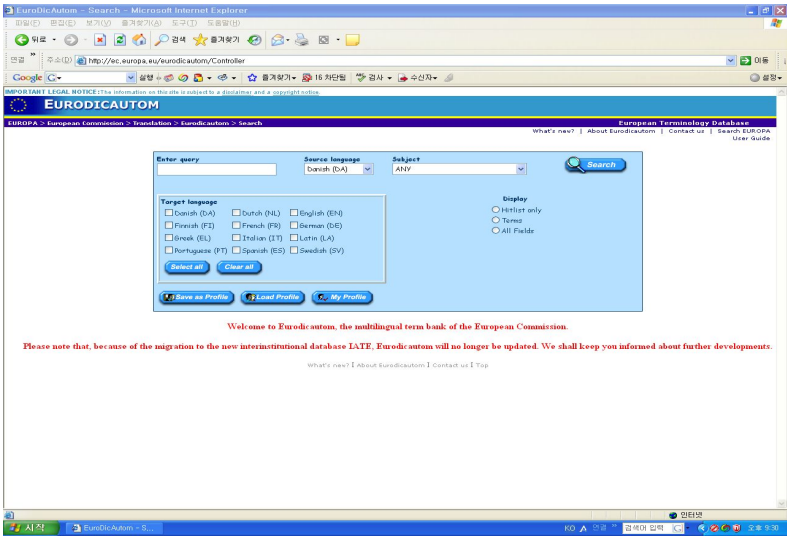
3.4.2.3. 유럽 연합의 전문 용어 데이터베이스(EURODICAUT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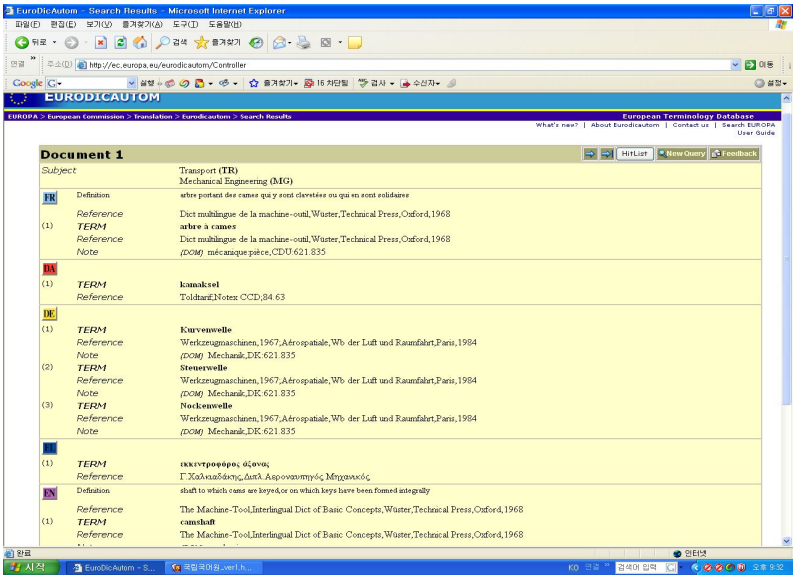
EURODICAUTOM은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

틴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이태리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핀란드어 등 12개 언어로 이루어진 다언어 전문 용어 데이터베이스이다. 이것의 가장 주된 목적은 유럽연합국들이 지식을 공유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용어 대응어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영어나 프랑스어의 경우, 용어 관련 정보가 많이 채워져 있는 데 비해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해 주는 언어도 있다.

European Terminology Database

http://ec.europa.eu/eurodicautom/Controller





3.4.2.4. 한국학술단체연합회의 용어 파일

한국학술단체연합회는 2003년 12월부터 총 58개 분야에 걸쳐 용어 표준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18개 분야가 완료되었으며, 완료된 용어 자료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http://term.kaoas.or.kr/

다음은 용어 정보 입력 지침과 그 내용이다.

① 분야

필수적인 정보로서 해당 학문 분야명을 기재

예) 물리학, 화학, 수학 등

② 소분야

소분야 정보는 수의적인 것으로, 필요한 경우 세부 분야명을 기입할 수 있음.

예) 물리학의 경우 - 입자 및 장물리(01), 열 및 통계물리(02), 천체물리(03), 원자핵물리(04) 등

③ 영어 용어

필수적인 정보로서 영어 용어를 기입. 영어 용어는 개념 표시자(concept identifier)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용어 정보 교환을 위해서 필수적임. 특히, 동일한 용어가 상이한 의미로 사용될 때는 영어 용어 앞에 아라비아 숫자를 다음과 같이 붙여서 표기함.

예) 1. process
2. process (in data processing)

④ 한국어 용어

필수적인 정보로서 해당 한국어 표준 용어(우선어)를 기입. 가능하면, 한 개의 용어만을 표준 용어(우선어; preferred term)로 허용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을 기입할 수도 있음. 두 개 이

상의 용어를 기입할 때에는 중간에 반점(,)을 찍도록 함.

예) chamber enlargement ==> 심방실 확장, 심방실 확대

⑤ 원어 용어

이 항목은 필수적이 아님. 해당 용어가 영어 이외의 언어에서 유래하는 경우 원어 용어를 기입함. 특히, 원어를 표기해야 하는데, 다음의 코드 체계를 병기하도록 함.

영어 명칭	식별코드	영어 명칭	식별코드
Chinese	zh	Latin	la
French	fr	Polish	pl
German	de	Japanese	ja
Italian	it	Dutch	nl

<그림 4> 언어 식별 코드

예) 원어가 독일어 용어인 경우
[de]Tellerfeder

⑥ 영어 약어/완전형

영어 용어(표제 용어)가 약어 형태를 갖는 경우 그 약어 형태를 기입. 표제 용어가 약어 형태인 경우에는 그 용어의 완전형(full form)을 기입.

예) data link control → DLC
DDE → dynamic data exchange

⑦ 한국어 변이형

필요한 경우 위 (4)항의 한국어 용어(표준 용어 또는 우선어)에 대한 형태적 변이형을 기입. 두 개 이상의 변이형이 있을 경우에는 반점(,)을 이용하여 기입.

예) 천연 소다 → 천연 소-다
에어콕 → 에어코크

⑧ 한국어 동의어

필요한 경우 위 (4)항의 한국어 용어와 동의적으로 사용되는 비표준적인 용어(비우선어)를 기입. 두 개 이상의 용어가 있을 경우에는 반점(,)을 이용하여 기입.

예) microchip - 극소형 소자 → 미소 소자, 마이크로칩

⑨ 한자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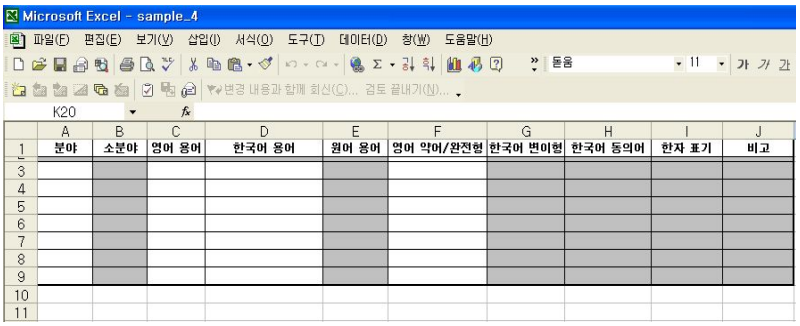
필수적이지 않음. (4)항의 한국어 용어에 대해서 한자 표기가 가능할 경우에 한자 표기를 기입할 수 있음.

예) 복통 - 腹痛

⑩ 비고

기타 입력 사항이 있을 경우 이용함.

용어 파일의 형식은 아래와 같다. 이 표에서 회색으로 표시된 칼럼은 입력이 필수적이지 않은 항목이다.



<철학 분야 용어 파일의 예>

분야	소분야	영어 용어	한국어 용어	원어 용어	약어	한국어 변이형	한국어 동의어	한자 표기	비 고
철학	서양중세철학	abstraction	추상	[la] abstractio					
철학	윤리학	abuse of official position	공직 남용, 공권 남용						
철학	서양고대철학	academy	아카데미아	Akadēmeia					
철학	서양중세철학	accident	우유	[la] accidens					
철학	서양중세철학	accidental form	우유적 형상	[la] forma accidentale					
철학	과학철학	acquired characteristics	획득형질						
철학	서양중세철학	act of being	존재, 실존	[la] esse					
철학	사회철학	alienation	소외	[de]Entfremdung				疎外	
철학	윤리학	allocative justice	할당적 정의						
철학	윤리학	allograft	동종이식						
철학	윤리학	alternative medicine	대체 의학						
철학	사회철학	altruism	이타주의					利他主義	
철학	윤리학	altruistic surrogacy	이타적 대리출산						
철학	서양고대철학	ambiguity	애매	amphibolia					
철학	윤리학	ambivalent motives	이중적인 동기						
철학	윤리학	amoralism	탈도덕주의						
철학	과학철학	ampliative inference	내용확장추론						
철학	서양중세철학	analogy	유비	[la] analogia					
철학	분석철학	analysis	분석						
철학	과학철학	analytic statements	분석진술						
철학	과학철학	analytic truth	분석적 진리						
철학	분석철학	analytical hypothesis	분석(적) 가설						
철학	분석철학	analytical philosophy	분석철학						
철학	분석철학	analyticity	분석성						
철학	분석철학	analytic-synthetic distinction	분석-종합 구분						
철학	과학철학	anaphora	대용어						
철학	사회철학	anarchism	무정부주의					無政府主義	

II. 전문 용어 정리 사례

1. 국외 사례

1.1. 일본에서의 전문 용어 정비 사업

1.1.1. 전문 용어와 관련된 개념 및 용어

일본에서는, '전문 용어'와 관계된 개념 및 용어로 '전문어', '직업어', '집단어', '학자어', '학술어', '학술 용어', '위상어', '술어' 등이 일찍부터 사용되어 왔다. 그중 '전문어'와 '학술 용어'라는 용어가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개념 및 용어와 관련된 문제를 일본의 국어학 사전 및 언어학 사전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전문어: 학자들, 기술자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특수어로 술어라고도 불린다. (後略)
>
> 직업어/전문어: 위상어의 일종으로, 특정의 직업의 사람 사이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직업어라고 하고, 전문이 같은 사람 사이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전문어라고 한다. 넓게 말하면 직업어도 전문어에 넣을 수 있지만, 직업어와 구별하는 경우, 예술가, 학자, 법률가 등 지적 직업에 관계된 언어를 전문어라고 한다. 학자어라고도 부르지만, 여기에는 예술가의 언어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어보다 좁은 용법이다. (後略)
>
> <国語学研究事典(1977), 明治書店>

일본에서는 레지스터(register)의 개념과 유사한 '위상(位相)'이란 개

념이 일찍부터 정립되어, 지역, 성, 연령, 직업, 계층 등에 따른 말의 차이가 '위상어(位相語)'란 이름으로 주목을 받아 왔는데[3], 이에 따라 '전문어' 또한 '위상어'의 일종으로 간주되었다[4].

그리고 '직업어'라는 용어는 '전문어'와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위의 항목에 따르면, 위상어(집단어, 사회 방언)의 일종으로 전문어가 존재하고, 넓은 의미의 '전문어'는 '직업어'를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위와 반대로 '직업어'를 '전문어'의 상위 개념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

> 전문어 jargon: 슬랭(slang)과 같이 특정 사회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언어, 주로 단어이고, 특히 직업이나 전문을 같이 하는 사람 사이에 사용되는 것. 술어라고도 한다. 광의로는 직업어와 같지만, 협의로는 예술가, 과학자, 철학자, 종교가, 법률가 등이 같은 전문가끼리 말할 때 사용하는 특정의 단어를 말한다. 즉 지적 직접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업어이다. 이 의미에서 학자어, 학술어(학술 용어)에 가깝지만, 예술 용어, 법률 용어, 종교 용어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학자어, 학술어보다 넓은 개념을 나타낸다. (後略)
>
> 직업어: 어떤 직업에 사용되는 용어 중에서 일반 사회와 의미가 다른 것을 직업어라고 한다. 이 점에서 협의의 전문어도 여기에 들어간다. 그러나 다른 직업의 사람이 알지 못하게 정한 은어도 포함

3) 菊沢李生(1933)의 『国語位相論』에서 전체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위상어'란 특정 주제에 관한 특정한 장면 또는 특정 직업군에서 사용되는 말로, 특정한 위상이 인정되는 말을 가리킨다. '위상어'는 '집단어, 사회 방언'이라고도 부른다[言語学大辞典6巻(1996) 참조].

4) 佐竹秀雄(1982)의 「現代の専門用語」 참조.

한다는 점에서, 성립 목적부터 전문어와는 다르다. 또한 직인이나 공원 등 현장의 사람들이 일상의 일에서 자연스럽게 발생시킨 것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사용되는 계층에서도 전문어와는 다르다.

<国語学大辞典(1980), 東京堂出版>

즉, '직업어'를 '(광의의) 전문어'의 일종으로 보는 관점과 '(협의의) 전문어'를 '직업어'의 일종으로 보는 관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직업어'와 '전문어'를 구별하여 사용할 경우, '(협의의) 전문어'를 지적 직업에 관계된 언어로 한정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jargon(직업어/전문어): 특정 직업이나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특수한 용어 등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관공서 용어(official jargon), 의료 관계자의 특수 용어(medical jargon), 배관공의 말(plumber's jargon) 등. (後略)

technical term(전문어): 어떤 특정한 전문 분야 또는 직업에 특유한 언어 변종으로, technolect라고도 한다.

<現代言語学辞典(1988), 成美堂>

'술어'라는 용어는 technical term의 역어라는 점에서, '(광의의) 전문어'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5]. 지금까지의 정의들을 아울러 간

5) '술어'를 '전문어'보다 좁은 영역으로 보아, '학술상의 전문어'만을 지칭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術'이라는 요소가 보통은 '학술'을 지칭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술어'는 '학술 용어'와 동의가 될 것이다. 国立国語研究所(1981)의 「専門語の諸問題」 참조.

단히 정의하자면, '(광의의) 전문어/(광의의) 직업어/술어'는 '특정 직업과 분야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정의할 수 있으며, '특정 직업'을 부각하여 지칭할 경우, '직업어', '특정 분야, 특히 지적인 특정 분야'를 부각하여 지칭할 경우, '(협의의) 전문어'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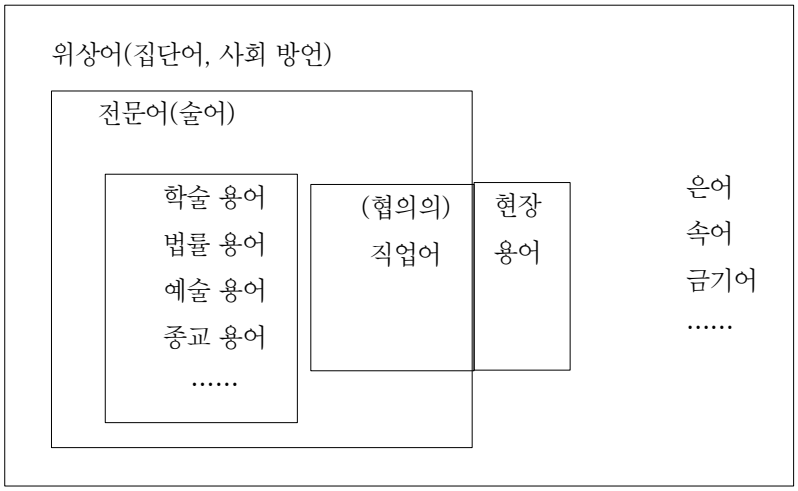
'전문어'와 혼용되어 사용되는 용어 중에는 '직업어' 이외에 '학술 용어(학자어, 학술어)'라는 용어가 있다. 이 용어는 <국어학대사전(1980)>, <국어학연구사전(1977)>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문어'의 하위 부류를 이루는 한 항목으로 볼 수가 있다.

> 전문어: 전문이 같은 사람들의 집단에서 사용되는 특정의 단어를 전문어라고 한다. 전문에는 수학자, 철학자, 언어학자 등 같은 전문분야의 사람이 사용하는 학술 용어가 있다. 법률가가 사용하는 법률 용어도 전문어이다. 예술가가 사용하는 예술 용어, 종교인이 사용하는 종교 용어 등이 있다. (後略)
>
> <日本語百科大事典(1988), 大修館書店, 748쪽>

'학술 용어'가 '전문어'와 동의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은, 전문어에 '법률 용어', '종교 용어', '예술 용어' 등 '학술 용어'와 대등한 지위의 다른 전문어가 존재하기 때문임이 공통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학술 용어'는 '학술 분야에서 사용되는 전문어'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6].

---

6) <日本語百科大事典(1988), 大修館書店>에서는 특정 사회 집단이 사용하는, 그 집단에 특유한 언어를 '동료 언어'(仲間内のことば) 또는 집단어라 정의하고, '전문어', '금기어'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言語学大辞典6巻(1996), 三省堂>에서는 직업어(전문어, 상업어), 은어, 속어를 '집단어'의 항목에서 풀이하고 있다.



1.1.2. 전문 용어의 특징

위에서 '전문 용어'와 관련된, 일본에서의 용어 및 정의들을 살펴보았는데, '전문 용어'가 사용자와 사용 영역의 문제와 밀접히 관련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만으로는 '전문 용어'의 언어적 특징이 무엇인지, '일반어'와는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전문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 언어적 특징과 관련한 문제들이 일본에서 어떻게 논의되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어학대사전(1980)>에서의 논의를 다시 살펴보면, '특정 사회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언어, 주로 단어(語[7])이고, 특히 직업이나 전문을 같이 하는 사람 사이에 사용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또한 '직업어'

---

7) 일본어로 '고(語)'는 '언어'라는 의미와 '단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단어'라는 의미일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피기로 한다. 国立国語研究所(1981「専門語の諸問題」 참조.

를 ‘일반 사회와 의미가 다른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즉 ‘인위적 조어’, ‘단어 층위’, ‘일반적 의미와 달리 사용되는 용어’라는 ‘전문 용어’의 특징을 들고 있다.

> 전문어: 의미나 내용에 전문적으로 엄밀한 한정이 되어 있는 말이며, 특정 전문 분야에서 특별히 만들어진 말. (後略)
>
> <日本語百科大事典(1988), 大修館書店, 519쪽>

> 집단어: 지역 이외의 요인에 의해 성립하는, 집단 내에 발생한 말 또는 표현. (中略) 이 목적에 합치하기만 하면, 언어의 어떤 레벨에도 나타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단어의 층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경우, 단어의 형식이 통상의 그것과 다르거나, 같은 형식이라 하더라도 의미의 차이가 인정되는 표현 양식이다. 음운이나 문법(통사)의 층위에 나타나는 것은 극히 소수이다. (後略)
>
> <言語学大辞典6巻(1996), 三省堂>

다른 사전의 정의를 살펴보아도, 이와 비슷한 특징을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적으로 정의된 말’은 ‘일반적 의미와 달리 사용된다’는 것과 상통하며, ‘음운, 통사 층위보다 단어 층위에 주로 발생’한다는 것은 ‘전문 용어는 주로 단어’라는 것과 같다. 또한 형식적인 면에서 ‘통상의 그것’(일반어)과 다르거나 형식이 같을지라도 의미의 차이가 보인다는 것은 일반어와 차이를 서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언어 층위의 면: 주로 단어 층위에서 발생. 음운, 통사 층위에서의 발생은 소수[8].

형식적인 면: 일반어와 형식이 다른 경우가 있음.

의미적인 면: 전문적으로 엄밀히 정의되어 있으며, 따라서 일반어와 형식이 같을지라도 의미가 다름. 즉, 다의어 관계에 있을 수 있음.

화용적인 면: 사용자나 사용 영역이 한정됨.

일본에서 '전문어'와 '전문 용어'가 특별히 구별되지 않고 사용되는 것을, '전문 용어'의 언어 층위의 면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전문어는 거의 단어이고, 그 의미에서 전문 용어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佐竹秀雄(1982),「現代の専門用語」192쪽>

일본어의 '어'라는 접미사에는 '언어'라는 의미와 '단어'라는 의미가 있다. (中略) 그러면 '전문어'의 경우는, 어느 쪽에 해당하는가. 국어사전에서는 '전문어'를 '…어', '…용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많다. 이 '어'는 '단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国立国語研究所(1981), 『専門語の諸問題』 5쪽>

'전문어'의 '어'가 주로 단어 층위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용어'와 같은

8) 이러한 점 때문에, 실제 발간된 '학술용어집'을 살펴보면, 음운이나 통사 층위의 전문어의 경우, 특별히 밝혀 적고 있다.

의미가 된다는 것이다. 즉, '전문어'가 '전문 언어'로 이해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어에서는 '전문어'와 '전문 용어'가 동의로 사용되며, 같은 의미에서 '학술어'와 '학술 용어'도 동의로 사용된다[9].

덧붙여, 이 외에 전문 용어의 특징으로 들어진 것을 정리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① 다의어를 피할 것
② 유의어를 피할 것
③ 의미가 문맥에 좌우되지 않을 것
④ 감정적 의미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⑤ 사용 빈도가 낮을 것
⑥ 신조어가 되기 쉬울 것
⑦ 의식적인 규제를 받기 쉬울 것
⑧ 외래어가 들어오기 쉬울 것
⑨ 국제성이 강할 것

<国立国語研究所(1981),「専門語の諸問題」 10쪽>

1.1.3. 전문 용어 정비 사업의 역사

전문 용어의 정비 사업이라 함은, 전문 용어의 조사, 정리, 개선, 통일에 관계된 작업으로, 과학 기술 용어에 있어서는 '표준화'라는 개념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즉, 전문 용어 정비 사업은 권위를 가진 주

9) 앞에서 든 특징을 가진 말을, 앞으로는 '전문 용어'로 통일하여 칭하기로 하며, 같은 의미에서 '학자어', '학술어'도 '학술 용어'로 통일한다.

도적 단체(주로 정부 기관이나 해당 학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언어 정책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분야별 전문 용어에 대해서 의미나 용법을 기술하고 어원까지도 연구하여 이른바 특수어 사전이라는 형태로 정리하는 민간 주도의 사전 편찬 작업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민간 주도의 특수어 사전 편찬 형태의 전문 용어 연구는 그 역사가 아주 길며, 지금도 분야별 전문 용어가 특수어 사전 형태로 정리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본에서의 전문 용어 정비 사업은 그 필요성이 19세기 말 명치(明治) 시대에 인식되기 시작하여[10], 1920년대 대정(大正) 시대에 정부 주도의 정비 사업이 시작된다.

1921년 공업품 규격 통일 조사 위원회 설치가 그것이다. 이후 1922년 일본 최초의 일본 표준 규격(구 JES[11])인 '금속재료항장시험편(抗張試驗片)'이 제정되고, 그해 10월에 조사 위원회에 '용어 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용어의 표준화 사업이 시작된다.

그러나 체계적인 전문 용어 정비 사업은 역시 1947년 2월의 학술 연구회의 산하 '학술 문헌 조사 연구 특별 위원회'의 '학술 용어 조사 연구과회'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46년 가을, 상공성(省) 특허표준국은 JES 제정상, 전문 용어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 문부성에 자문을 구하고, 문부성이 중심이 되고, 특허표준국이 협력하는 전문 용어 통일 사업을 재개하기로 한다. 이때 설치된 것이 위의 과회(科会)이

---

10) 青戸邦(1956)의 66쪽 참조.

11) JES(Japanese Engineering Standard)는 시기에 따라 1945년 이전의 것을 旧JES, 1938년 임시 일본 규격 표준의 조사 때부터 1945년까지의 것을 臨JES, 194년부터 1949년까지를 新JES라 나눠 부르기도 한다.

다.

1949년 7월 위의 과회(科会)는 문부성 학술 장려 심의회 학술 용어 분과 심의회(약칭 분과 심의회)로 개조되고, 이후 1964년에 학술 용어 분과회(약칭 구분과회), 1967년에 학술 심의회령[정령(政令) 제117호]에 의해 구분과회 해산, 학술 심의회 학술 용어 분과회(신분과회)의 신설 등 변화를 맞이하지만 용어 정리 사업의 주요 기관으로 지금까지도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49년 학술 용어 분과 심의회에서는 총회, 심사부회, 조정부회 이외에 22개의 전문부회를 두고, 1954년 수학, 물리학, 동물학, 토목공학, 채광야금학의 다섯 분야를 시작으로 '학술용어집'을 간행하기 시작한다. 당시의 전문부회는 다음과 같았다.

- 자연과학
  - 이학 부문 – 수학, 물리학, 화학, 동물학, 식물학, 지학
  - 공학 부문 – 기계공학, 전기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채광야금학, 선박공학, 영화기술, 공업표준
  - 농학 부문 – 농학[작물, 원예, 잠사, 축산, 식물병리, 토양비료, 농예(農藝)화학, 농업기상, 농업토목, 농업기계, 농업경제, 임학, 수산, 조원(造園), 응용곤충, 응용동물]
  - 의학 부문 – 의학[해부, 병리, 암, 세균, 전염병, 정형, 구강, 위생, 방사선, 약리, 혈액, 피부, 나병, 내과, 외과, 법의, 안과, 비뇨기, 정신, 기생충, 생리, 산부인, 이비(耳鼻), 소아, 생화학]
- 인문과학
  - 경제학 부문 – 경제학(경제원론, 금융론, 공업경제, 농업경제, 국제

경제, 경제정책, 사회정책, 경영학, 상학, 회계학, 교통론, 보험론, 재정학, 통계학, 경제사, 경제법, 경제사상)

법률학/정치학 부문 – 법률학/정치학(국제법, 사법, 공법, 법철학, 법제사, 형법, 정치학)

문학 그 외 – 도서관학, 신학, 불교학, 심리학

이 중에는 아직 '학술용어집'이 발간되지 않은 분야도 있고, 최초의 전문부회에 속하지는 않았으나, 그 후 새로이 추가되어 '학술용어집'의 발간까지 완료된 분야도 있다. 2003년까지 총 32개 분야(도서관학편과 도서관정보학편을 별도로 산정)의 학술용어집이 발간되었으며, 그 중 25개 분야는 국립 정보학 연구소의 '온라인 학술용어집'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학술용어집'의 발간이 완료된 분야는 다음과 같다.

1954년[12]: 수학, 물리학, 동물학, 토목공학, 채광야금학
1955년: 화학, 기계공학, 건축학, 선박공학
1956년: 식물학
1957년: 전기공학
1958년: 도서관학
1965년: 논리학
1972년: 신학
1973년: 항공공학, 계측공학
1974년: 천문학, 지진학, 분광학, 유전학
1975년: 치학, 기상학

12) 학술용어집 간행은 초판 간행 연월 기준.

1978년: 원자력공학
1981년: 지리학, 해양학
1984년: 지학
1986년: 농학, 심리학
1997년: 언어학, 도서관정보학
2000년: 약학
2003년: 의학

그러나 '학술용어집' 발간을 통한 용어의 정비 사업은 심의회의 명칭이나 용어집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학술 용어'의 정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공업 분야와 같은 응용기술적 성격이 강한 분야의 용어집의 경우는 일본 규격 협회(JSA)의 '공업 표준 용어 위원회'가 '공업 표준 조사회(JISC)'의 지도하에 조사와 심의를 맡아 일본 규격 협회에서 간행하고 있다. 1945년 12월에 창립된 일본 규격 협회(JSA)는 상공성(省)(현재 경제산업성) 특허표준국의 감독하에 규격의 작성, 보급 사업을 주로 하는 재단 법인으로, 현재까지도 공업 및 기술 분야의 용어 표준화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 규격 협회에서 간행된 용어집 및 용어 사전은 아래와 같다.

1953년: 공업표준용어집(JIS 용어집의 전신) 철도차량, 선로/정차장, 신호/보안 용어
1954년: 공업표준용어집 자동차 용어, 항공 용어
1955년: 공업표준용어집 위생 난방
1965년: JIS 용어집 '기계/금속편'

1966년: JIS 용어집 '기본/일반편', '화학/섬유편'
1968년: JIS 용어집 '총집편'
1971년: JIS 용어사전 '기계/금속편', '기본/일반편'
1972년: JIS 용어사전 '화학/섬유편'
1974년: JIS 용어사전 '전기편'
1978년: 신편 JIS 용어사전 '기본/일반편', '기계편', '전기편', '운송/포장편', '금속/화학/요업편', '섬유편'
1982년: JIS 공업용어대사전
1985년: JIS 기호/약호대사전
1992년: JIS 용어사전 '공업재료편', '정보기술편'
1993년: JIS 용어사전 '기계가공편', '기계요소편'
2001년: JIS 공업용어대사전(제5판)

이와 같이 일본의 전문 용어 정비 사업은 크게 두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문부과학성 학술 심의회 학술 용어 분과회의 '학술 용어 정비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산업통상성 일본 규격 협회의 '기술 용어 표준화 사업'이다.

초기에는 학술 용어 분과 심의회가 심의한 용어가 일본 규격 협회에서 발간되기도 하고, 상호 간에 용어를 조정하는 작업도 진행되었다. 일례로, 초기의 학술 용어 분과 심의회 전문부회에는 공업 표준, 영화 기술 등 기술적 분야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학술 용어 분과 심의회에서 공업 표준 용어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공업 표준 용어 약 15,000어가 1953년에 공업표준용어집의 철도차량, 선로/정차장, 신호/보안, 자동차, 선박의 각 용어집으로서 일본 규격 협회에서, 영화 기술

에 대해서는 영화기술용어집으로서 일본 영화 기술 협회에서 발행되기도 하였다. 또한, 1959년 3월에는 용접 관계 학술 용어가 JIS 용어와의 조정에 의해 일부 개정되기도 하였다. 특히 일본 정부는, 1954년 차관회의에서 각 성(省), 청(廳)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는 학술용어집의 것을 기준으로 하여 이것에 통일하도록 노력할 것을 합의하여, 교과서와 일본 공업 규격(JIS)의 용어는 '교과서 도서 검정 기준 내규'와 '규격표의 양식(Z8301)'에 기초를 두고, 학술용어집의 것이 우선하여 사용되도록 그 우선순위를 조정하기도 하였다. 즉 어떤 용어가 학술 용어로 정립되어 있으면,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용어 규격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학술 용어의 경우, 해당 용어의 표기, 발음, 대응역어 등의 확정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이 진행되는 반면, 공업 규격의 경우, 용어의 통일은 물론 정의 규정의 정확성, 국제 규격에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용어 규격은 학술 용어의 정비 사업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일본 공업 규격에서는 제품 규격, 방법 규격과 함께 용어 규격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공업 규격으로 사용되는 모든 용어는 그 용어의 의미를 규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발간된 사업의 결과물도 그 형태가 달라지게 되었다.

1.1.4. 전문 용어 정비 사업의 실제

1.1.4.1. 일본 규격 협회(JSA)의 JIS 용어 규격

먼저, 기술 용어의 표준화 사업에서 전문 용어들이 어떻게 정비되고 있는지를 살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종 기술 용어의 표준화 사

업은 일본 규격 협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일본 규격 협회의 표준화 원리 위원회 용어 규격 분과회에서는 1969년 1월부터 조사 및 심의를 시작하여, 1975년 3월 '용어 규격의 정리 방법 안내서'를 작성하여 공표하였다. 이 안내서는 일본 공업 규격으로 채택되지 못한 채 있다가 1961년에 제정된 Z8301 '규격표의 양식'의 1989년 개정판에 '규정'이 아닌 '참고'로 삽입되었다. 그것이 '규격표의 양식(Z8301:1989)'의 '참고 3 일본 공업 규격에서의 용어 규격의 정리 방법'이다. 이후 Z8301은 1996년(Z8301:1996), 2000년(Z8301:2000)의 연이은 개정을 거쳐 현재는 2005년의 최종 개정판 '규격표의 양식 및 작성 방법(Z8301:2005)'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의 개정판에는 'Z8301:1989'의 '참고 3'은 이미 없어졌지만, 이와 관련된 사항이 '부속서D-용어 및 정의의 작성 방법 및 표기 방법'과 '부속서G-문장의 서식, 용자, 용례, 기술 부호 및 숫자'가 '참고'가 아닌 '규정'으로 수록되어 있다.

'일본 공업 규격에서의 용어 규격의 정리 방법(Z8301:1989 참고 3)'은 '용어 규격의 정의/목적', '참고로 사용하는 주된 용어 및 그 정의', '용어 규격 작성의 수순', '용어 규격 작성상의 요구 조건 및 규정 방법', '용어 규격의 구성/양식'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먼저, 현재의 개정판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용어 규격의 정의/목적'에서 '참고'로 '대응 국제 규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채용해서 국제 일치 규격으로서의 용어 규격을 정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국제 규격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전문 용어 제정의 한 방법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Z8301:2005'에서는 '국제 일치 규격'을 사용하는 경우의 특별 보충 사항을 하나의 절(7절 국제 규격을

기초로 하여 규격을 작성하는 경우의 특별 보충 사항)로 구성하여 안내하고 있지만, 국제 일치 규격으로 용어를 채택하도록 하는 내용은 없다.

다음으로 기본적인 용어 및 정의에서, 객체(individual object), 개념(concept), 특징(characteristic), 내포(connotation; intension), 외연(extension), 개념 체계(system of concepts), 분류 체계(classified series), 정의(definition), 의미(meaning), 용어계(terminology; nomenclature) 등을 정의하였다.

이어서, 용어 규격 작성의 수순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① 용어 규격의 대상이 되는 분야의 개념 체계를 명확히 한다.
② 용어 규격에서 용어의 분류 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채록하는 개념(또는 용어)의 특징을 정한다.
③ 채록하는 개념의 통일을 기한다.
④ 개념의 정의를 행한다.
⑤ 정의에 대응하는 용어를 정한다.
⑥ 용어 규격이 양식에 의거해서, 규격의 전체를 정리한다.

또, 용어 규격의 말미에는 용어의 일본어 오십음순 색인 및 대응 영어의 알파벳순 색인을 붙이도록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용어 규격의 작성 순서는 어떤 객체에 대하여 개념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정의와 용어를 정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용어 규격은 용어 자체 이외에도 개념 및 정의를 규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됨을 알 수 있다.

2005년 개정판 '규격표의 양식 및 작성 방법(Z8301:2005)'의 '3.8

용어 규격'의 정의가 '용어에 대하여 개념 체계 안에 위치를 정하고, 언어로 그 개념을 표현해서 다른 개념과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정의와 함께 규정하는 규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위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용어 규격에 대한 세부 사항이 정리되어 있는 것은 'Z8301:2005'의 '부속서D(규정) 용어 및 정의의 작성 방법 및 표기 방법'인데, 여기에서는 먼저 일반 원칙(D.1)에 대하여 서술하고, 이어서 용어 규격의 개요, 구성/양식, 배열(D.2)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용어 규격은 '용어와 정의 이외에 번호, 대응 영어, 비채택 용어를 포함하고 때에 따라서는 주기, 도해, 예 등을 가지'며, '용어를 개념의 계층에 의해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용어 규격의 형식을 정의한 것은 'D.3 세부 형식'인데, 이 절의 개요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D.3.1 개요

세별 형식의 용어 규정의 항목은, 번호, 용어, 기호, 대응 영어 및 정의로 하고, 이 순서로 기재한다. 번호 및 용어 다음에서는 각각 줄을 바꾼다. 기호를 포함하는 경우는 쉼표로 구분하여 용어 본체에 이어 쓴다. 대용어가 있으면 괄호로 싸고 용어의 행의 마지막에 기재한다. 정의는 줄을 바꾸어 기재한다. 용어 규정의 항목에 대해서 예 및 주기를 기재해도 좋다.

이에 따라 규정된 용어규격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3.2

和集合, 合併集合, U (union, sum)
与えられた複数の集合の一つ以上に属する要素全体からなる集合。
例 {1, 2} U {2, 3} = {1, 2, 3}

이 외에도 사용되는 용어(D.3.2), 기호, 대응 영어 및 정의의 표시 방법(D.3.3), 용어 및 정의의 문법 형식(D.3.4), 사용 영역에 대한 주석(D.3.5) 등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이어지는 '부속서G'에는 용어 규격의 표기에 관한 사항이 정리되어 있다. '부속서G'는 먼저 '문장의 서식(G.1)'에 대한 규정을 시작으로, '용자(用字)(G.2)', 정의를 내릴 때 사용하는 전문 용어에 대한 일반 규정과 한정/접속에 사용하는 용어가 정의된 '용어(用語)(G.3)', 문장 부호의 종류와 사용법을 기술한 '기술 부호(記述符號)(G.4)', 숫자 표기에 관한 '숫자(G.5)', 표기 문제를 규정한 '용어 및 외래어의 표기(G.6)'로 구성된다.

이 중 '용자(G.2)'와 '용어 및 외래어의 표기(G.6)'는 모두 한자 사용, 가나 표기, 오쿠리가나[13], 외래어 표기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이다. 이것은 뒤에서 살필 학술 용어 정비 사업과 마찬가지로 내각 고시에 의한 표기법 규정에 준하는 것이기에 장을 달리하여 1.1.4.2.에서 학술 용어의 표기와 함께 다루기도 한다.

1.1.4.2. 학술 용어 및 용어 규격과 관련된 표기법 규정

일본의 학술 용어 정비 사업이나 JIS의 용어 규격 채택에 있어, 가장 큰

13) 한자와 가나를 섞어서 쓸 때, 어형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그 뒤에 다는 가나.

문제가 되었던 것은 역시 표기의 문제였다. 일본어의 경우,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모두 표기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학술 용어 정비 사업 및 용어 규격 채택에 앞서 이들 각각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들에 대한 제정과 실시는 일반 언어생활에 대한 것으로, 전문 용어 정비 사업에 앞서 '내각 고시' 및 '내각 훈령'에 의해 정해져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표기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한자: '상용한자표'(1946년 제정, 1948년, 1949년, 1951년, 1973년, 1976년 개정, 현재는 1981년 내각 고시 제1호에 의한다.)
가나 표기법: '현대가나표기법'(現代仮名遣い)(1946년 제정, 현재는 1986년 내각 고시 제2호에 의한다.)
오쿠리가나: '오쿠리가나붙임법'(送り仮名の付け方)[1959년 제정, 현재는 1973년 내각 고시 제2호(1981년 내각 고시 제3호 1973년 내각 고시를 일부 개정)에 의한다.]
외래어의 표기: '외래어의 표기'(1991년 제정, 현재는 1991년 내각 고시 제2호에 의한다.)

각각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상용한자표'는 본표와 부표(付表)로 구성되는데, 본표에는 자종 1945자를 들고, 자체, 음훈, 예 등을 함께 수록했다. 부표에는 차자나 숙어를 훈으로 읽는 등의 예외적인 읽는 법에 대하여 들고 있다.

'가나 표기법'은 본문과 부표로 구성되는데, 본문에서는 원칙에 기초한 결정 사항을 '제1'에 나타내고, 표기의 관습에 의한 특별한 예를 '제2'에 나타냈다. '제1'에는 직음(直音), 요음(拗音), 발음(撥音), 촉음(促

音), 장음(長音)의 표기법이 히라가나로 나타내져 있는데, 이것이 흔히 말하는 일본어 '오십음도'이다. 오쿠리가나의 경우, 먼저 단일어인가 복합어인가에 따라, 다시 단일어의 경우, 활용을 하는 단어인가 아닌가에 따라 그 각각의 오쿠리가나 사용법이 정해지는데, 이에 대한 규정이 '오쿠리가나붙임법'의 본문이다.

'외래어의 표기'는 본문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문에는 외래어의 표기에 사용하는 가나와 부호의 표가 있고, 사용상의 유의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부록은 오십음순의 용례집으로 구성된다. 외래어 표기 규정의 한 특징은, 사용하는 가나가 두 가지로 나뉘어 제시된 점이다. 본문의 표는 제1표와 제2표로 나뉘는데, 제1표는 외래어나 외국의 지명, 인명을 적을 때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나이고, 제2표는 원음이나 원철자에 가능한 한 가깝게 표시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가나이다. 외래어의 표기는 기본적으로 가타카나를 사용하며, 장음 표시에 있어서도 히라가나와 달리 '-'를 사용한다.

이들 규정은 학술 용어 및 용어 규격 표기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지만, '상용한자표', '가나 표기법', '외래어의 표기'의 머리말에는 이들 규정이 "과학, 기술, 예술 그 외 다른 각종 전문 분야나 개개인의 표기에까지 미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전문 용어 표기에 있어서 예외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술 용어의 심의 기준에서는 "한자, 가나 표기법, 오쿠리가나, 외래어의 표기 그 외의 표기에 관해서는 내각 고시 및 알맞은 규정에 따른다."라고 하여, 가능한 한 내각 고시의 표기법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술 용어의 기본적인 표기 방법은 정부의 내각 고시와 일치한다. 다만, 예외 사항이 되는 것은 각 분야의 '학술용어집'

의 일러두기 등에서 밝혀 적고 있다.

위와 같이 일본어의 경우, 한자, 가나, 외래어 등의 표기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여 표기 자체에 대한 통일을 기하고 있지만, 전문 용어를 도입할 때의 문제는 이들 중 어떤 표기 수단으로 새로운 전문 용어를 표시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즉 한자라는 표의적 문자와 가나라는 표음적 문자를 함께 사용하는 일본에서는 한자를 사용하는가, 가나(특히 가타카나)를 사용하는가 하는 문제가 음을 버리고 의미를 우선적으로 전달하는가, 의미를 버리고 음을 우선적으로 전달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된다. 여기서는 현재 가타카나로 표기된 전문 용어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보고[14]만을 간략히 언급해 둔다.

또한 표기 양식의 차이에 의해 전문 용어인가, 일반어인가가 구분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전문 용어 표기의 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가타카나는 전문 용어, 속어, 은어, 동식물명 등, 이들 말이 한정된 분야에 속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효과가 있어서 일반어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를 가타카나로 적으면, 일반어와 확실하게 구분된다. 동식물의 경우도 전문 용어로서 사용되는 경우에 가타카나가 사용된다. 예를 들면 'ひと(사람)'도 'とてもいい人(아주 좋은 사람)'과 같은 경우는 한자이지만, '哺乳類としてのヒト(포유류로서의 사람)'과 같은 경우에는 가타카나로 표기된다.

이처럼, 일본어의 전문 용어 표기는 표음 문자와 표의 문자를 함께 사용하는 일본어의 표기 체계와 맞물려 한층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

14) 현대 용어의 기초 지식 198의 전문 용어를 조사한 결과, 가나로 시작하는 전문 용어가 약 57%, 한자로 시작하는 전문 용어가 약 30%, 히라가나로 시작하는 전문 용어가 약 5%,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전문 용어가 약 8%라는 보고가 있었다[日本語百科大事典(1988) 참고].

다.

1.1.4.3. 문부과학성의 학술 용어 정비 사업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문부과학성에서는 1947년 학술 용어 정비 사업을 시작하여, 1954년 다섯 분야의 학술용어집의 간행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2개 분야의 학술용어집 간행을 마쳤다.

위의 절에서 살핀 표기 문제와 별도로 학술 용어 정비 사업에서 크게 문제가 된 것은, 학술 용어 선정에 있어서 견해가 충돌하였을 때, 이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문제였다. 즉 심의 기준의 마련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술 용어 선정의 근거가 되는 준칙을 논리적, 체계적으로 확립할 목적으로 1959년 12월 학술 용어 분과 심의회의 심사부회 내에 국어학의 전문가, 일본 신문 협회 및 공업 기술원의 대표를 참여시켜 '학술 용어 심사 기준 작성 소위원회'가 발족하였다. 이 소위원회에서는 '학술 용어 심사 기준'을 작성하게 되었다.

이 심사 기준은 이후 학술 심의회 학술 용어 분과회(신분과회)에 인계되었고, 1973년, 1982년, 1986년, 1992년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심사 기준은 학술 용어가 갖추어야 할 모습이나 개선의 방법 등이 원칙과 세칙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학술 용어의 문제점과 그 개선의 방향을 살펴보기에 좋은 자료가 된다.

이 장에서는 먼저 학술 용어 분과회의 '학술 용어 심사 기준'을 자세히 살피고, 이어서 학술 용어에만 관련된 규정 등에 대해서도 알아본 뒤, 학술용어집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학술용어집 언어학편(1997)'을 참고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1.4.3.1. 학술 용어 분과회의 '학술 용어 심사 기준'

'학술 용어 심사 기준'은 크게 '심사 기준 작성의 목적', '학술 용어의 정의', '심사 기준의 원칙', '심사 기준의 세칙'의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심사 기준 작성의 목적'에서는 이 기준이 '학술 심의회 학술 용어 분과회에서, 학술 용어의 심의안을 심사할 때, 그 근거를 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심의'와 '심의안'에 대해서도 정의하여 놓고 있는데, '심의'란 '선정 및 조정을 거친 학술 용어의 원안(심의안)을 종합적인 입장에서 점검하여,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계승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수정하든가 수정을 권고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심의안'에는 '새롭게 제정하려고 하는 용어안뿐만 아니라, 이미 제정된 용어의 개정안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학술 용어의 정의'에서는 '학술상의 개념을 나타내는 말'을 학술 용어로 한다고 짧게 정의가 내려져 있다.

이어지는 '심사 기준의 원칙'과 '심사 기준의 세칙'이 이 규정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원칙'으로 크게 다섯 가지 사항을 들고, '세칙'에서는 이와 별도로 아홉 가지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먼저 '심사 기준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이다.

(1) 학술상의 개념이 적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2) 용어는 단어로서 적정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3) 학술 용어는 평이하고 간명해야 한다.
(4) 용어는 각 전문 분야 사이에서 통일되어야 한다.

(5) 한자, 가나 표기법, 오쿠리가나, 외래어의 표기, 그 외 표기에 관해서는 내각 고시 및 지켜야 할 기준에 따라야 한다.

(1)과 (2)는 개념과 용어 간의 적정한 관계, 용어 그 자체의 적정한 구성을 규정한 것으로 전문 용어 심사의 대전제가 된다. 일본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3) 규정이었다. 전문 용어는 명치 시대 신문물의 도입과 더불어 대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에는 어려운 한자가 섞인 번역어가 전문 용어의 주류를 이루게 되어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용어가 많아졌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일본의 사정을 염두에 둔 것이 (3)의 규정이다. 그러나 이 간단한 규정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사실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세칙이 더해져 있는데, 세칙 ①에서 ④까지가 그것이다.

① 용어는 들었을 때,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② 용어는 발음하기 쉽고, 또한 들었을 때 느낌이 좋아야 한다.
③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채용한다. 단, 극단적인 약어, 약칭은 채용하지 않는다.
④ 일반적 상식으로 알기 쉬운 용어이어야 한다.

①의 규정은 한자어계 동음이의어를 회피하기 위한 규정이다. 한자는 보고 이해하기는 쉬워도, 듣고 구별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동음이의 관계를 이루는 용어는 되도록 피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예를 들어, 일본어로 내한성(耐寒性), 내건성(耐乾性)은 둘 다 '다이칸세', 파고(波

高), 파향(波向)은 둘 다 '하코'로 읽게 되어 동음이의 관계를 이룬다. 이런 경우 한쪽의 용어를 변경하게 된다.

다이칸세(耐乾性) → 다이칸소세(耐乾燥性)
하코(波向) → 하노무키(波の向き; 파의 방향)

②는 발음하기 어려운 것이나 어감이 나쁜 것을 피하려는 취지이다. 예를 들어, 후카갸쿠(不可逆)같이 발음하기 어려운 용어는 모도세나이(もどせない; 돌아가지 못함)처럼 발음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게 된다.

③은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는 두 가지 이상의 용어가 있을 때, 보다 널리 사용되는 것을 채용하는 규정으로, 속어, 방언, 직장 용어, 외래어를 불문하고,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채용하게 된다.

용수철: 하쓰죠(発条) → 바네(ばね)
나사: 라시(螺子) → 네지(ねじ), 팟킨(パッキン)

다만, 약어는 채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데레비(テレビ), 곤쿠리(コンクリ)는 채택되지 않고, 대신 데레비죤(テレビジョン; 텔레비전), 곤쿠리토(コンクリート; 콘크리트)가 채택된다.

④의 규정은 용어의 개선에 대한 규정으로 되도록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고친다는 취지이다. 예를 들어, '파종'은 '씨뿌리기'로, '유약'은 '잿물'로 바꾼 것이 그 예이다.

하슈(播種; 파종) → 다네마키(種まき; 씨뿌리기)
유야쿠(釉薬; 유약) → 우와구수리(うわぐすり; 잿물)

이상의 원칙 (3)의 규정과 세칙 ①~④의 규정은 용어 선택 및 개선에 있어서의 지침으로, 동일한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가 두 가지 이상 존재하여 그중 하나를 선택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용어 선택의 기본적 태도는 가능한 한 일반어와 가까운 용어를 채택하여 수용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한다는 것으로, 명치 시대 이후 용어의 조어에 난해 한자가 많이 사용되어, 통용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즉 읽어서 이해하기 쉬운 표의 중심 태도에서 들어서 이해하기 쉬운 표음 중심 태도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용어의 개선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해야 할 사항은, 위와 같은 원칙에 의해 채택된 용어가 분야별로 다를 경우이다. 이에 대한 규정이 원칙 (4)와 세칙 ⑨이다. 세칙 ⑨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⑨ 용어가 각 전문 분야에 의해 다른 경우에는, 그 용어가 본래 소속한다고 생각되는 전문 분야를 우선으로 하여 조정하는 것에 노력한다.

이 규정에 의해, 물리학에서의 '感応'과 전기공학에서의 '誘導'는 '誘導'로, 물리학에서의 '熱伝導率', 전기공학에서의 '熱伝導度', 기계공학, 토목공학, 건축학에서의 '熱伝導係数'는 '熱伝導率'로 통일되었다.

이 이외에 원칙과 세칙으로 규정된 것은 4.2.에서도 언급한 표기 문제

이다. 표기 문제에 대한 규정은 원칙 (5)와 세칙 ⑤~⑧이다.

⑤ 종래의 용어 중 한자 또는 음훈이 상용한자표에 없을 때는, 일반 사회생활에서의 한자 사용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 한자를 표 내의 동음 또는 동훈(同訓)의 한자로 바꾸거나, 다른 용어로 대체하거나, 또는 가나로 표기한다. 그러나 각 전문 분야의 사정에 따라, 상용한자표에 없는 한자를 이용해서 표기해도 무방하다.
⑥ 종래의 용어 중 한자가 상용한자표에 있어도, 지장이 없는 한, 쉬운 한자로 바꿔 쓴다.
⑦ 한자로 쓰는 것보다도 가나로 쓰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울 때는 가나로 쓴다.
⑧ 외국어에서 적당한 역어가 없는 것은 가나로 표기한다.

위의 규정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일본의 전문 용어 표기의 기본적 문자는 한자이다. 그중에서도 '상용한자표'에 규정된 1,945자가 기본이 된다. 용어를 표기할 때, 먼저 상용한자에 해당되는가를 살피고, 해당되지 않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 용어를 교체하게 된다. 상용한자에 해당되더라도 보다 간단한 한자로 교체하여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가나로 표기하는 것은 상용한자표에 없는 용어, 한자를 사용했을 때 오히려 이해에 방해가 되는 용어, 외국어에 대한 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용어 등인데, 한자에 비해 그 사용 빈도가 낮다.

1.1.4.3.2. 학술 용어의 로마자 표기와 용어 선정에 대한 개별 지침

위에서 살핀 학술 용어의 채택 및 표기에 관한 문제 이외에, 학술용어집 편찬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어의 로마자 표기에 대한 규정이었다. 학술용어집의 경우 용어의 독법을 로마자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로마자 표기의 준칙이 되는 것은 아래의 규정이다.

로마자의 표기: '로마자의 철자법'(ローマ字のつづり方)(1954년 제정, 현재는 1954년 내각 고시 제1호에 의한다) 및 '로마자에 의한 학술 용어의 표기 방식'(ローマ字による学術用語の書き表し方)(1974년 문부성 대학 학술국 정보도서관과의 규정에 의한다)

이 중 문부과학성이 편집하는 '학술용어집'의 용어에 대한 로마자 표기 규정인 '로마자에 의한 학술 용어의 표기 방식'을 살펴보면, 표기에 대한 총 13 항목이 규정되어 있다.

① 용어의 로마자 표기는 '로마자의 표기법(1954년 내각 고시 제1호)'의 제1표에 기재된 표기법에 의한다.
② 발음(撥音)「ン」은 모두 n으로 쓴다.
③ 발음(撥音)을 나타내는 n과 다음에 오는 모음자 또는 y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n의 뒤에 자르는 기호「' (따옴표)」를 넣는다.
④ 촉음(促音)은 최초 자음자를 겹쳐서 나타낸다.
⑤ 장음(長音)은 모음의 위에「^」를 붙여서 나타낸다. 단, i의 장음은 ii로 표기한다.

⑥ 고유 명사는, 어두를 대문자로 쓴다.

⑦ 특수음의 표기 방식은 다음과 같다[15].

⑧ 외국의 지명, 인명 등의 고유 명사의 로마자 표기는 용어의 가나 표기를 기준으로 해서 표기한다.

⑨ 한자어, 고유어만으로 구성된 말은 다음과 같이 쓴다.

⑨-1 단어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⑨-2 복합어는 각각의 성분이 3음절 이상일 때는, '-'를 넣어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⑨-3 복합어에서 2음절 이하의 성분은 그 전후의 성분과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⑨-4 조사는 다른 단어와 분리해서 쓴다.

⑩ 외국어(원음의 발음에 따른 말)는 대문자, 소문자의 사용법, 하이픈의 사용법, 띄어쓰기 등을 원어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⑪ 한자어, 고유어와 외국어, 외래어가 복합한 말은, 한자어, 고유어의 부분에 대해서는 9의 원칙에 의해, 외국어, 외래어의 부분에 대해서는 10의 원칙에 의해서 쓰고, 그 사이에는 '-'를 넣어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⑫ A, B, C…… 등의 로마자는 그 문자를 이탤릭체로 나타낸다.

⑬ α, β, γ…… 등의 그리스 문자는 그대로 쓴다.

이 원칙에 따라 학술용어집의 모든 용어는 그 독법이 로마자로 표기

---

15) 특수음은 일본어 음소 체계 안에 존재하지 않는 음으로, di, dyu, fa, fi, fe, fyu, kwi, sye, i, u, tye, twe, wi, wo, zye 등이다. 이 규정에는 이들의 예가 부기되어 있다.

되어 있다. 이 이외에 '학술용어집' 편찬 사업을 위해 마련된 지침에는 특정 용어에 대한 지침도 있다. 현재 특정 용어에 대한 지침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도(度)', '율(率)', '계수(係數)', '비(比)'에 대한 규정이다. 이들 학술 용어는 자주 사용되는 것인데, 각 분야별로 사용법에 차이가 있어, 학술 용어 통일에서 문제가 되었다. 이에 1973년 학술 심의회 학술 용어 분과회 조정 위원회에서 정한 것이 '도(度)', '율(率)', '계수(係數)', '비(比)'에 대한 용어 선정 시의 일반 방침'이다. 이 방침은 '도(度)', '율(率)', '계수(係數)', '비(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 전문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① 율(率): 두 개의 양의 비로 나타내어지는 물질 정수(物質定數)는 '율'로 나타낸다.

예) 열전도율

단, 응용역학의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계수'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한다.

주) '태엽 탄성계수', '마찰계수', '점성율(粘性率)의 온도계수' 등에는 계수를 사용한다.

또한, '밀도(密度)', '순도(純度)'는 예외로 한다.

② 도(度):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에는 '도'를 사용한다.

예) 온도

③ 계수(係數): 오로지 수식의 계수가 되어 나타나는 것에는, '계수'를 사용한다.

예) 호흡계수

④ 비(比): 특정의 물질의 양에 대한 그 물질의 양의 비에는 '비'를 붙

인다.

예) 비중

덧붙여, 여기에 든 일반 방침의 역(逆)이, 반드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일반적인 방침은 위와 같이 정해져 있지만, 방침의 예외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분야에 따라서, 용어에 따라서 해당 용어의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1.1.4.3.3. 학술용어집의 구성

위에 살핀 바와 같이, 문부과학성의 학술 용어 정비 사업의 결과물은 '학술용어집'의 형태로 출간되고 있다. 일본 공업 규격의 용어 규격이 특정 주제 분야에 대해서 용어와 정의를 포함하는 용어 사전의 형태인 'JIS용어사전'로 출간되는 데 반하여, 문부과학성의 '학술용어집'은 용어에 대하여 정의는 내리지 않고, 동일 개념의 용어를 외국어와 대응시킨 용어 리스트의 형태로 출간되고 있다.

'학술용어집'의 기본 구성은 크게 간행사와 일러두기를 제외하고, 제1부(和英の部; 일본어-영어의 부), 제2부(英和の部; 영어-일본어의 부), 자료로 구성된다. 분야에 따라서 제2부의 뒤에 전문 분야와 관련된 단체명 등을 정리하여 기입하는 경우도 있다.

제1부는 보통 3열을 사용하여, 제1열에 로마자 표기, 제2열에 용어, 제3열에 용어에 대응하는 외국어를 배열한다. 분야에 따라서는 제4열을 두고 여기에 세부 분야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제2부 또한 보통 3열로, 제1열이 대응 외국어, 제2열이 용어, 제3열이 로마자 표기가 된다. 제1부, 제2부의 용어는 모두 제1열을 기준으로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자료에는 먼저, 학술용어집 간행의 관계자 명부 등이 기재되는데, 학술 용어 분과회의 운영 위원회, 전문 위원회의 순이다. 이어서 학술용어집의 용어 조사 및 정리 프로젝트를 담당한 연구자의 명부가 기록된다. 그리고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해당 분야의 학술 용어 제정의 경위가 기록되고, 앞서 살펴본 바 있는 '학술 용어 심의 기준' 및 여러 규정 조항 등이 실린다. 또한 자료에는 '학술 용어의 제정, 보급'에 대한 근거가 되는 1967년의 '학술 용어의 제정, 보급에 대하여(문부대신 자문)[16]'라는 학술 심의회의 문부대신에 대한 자문이 포함된다.

해당 분야의 학술용어집 작성의 주의 사항은 일러두기 부분에 기록되는데, 용어 배열상의 주의점, 상용한자 이외의 한자를 사용할 경우 그 한자의 목록, 기호의 사용 방법 등이 실린다. '학술용어집 언어학편(1997)'을 기준으로 '일러두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다.

먼저 배열상의 문제에서, 두 단어 이상으로 된 외국어의 배열, 숫자를 포함하는 용어의 배열, 알파벳 이외에 기호(예: è, é, ê)가 붙은 용어의 배열 등에 대하여 적고 있다.

한자 사용에 있어서, 언어학편의 경우, 용어에 그대로 사용되는 상용외 한자가 17자가 있어, 그 목록을 들어 주고 있다. 또 용어 자체는 가나로 쓰지만, 가나로만 쓰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 〖 〗 안에 한자

16) 이 문서는 아직 학술 용어가 제정되지 않은 분야의 학술 용어 정비와 보급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을 문부대신에게 요청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를 표기해 주는데, 거기에 쓰인 한자 중 상용 외 한자 12자의 목록도 함께 보이고 있다.

그 외에 용어집의 기호 사용에 대해서도 일러주고 있는데, 기호와 예들을 들어 보기로 한다. 기본적으로 제1부와 제2부는 다음과 같이 항목이 구성된다.

제1부의 예

gengogaku 言語学 linguistics
tôgohô 統語法 syntax
tôgoron 統語論 syntax
……

제2부의 예

vocabulary 語彙 goi
n-ary relation n項関係 *n*-kô-kankei
amibient 環境のit kankyô no *it*
……

제2부의 배열로 괄호 사용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 〕: 생략해도 무방한 것

예) question 疑問〔文〕 gimon〔bun〕

- (( )): 대치 가능한 것

예) complex NP((noun phrase)) 複合名詞句 hukugô-meisiku

- ( ): 사용해도 무방한 것

예) subject-verb-object language(SVO-language) 主語ー動詞ー目的語型言語 syugo-dôsi-mokutekigo-gata-gengo(*SVO*-gata-gengo)

- 〖 〗: 가나 표기만으로 이해하기 힘들어서 덧붙여 쓴 상용한자표에 없는 한자

예) babbling なん〖喃〗語 nanko

- 【 】: 설명 내지는 주기(注記) 또는 영어 이외의 외국어

예) move α αを移動せよ【動詞】 α o idô seyo
불어 【Fr.】, 독어 【Ger.】, 라틴어 【L.】……

- →: 참조

예) A-bar chain → non-argument chain

- 形: 형용사적 용법

예) paradigmatic 系列的 keiretuteki

- (1), (2), (3)……: 동일 표제어에 대한 다른 의미의 용어

하나의 표제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용어가 있을 경우, 의미가 같은 것은 이어서 적지만, 의미나 용법이 다른 것은 항목을 구분하여 적고 있다.

예) category 範疇 hantyû
カテゴリー ketegorii
ending (1) 語尾 gobi
(2) 声とめ koetome
signification (1) 記号作用 kigô-sayô
(2) 意味 imi
(3) 表示物 hyôzibutu

<부록>

문부과학성의 학술용어집 서지 목록(서명, 지은이, 발행처, 발행 연도순)

1. 学術用語集. 土木工学編 / 文部省学術奨励審議会学術用語分科審議会. 土木学会, 1954.
2. 学術用語集. 物理学編 / 文部省学術奨励審議会学術用語分科審議会. 大日本図書, 1954.
3. 学術用語集. 数学編 / 文部省学術奨励審議会学術用語分科審議会. 大日本図書, 1954.
4. 学術用語集. 動物学編 / 文部省学術奨励審議会学術用語分科審議会. 大日本図書, 1954.
5. 学術用語集. 採鉱ヤ金学編 / 文部省学術奨励審議会学術用語分科審議会. 日本鉱業会, 1954.
6. 学術用語集. 化学編 / 文部省学術奨励審議会学術用語分科審議会. 南江堂, 1955.
7. 学術用語集. 機械工学編 / 文部省学術奨励審議会学術用語分科審議会. 日本機械学会, 1955.
8. 学術用語集. 建築学編 / 文部省学術奨励審議会学術用語分科審議会. 日本建築学会, 1955.
9. 学術用語集. 船舶工学編 / 文部省学術奨励審議会学術用語分科審議会. 造船協会, 1955.
10. 学術用語集. 植物学編 / 文部省学術奨励審議会学術用語分科審議

会. 大日本図書, 1956.
11. 学術用語集. 電気工学編 / 文部省学術奨励審議会学術用語分科審議会. 電気学会, 1957.
12. 学術用語集. 図書館学編 / 文部省学術奨励審議会学術用語分科審議会. 大日本図書, 1958.
13. 学術用語集. 論理学編 / 文部省学術奨励審議会学術用語分科審議会. 大日本図書, 1965.
14. 学術用語集. キリスト教学編 / 文部省. 日本学術振興会, 1972.
15. 学術用語集. 計則工学編 / 文部省. 計測自動制御学会, 1973.
16. 学術用語集. 航空工学編 / 文部省. 日本航空宇宙学会書, 1973.
17. 学術用語集. 地震学編 / 文部省. 日本学術振興会, 1974.
18. 学術用語集. 分光学編 / 文部省. 日本学術振興会, 1974.
19. 学術用語集. 天文学編 / 文部省. 日本学術振興会, 1974.
20. 学術用語集. 遺伝学編 / 文部省. 日本学術振興会, 1974.
21. 学術用語集. 気象学編 / 文部省. 日本気象学会, 1975.
22. 学術用語集. 歯学編 / 文部省. 日本歯科医師会, 1975.
23. 学術用語集 原子力工学編 / 文部省. 日本原子力学会, 1978. 1.
24. 学術用語集. 地理学編 / 文部省. 日本学術振興会, 1981. 3.
25. 学術用語集. 海洋学編 / 文部省. 日本学術振興会, 1981. 3.
26. 学術用語集. 地学編 / 文部省. 日本学術振興会, 1984. 2.
27. 学術用語集 農学編 / 文部省,日本造園学会. 日本学術振興会, 1986. 3.
28. 学術用語集 心理学編 / 文部省, 日本心理学会. 日本学術振興会, 1986. 3.

29 学術用語集　図書館情報学編 / 文部省, 日本図書館学会. 丸善, 1997. 3.
30. 学術用語集 言語学編 / 文部省, 日本言語学会, 日本英語学会. 日本学術振興会, 1997. 12.
31. 学術用語集 薬学編 / 文部省, 日本薬学会. 丸善, 2000. 11.
32. 学術用語集 医学編 / 文部科学省, 日本医学会. 日本学術振興会, 2003. 11.

1.2. 중국에서의 전문 용어 정비 사업

중국어에서는 '전문 용어'와 관련하여 '번역명(译名)', '학술 명사(学术名词)', '전문 분야 명사(专业名词)', '전문 직업 술어(專職术语)', '술어(术语)'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해 왔다. 이 중에 '학술 명사'와 '술어'가 가장 많이 쓰이다가 최근에 이르러서는 '술어(术语)'로 표준화하여 사용되고 있다. '술어'는 1985년에 중국의 전문 용어 표준화 기구에 의해 전문 용어 표준으로 수록된 항목으로써, '각 학과에서 전문 개념을 표현하는 단어 또는 단어 결합[17]'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중국에서의 전문 용어 정비 사업은 '술어 표준화(术语標準化)'라는 이름으로 진행된다. 1983년에 공포한 중국의 국가 표준 'GB 3935.1-83 표준화 기본 술어 제1부분'에서 "표준화는 경제, 기술, 과학 및 관리 등 사회 실천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사물이나 개념에 대해 제정, 공포 및 표준의 실시 등을 통해 통일을 이루며, 이로써 최적의 질서와 사회 효율을 얻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1996년에는 다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최적의 질서를 얻기 위해 현실적이거나 잠재적인 문제에 대해 공통되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하는 활동'이라고 표준화의 실행 범위와 활동을 보다 넓게 수정했다[18].

---

17) 중국 표준 연구 센터의 전문 용어 표준화 연구실에서 구축하고 관리하는 중국 전문 용어 정보넷(中國術語信息網, http://www.cnterm.org)이 제공하는 전문 용어 DB 참조.

18) 위와 같음.

전문 용어 표준화는 주로 두 가지 측면의 작업을 아우르는데, 새로운 전문 분야에 대해 전문 용어를 제정하는 것과 기존의 전문 분야에서 이미 제정된 전문 용어에 대해 조정 작업을 하는 것이다[19]. 전문 용어 표준화는 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다[20].

첫째, 전문 용어 표준화는 기술 표준화에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전문 분야 내에서의 개별 학자들 간의 전문 용어 사용의 불일치, 전문 분야 간 전문 용어 사용의 혼란을 막기 위해 필요한 원칙이다.

둘째, 전문 용어 표준화는 언어의 간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전문 용어 표준화는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융통성은 과학 기술의 새로운 발전 변화를 전문 용어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넷째, 전문 용어 표준화는 집단 작업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외에 일반인 또한 전문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전문 용어 표준화는 소수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진행될 것이 아니라 집단 작업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표준화 전문 용어의 제정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많을수록 그 표준을 수용하려는 인원수 또한 많을 것이다.

1.2.1.에서는 중국의 전문 용어 정비 사업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고, 1.2.2.에서는 중국의 전문 용어 표준화 기구들에 조직 구성, 기능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1.2.3.에서는 중국어 전문 용어 표준화의 원리

---

19) 冯志伟(1997), <<现代术语学引论>>, 语文出版社, 49쪽.

20) 冯志伟(1997), <<现代术语学引论>>, 语文出版社, 51쪽.

및 세부 지침에 대해 기술하며, 1.2.4.에서는 중국어 전문 용어 정비의 실제에 대해 살펴본다.

1.2.1. 전문 용어 정비 사업의 역사

1.2.1.1. 새 중국 건립 이전(~1949년)

중국에서의 전문 용어 정비에 대한 관심은 서양 사회와의 접촉과 서양 문물의 수용 등에서 비롯된 전문 용어의 도입 과정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초기의 전문 용어의 정비는 번역학과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었다. 중국의 유명한 번역학자 엄복(嚴復, 1853~1921)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까지에 걸쳐 많은 외국어 문헌을 번역했다. 그는 외국어 전문 용어의 번역에 있어서 뜻글자인 중국어의 특성을 살려 의역(意譯)하는 한편, 음역(音譯)을 병행했는데, 이는 중국어 전문 용어 제정의 최초의 모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호이로(胡以魯)는 <<번역명을 논함(論譯名)>>이라는 글에서 명칭의 번역에 있어서 의역을 중심으로 하되, 음역도 가히 나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청나라 정부는 1909년에 '과학 명사 편정관(科學名詞編定館)'을 설립해 각 전문 분야의 중외 명사 대조표 및 전문 분야별 사전을 만들어 '번역명'의 통일 작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것이 바로 중국 최초의 과학 기술 전문 용어 의결 통일 기구이다.

1919년 신해혁명을 전후하여 과학 기술 지식의 전파와 더불어 전문 용어의 심의·결정 사업은 보다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쟝쑤 교육회의 물리화학 교수 연구회, 중화 의학회 등 지역 또는 전국

적인 학술 단체에서 선후하여 물리학, 화학, 의학 분야의 '명사 심의회'를 개최했고, 화학, 물리학, 수학, 동물학, 식물학, 의학 분야의 전문 용어가 의결되었다. 1918년 중국 과학사(中国科学社)는 과학 명사 심의 결정 초안을 마련했고, 1919년에는 과학 명사 심의 위원회를 설립했다. 1923년 <<광물 암석 및 지질 명사 집요>>의 출판을 시작으로 1931년까지 분야별 전문 용어집 초안 14부를 심사·결정했다.

한편, 청정부의 대학원(교육부에 해당함)은 1928년에 '번역 명칭 통일 위원회'를 설립하고 1932년에는 '국립편역관'을 세워 전국 과학 기술 전문 용어 심사·결정 사업을 관리하도록 했다. 국립편역관은 당시 대학원이 주관하는 천문학, 물리학, 수학 등 전문 분야별 전문 용어 토론회를 개최했고, 1933년부터 1949년까지 화학, 물리, 천문학, 수학, 광물학, 기상학, 생물학, 암석학, 인문지리학, 전기학, 기계학 등 총 56개의 분야에 대해 전문 분야별 명사 초안을 작성했다.

1.2.1.2. 새 중국 건립 이후(1949~현재)

1949년 중국에 공산당이 집권하는 새 정권이 들어서고, 그 이듬해인 1950년부터 국립편역관의 전문 용어 정비 사업은 새 정부의 과학 기술 기관인 중국 과학원에 이관되었다. 중국 과학원의 주관으로 같은 해에 '학술 명사 통일 사업 위원회(学术名词统一工作委员会)'가 설립되었고 그 산하에 자연과학조, 사회과학조, 의학위생조, 시사문학조, 예술조 등 다섯 개의 하위 소조를 설치했다. 전문 용어

의 표준화는 학술 명사 통일 사업 위원회의 각 관련 자연과학 학회 및 연구 기구에서 학술 명사를 제안하고, 중국 과학원에서 갈무리를 하여 문화 교육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최종 심사·결정을 하는 절차를 거쳤다. 1956년 문화 교육 위원회가 해체되면서 전문 용어의 규범화 사업은 중국 과학원에서 주관하게 되었는바, 중국 과학원 편역 출판 위원회 산하에 '명사실'이라는 연구실을 설치하여 전국의 자연과학 전문 용어의 통일과 심사·결정 사업을 담당했다. 그러나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중국의 정치 환경으로 말미암아 전문 용어 정비 사업은 10여 년간 정지되었다가 1978년에 재개된다. 같은 해에 중국은 ISO 국제 표준화 조직에 다시 가입하며 TC37의 회원국이 되었다. 1985년에는 '전국 과학 기술 명사 심사 결정 위원회'를 정식으로 설립했고, 산하에 이학, 공학, 의학, 농학 등 학과의 총 49개의 하위 분과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는 2006년 현재까지 67개의 전문 분야에 대해 규범 전문 용어를 제정하여 공포했다.

한편, 정부 기관인 국가기술감독국은 1985년 10월에 '전국 술어 표준화 기술 위원회'를 설립하여 전문 용어 표준화 사업을 담당하도록 한다. 이 기술 위원회는 정부 차원의 전문 용어 표준화 사업 주관 부서로써 기능하며 주로 전문용어학의 일반 원칙과 방법에 대한 연구, 전문 용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된 사서 편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2.2. 전문 용어 정비 관련 기구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중국에서의 전문 용어 표준화 사업은 주로 다음과 같은 기구들에 의해 수행된다.

- CSTBS(중국 표준화 위원회)/TC62: 국제적으로 ISO/TC37과의 연계를 담당하며 국내적으로는 전문 용어 표준화 원칙의 제정과 조정 작업, 전문 용어의 제정과 수정 원칙과 방법에 관련한 국가 표준을 제정한다.
- 각 부처의 표준화 부서와 각 전문 분야 표준화 기술 위원회: 해당 전문 분야 내의 국가 전문 용어 표준의 제정과 수정 작업을 수행한다.
- 지방 표준화 부서: 국가 표준의 제정에 협력하고 국가 표준의 선전, 시행과 감독을 수행하며, 지방성 표준을 제정한다.

여기서는 CSTBS/TC62에 해당하는 '전국 술어 표준화 기술 위원회' 기구와 전문 분야 표준화 기술 위원회인 '전국 자연과학 명사 심의·결정 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전문 용어 표준화 기구의 그 조직 구성과 역할, 사업 실적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기타 관련 기구, 학술지 등에 대해서도 정리해 본다.

1.2.2.1. 전국 술어 표준화 기술 위원회

'전국 술어 표준화 기술 위원회(全国术语标准化技术委员会)'의 영어 명칭은 China National Technical Committee for Terminology Standardizaiton이며 CNTCTS로 줄여서 쓴다. 이 기술 위원회는 정부

의 표준화 기관인 국가표준국이 설립한 것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 ISO/TC37, INFOTERM, TermNet, 국제전문용어학과 지식전파학회(GTW) 등 국외 기구와의 연계
- ISO에 상응한 국내 전문 용어 표준화 원칙의 제정 및 조정, 전문 용어 사업 원칙과 방법에 대한 기초 국가 표준의 제정 및 수정, 이와 관련한 국내외 학술 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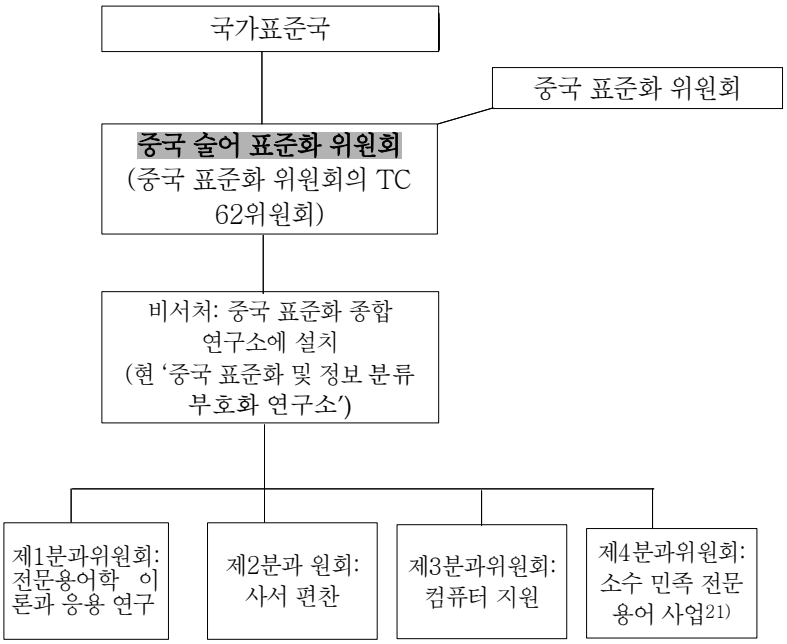
이 외에 이 기술 위원회는 '전문 용어 표준화 소식지(术语标准化简讯)'라는 학술 잡지를 발행하고, 전문 용어 표준화에 관련한 국내외 학술 대회를 개최하는 등 표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 CNTCTS의 설립 배경

연도	책임 기관	주요 사업
1978	국가표준국에서 과학 출판사에 의뢰	- ISO/TC37과의 연계 - ISO의 일부 전문 용어 표준을 번역 - 1983, ISO/TC37 런던 워크숍에 참석
1984	중국 표준화 종합 연구소	- 전문용어학과 전문 용어 표준화를 연구 항목으로 설정 - 다롄에서 학술회의 개최(전문 용어 표준화의 원칙과 방법, 언어학, 논리학과 사전편찬학 전문가들 참석)
1984.	'중국 술어 표준화 위원회	'중국 술어 표준화 기술 위원회' 설립

11.	준비위원회’ 설립	준비
1985. 10.	‘중국 술어 표준화 기술 위원회’ 설립	

○ CNTCTS의 조직도



21) 중국은 주체 민족인 한족과 더불어 56개의 소수 민족이 있으며, 각 소수 민족마다 자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있어, 소수 민족 언어에서의 전문 용어 표준화 역시 중국 전문 용어 표준화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 CNTCTS가 제정한 전문 용어 표준화 관련 주요 국가 표준

(1) GB 1.6-88 표준화 작업 지침: 전문 용어 표준화 규정(标准化工作导则 术语标准编写规定)
(2) GB 10112-88 전문 용어 수립의 일반 원칙과 방법(确立术语的一般原则与方法)
(3) GB1.6 표준화 작업 지침: 전문 용어 표준화 규정(수정)[标准化工作导则 术语标准编写规定(修订)]
(4) GB 11617-89 사서 편찬 기호(辞书编纂符号)
(5) GB/T 10112—1999 전문 용어 사업: 원칙과 방법(术语工作 原则与方法)
(6) GB/T 15237.1—2000 전문 용어 사업: 어휘 제1부분-이론과 응용(术语工作 词汇 第1部分：理论与应用)
(7) GB/T 16785—1997 전문 용어 사업: 개념과 전문 용어의 조정(术语工作 概念与术语的协调)
(8) GB/T 20001.1—20XX 표준화 규칙 제1부분: 전문 용어(标准编写规则 第1部分：术语)
(9) GB/T 15238.1—1994 사서 편찬 기본 전문 용어 제1부분(辞书编纂基本术语 第一部分)
(10) GB/T 15933—1995 사서 편찬 상용 중국어 축약어(辞书编纂常用汉语缩略语)
(11) GB/T 4880.2 외국어 분류 기호 제2부분: 3자리 기호(语种名称代码 第二部分：3字母代码)
(12) GB/T 17933—1999 전자 출판물 전문 용어(电子出版物 术语)

(13) GB/T 13725—92 전문 용어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일반 원칙과 방법(建立术语数据库的一般原则与方法)

(14) GB/T 13726—92 전문 용어와 사서 목록의 기록 교환용 테이프 형식(术语与辞书条目的记录交换用磁带格式)

(15) GB/T 15387.1—94 전문 용어 데이터베이스 개발 관련 문서 편집 지침(术语数据库开发文件编制指南)

(16) GB/T 15387.2—94 전문 용어 데이터베이스 개발 지침(术语数据库开发指南)

(17) GB/T 15625—1995 전문 용어 데이터베이스 기술 평가 지침(术语数据库技术评价指南)

(18) GB/T 16786—1997 전문 용어 사업: 컴퓨터 응용 데이터 분류(术语工作 计算机应用 数据类目)

(19) GB/T 17532—1998 전문 용어 사업: 컴퓨터 응용 어휘(术语工作 计算机应用 词汇)

(20) GB/T 18155—2000 전문 용어 사업: 컴퓨터 응용 기계 가독 전문 용어 교환 형식(MARTIF) 협의 교환(术语工作 计算机应用机器可读术语交换格式 (MARTIF) 协商交换)

(21) 몽고어 전문 용어 사업: 원칙과 방법(蒙古语术语工作 原则与方法)

(22) 티베트어 전문 용어 사업: 원칙과 방법(藏语术语标准话原则与方法)

(23) 조선어 전문 용어 사업: 원칙과 방법(朝鲜语术语标准话原则与方法)

(24) 위구르어 전문 용어 사업: 원칙과 방법(维吾尔语术语标准话原则

与方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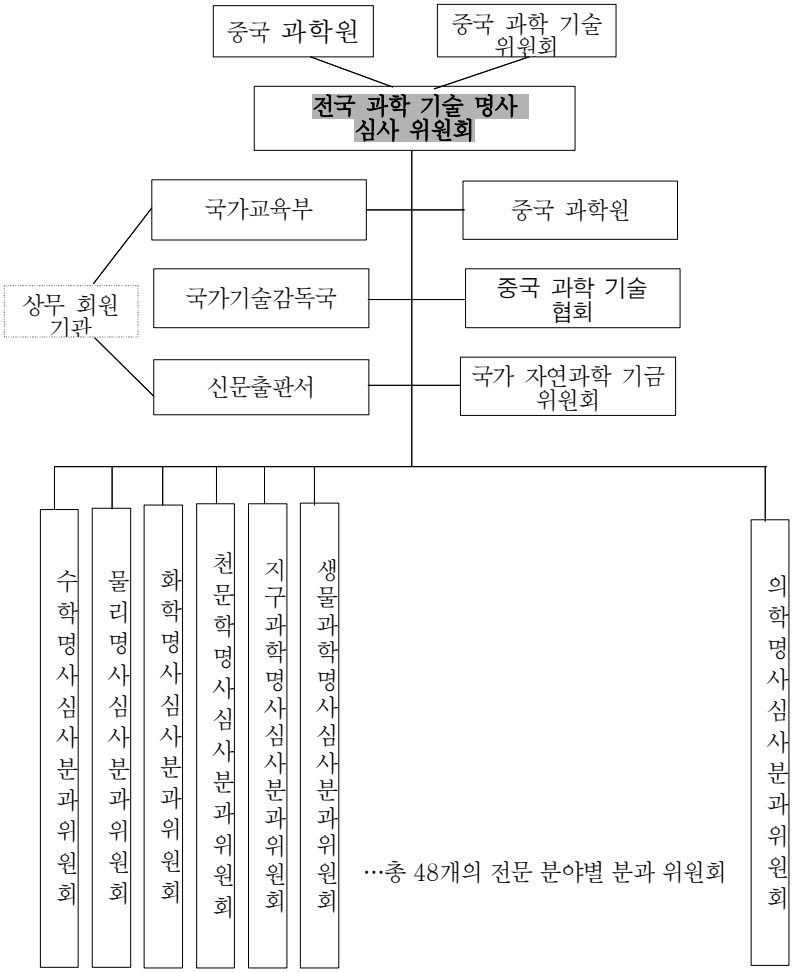
(25) 카자흐어 전문 용어 사업: 원칙과 방법(哈萨克语术语标准话原则与方法)

1.2.2.2. 전국 과학 기술 명사 심의·결정 위원회

1985년 4월에 설립된 전국 자연과학 명사 심의·결정 위원회의 영어 명칭은 China National Committee for terms in Science and Technologies이며, CNCTST로 줄여서 쓴다.

'중국 술어 표준화 위원회'가 표준화 관련 정부 기관에 의해 설립되고, 전문 용어 표준화에 관련한 대외적인 연계와 대내적인 방향 제시에 치중한 반면에, '전국 과학 기술 명사 심의·결정 위원회'는 학계와 정부의 협력 기구로써, 구체적인 전문 용어 심의·결정과 보급 등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전국 과학 기술 명사 심사 위원회'는 중국의 최고 연구 기관인 중국 과학원과 연구 단체인 중국 과학 기술 위원회의 협력에 의해 설립되었다. 또, 국가교육부, 중국 과학 기술 협회, 국가 자연과학 기금 위원회, 국가 기술 감독국, 신문출판서 등 정부 부처와 학술 단체 및 언론 기관 등이 상무 회원 기관으로 등록되었다.

○ CNCTST의 조직도



CNCTST는 이와 같은 조직 구성 덕분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특히 중국의 중앙 인민 정부이며 최고 국가 권력 기관의 집행 기관이자 최고 국가 행정 기관인 국무원은 1998년에 전국 각 사업, 기

관 등에 보내는 통지문에 이 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자연과학 전문 용어는 '권위성과 구속력을 가지며 전국의 각 과학 기술 연구, 교육, 생산, 경영, 신문 출판 등 사업 단위와 기관들에서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다. 1990년에는 위원회가 심사·결정한 전문 용어의 사용을 따르고 준수할 것에 관련하여 추가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① 각 언론 기관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전문 용어 통일의 중요한 의미를 선전하며 이미 공포된 명사를 사용해야 한다.
② 각 편집 출판 기관은 금후 출판하는 도서, 잡지, 문헌, 자료에 이미 공포된 명사를 사용한다. 특히, 각종 참고 서적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포한 규범 단어의 사용 여부를 도서의 질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③ 이미 공포된 각 학과의 모든 명사를 금후 편집, 출판하는 교과 자료에 사용해야 한다.

○ CNCTST의 주요 업무

- 전국 자연과학 전문 용어의 심사와 통일 사업에 대한 방향과 임무를 설정하며 그것의 구체적인 실시에 대한 책임
- 국가를 대표하여 전국의 과학 기술 전문 용어 사업에 관리 기능을 담당
- 과학 기술 전문 용어의 심사와 통일에 대한 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 설정
- 과학 기술 전문 용어의 표준화가 과학 기술의 현대화에 미치는 절

박성과 중요성을 널리 홍보
- 과학 기술의 각 학과의 전문 용어, 명명 원칙 및 과학 기호 등의 심사 회의를 주관, 결과 발표
- 과학 기술의 전문 용어 연구 사업을 주도, 관련된 국내외 전문 용어 자료와 정보의 수집, 자연과학 전문 용어의 원칙과 방법의 연구와 제정
- 국제 전문 용어 기구와의 연계
- 홍콩, 마카오, 대만의 관련 기관 및 개인과의 연계

○ CNCTST의 사업 실적

- 수학, 물리학, 화학 등 48개의 전문 분야별 전문 명사 심사 위원회 설립
- 1,700여 명의 학자가 전문 용어의 심사에 참여
- 1997년까지 22개 학과의 전문 용어 표준을 발표
- 학술지 '과학 기술 전문 용어 연구(科技术语研究)'를 창간·발행
- 비정기적으로 '소식지(简讯)'를 발행

1.2.2.3. 기타

1.2.2.3.1. 관련 학술지

○ 과학 기술 전문 용어 연구(科技术语研究)
- 과학 기술 전문 용어 규범화 상황 보고 창구 역할
- 중국 과학원 주관, 전국 과학 기술 명사 심사·결정 위원회 주최,

계간지

○ 전문 용어 표준화 및 정보 기술(术语标准化与信息技术)

- 국내외에 발행되는 국가급 종합성 간행물
- 전문 용어 연구, 전문 용어 표준화, 전문 분야별 전문 용어 표준화, 과학 기술 신조어 토론, 언어학 이론과 연구 등 다양한 칼럼 설치
- 국가 질량 감독 검사 검역 총국 주관, 중국 표준화 연구원 주최, 계간지
- URL: http://sybx.chinajournal.net.cn/

1.2.2.3.2. 관련 홈페이지

○ 중국 전문 용어 정보넷(中国术语信息网) http://www.cnterm.org

- 30만여 항목의 전문 용어 어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문 용어 검색 기능
- 전문 용어 표준화 관리 서비스 제공
- 전문용어학과 전문 용어 표준화 관련 정보, 연구 논문 검색 제공
- 학술지 '전문 용어 표준화 및 정보 기술'과 '동아시아 전문 용어 뉴스레터(EAFTerm Newsletter)'의 인터넷 버전 열람 서비스 제공

○ 중국 언어 문자넷(中国语言文字网) http://www.china-language.gov.cn

- 중국 교육부 언어 문자 응용 연구소 주관
- 중국 언어 문자에 관련된 표준 공포, 관련 정보 제공

○ 표준넷(标准网) http://www.standardcn.com

- 공업 분야의 표준화 포털 사이트

○ 중국 표준화 정보넷(中国标准化信息网) http://www.china-cas.com/

- 국가에서 제정한 강제 성격을 지닌 표준 목록 검색 기능

1.2.3. 전문 용어 표준화 원리 및 세부 지침

1.2.3.1. 전문 용어 표준화 원리

중국의 "전문 용어 표준 작성 규정(术语标准编写规定)"의 국가 표준, 즉 GB1.6-88.은 중국 국가기술감독국에 의해 1988년에 발표되었다. 이 표준은 국제 표준화 조직의 '기술 사업 원칙(技术工作导则)'의 제2부분인 '방법론'(1985년 버전)의 제1장 '전문 용어' 및 <<국제 표준과 기술 보고 편사 지침>>의 부록 D "정의에 대한 초고와 작성 방법(关于定义的起草和编写方法)"을 준한다. 이 규정에서 제시한 전문 용어 표준의 기본 요구와 표현 형식을 정리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 전문 용어 표준화의 기본 요구

① 전문 용어 표준화는 국가의 관련 법규[22]를 준수해야 하며, 국가

22) 2000년 10월 31에 발표되어 2001년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통용 언어문자법(中華人民共和國國家通用語言文字法)'의 3장 25조에는 "외국인명, 지명 등 고유 명사와 과학 기술 전문 용어의 국가 통용 언어 문자로의 번역은 국무원 언어 문자 사업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서 심의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경고와 더불어 행정 처분을 가한다고 되어 있다.

언어 문자 방면의 규정에 저촉되지 말아야 한다.

② 전문 용어 표준은 GB1.1 <<표준화 사업 지침: 표준 작성의 기본 규정(标准化工作导则 标准编写的基本规定)>>과 GB10112<<전문 용어의 일반 원칙과 방법의 확립(确立术语的一般原则与方法)>>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③ 동일 표준 혹은 같은 그룹의 표준에서 개념이 동일한 서로 다른 전문 용어는 하나로 통일해야 하며, 이미 발표된 국가 표준이나 전문 분야 표준(부처 표준)과도 일치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표준화된 전문 용어는 관련 학과의 전문 용어와 일치해야 하며, '전국 과학 기술 명사 심의·결정 위원회'에서 공포한 전문 용어와도 조정하여 통일한다. 전문 용어가 지칭하는 개념은 가능한 국가 표준과 일치해야 한다.

○ 전문 용어 표준의 일러두기 부분

① 전문 용어 표준의 겉표지와 첫 페이지, 목차, 서문은 GB1.1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 전문 용어 표준의 명칭은 반드시 전문 용어의 유형을 밝혀야 한다. 예를 들면, '인체 측량 전문 용어', '건축 문 종류 전문 용어' 등이다.

○ 전문 용어 표준의 본문 부분

① 전문 용어 표준의 주제 내용과 적용 범위, 인용하는 표준은 GB1.1

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 전문 용어 항목 번호는 개념 체계 분류에 따라 장, 조를 나누고 전문 용어를 나열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논리 순서에 따라 배열하고, 배열한 전문 용어는 배열 순서에 따라 번호를 단다.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기계(机械)

1.1. 동력기계(动力机械)

1.1.1. 내연기(内染机)

1.1.1.1. ……

……

1.1.2. 가스터빈(气轮机)

1.1.2.1. ……

……

1.2. 금속절단선반(金属切割机床)

1.2.1. 선반(车床)

1.2.1.1. ……

……

1.2.2. 평삭반(刨床)

1.2.2.1. ……

……

상기의 방법 외에도 표로 전문 용어 항목을 나열할 수 있으나, 전문 용어 항목 앞에 반드시 번호를 달아야 한다.

③ 전문 용어의 제정은 반드시 개념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 새로운 전문 용어를 선택하거나 수립할 때 GB10112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전문 용어는 항목번호 뒤에 한 칸[23]을 비워 두고 기록하며 뒤에는 문장 부호를 쓰지 않는다.

④ 전문 용어 표준에는 일반적으로 전문 용어에 대응하는 영어를 표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응되는 불어, 러시아어 혹은 기타 언어를 기록한다. 두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의 대응 외국어 전문 용어를 기록할 경우, 외국어에는 소문자로 된 외국어 식별 코드를 기록한다. 영어의 식별 코드는 en, 불어는 fr, 러시아어는 ru이다.

영어만 기록할 경우에는 이런 언어 식별 코드를 표기하지 않고 중국어 표준 용어 뒤에 한 칸을 띄어 쓰는 것으로 대신한다. 두 가지 외국어를 기록할 경우, 외국어는 새로 줄을 시작하며 외국어의 배열 순서는 영어를 우선 제시한 뒤에 기타 언어를 제시한다. 세 가지 외국어 대응어를 제시할 경우, 한 줄에 두 가지 언어의 대응어만 기록한다. 첫 줄에 중국어와 영어를, 두 번째 줄에 불어, 러시아, 또는 기타 외국어를 제시한다. 외국어 전문 용어 앞에는 해당 외국어 기호를 표기하며, 외국어 표기와 외국어 대응 전문 용어 사이에는 두 칸을 띄어 쓰며, 외국어 전문 용어와 전문 용어 사이는 세 칸을 띄어 쓴다.

외국어 대응어 뒤에 문장 부호를 찍지 않는다.

문맥상 대문자를 반드시 써야 되는 경우(예를 들면 전문 용어) 외에는 외국어 대응 전문 용어는 모두 소문자로 기록한다.

---

23) 중국어는 한국어와 달리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외국어 대응 전문 용어를 채택 시 아래의 우선 순서를 따른다.

- ISO 혹은 IEC 등 국제 표준 중의 대응 전문 용어를 직접 채택한다.
-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문헌, 즉 ISO 문헌, IEC 문헌, 영향력이 있는 국가급 표준, 사전, 책자 등을 따른다.
- 한 전문 용어가 지칭하는 개념과 외국어의 대응 전문 용어가 지칭하는 개념의 외연이 대등하지 않을 때, 유의 관계에 있는 전문 용어를 채택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각주에 개념 외연상의 차이를 설명한다.
- 부득이한 경우에 두 개 또는 몇 개의 상호 보완하는 전문 용어를 함께 제시하여 정의한 개념을 명확히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엄격한 제한을 둔다. 이 외에 혼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 상호 보완하는 몇 개의 전문 용어를 세미콜론으로 나누어 제시하거나, 접속사 “와/과(和)[혹은(或)]”으로 이어 준다.
- 적당한 외국어 대응 전문 용어를 찾기 어려울 경우에는 잠시 비워 둘 수 있으나, 주석을 달아야 하며 가능한 이런 경우를 피하도록 한다.

⑤ 전문 용어는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거나 설명을 해야 한다. 정의는 새 줄을 시작하여 기술하되, 편집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간단한 설명으로 대체하며 설명은 ‘( )’ 안에 쓴다.

⑥ 정의는 그림으로 보충 설명할 수 있다. 그러더라도 정의 자체는 명확해야 한다. 그림은 정의 아래에 붙인다. 편집상의 어려움으로 다른 위치에 그림을 붙일 경우, 해당 전문 용어를 재차 제시해야 하

며 해당 전문 용어의 관련 그림이라고 밝혀야 한다. 반드시 공식을 써서 정의를 보충 설명해야 할 경우, 공식은 정의 아래에 기록한다. 특정 개념을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호로 표시할 경우, 이 기호를 해당 개념의 전문 용어 뒤에 한 칸을 띄어 쓰고, 괄호를 친다. 예를 들면, "전기저항"의 경우 "전기저항(R)"으로 표기한다.

⑦ 이미 명확한 정의가 되어 있는 전문 용어에 대해서는 최대한 동의 관계에 있는 다른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동의 전문 용어는 정의문의 다음 줄에 제시하며 앞에 '동의 전문 용어'라고 밝힌다. 두 개 이상의 동의 전문 용어를 제시해야 할 경우, 전문 용어 사이에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사용하지 말아야 할 동의 전문 용어는 괄호 안에 쓴다.

⑧ 전문 용어 표준은 중국어 병음[24]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 색인을 첨부해야 한다.

전문 용어가 외국어나 숫자로 시작할 경우, 전문 용어의 첫 한자 독음의 배열에 따라 색인하며 외국어와 숫자 부분의 순서는 영어, 그리스어, 숫자의 순서다. 예를 들면, "II - V족 화합물 반도체"는 "族(족)"의 중국어 병음 "zu"로 색인 순서를 결정한다. "X射線(x광선)"은 "射"의 중국어 병음 "she"로 색인 순서를 결정하며, "Y

24) 중국어 한자는 뜻글자이고 단독으로는 발음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런 까닭에 중국에서는 한자 발음의 통일과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발음 기호, 즉 로마자를 이용한 병음 체계를 만들었다. 이 병음 체계는 로마자로 표시하지만, 우리의 알파벳 발음과 다르다. 예를 들면, shi의 경우 영어를 배운 기본적인 지식으로는 '**시**'로 발음하는 것이 맞을 것 같지만 중국인들은 shi를 '**스**'에 가깝게 발음한다. 중국의 사전이나 단어집의 색인은 모두 병음 순서로 되어 있다.

射線(Y광선)" 역시 "she"로 색인 순서가 결정되나, 외국어 배열의 순서에 따라 "X광선" 뒤에 제시된다.

외국어로 표시된 축약어에는 완전한 중국어 전문 용어를 표기하되, 중국어 전문 용어의 중국어 병음에 근거해 색인 순서를 결정한다. 예를 들면 "DNA"에의 중국어 완전 표기는 "脱氧核糖核酸"로, '脱'의 병음 표기 'tuo'로 색인 순서를 결정한다.

전문 용어가 외국 문자로만 구성되었을 경우, 외국어 자모의 순서에 따라 색인에 배열한다. 이때 영어를 우선 제시하고 그리스어를 제시한다. 그러나 이는 중국어 병음에 따라 배열된 색인 뒤에 제시한다. 예를 들면 ALGOL, BASIC, COBOL, dBASE 등은 영어 자모의 순서에 따라 중국 전문 용어 색인 뒤에 제시한다.

표준에서 제시한 외국어 대응 전문 용어는 모두 외국어 색인을 첨부한다.

색인 내용에는 전문 용어 항목의 번호를 포함한다.

전문 용어 표준의 색인은 부록으로 붙여도 된다.

○ 전문 용어 표준의 보충 부분

부록과 부가 설명을 포함하며 편집 방법은 GB1.1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1.2.3.2. 외국인 인명의 정비 원칙

외국인 인명의 정비는 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을 따른다[25].

① 인명이 표기된 원어 발음을 따른다. 바꾸어 말하면, 불어 인명일 경우, 그 영어 발음이 아닌 불어 발음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② 현대의 표기법에 위배되더라도 널리 알려져 오랫동안 사용되었을 경우, 수정하지 않고 원래 표기대로 계속하여 사용한다.
③ 과학자의 인명이 여러 학과에서 달리 표기될 때, 해당 과학자의 기여도와 지명도가 가장 높은, 즉 가장 관련성이 깊은 학과의 표기를 따른다.
④ 외국 자연과학자의 인명은 정확성과 규범화를 꾀하되, 원칙적으로 신화사(중국 최대의 국영 출판사)가 편찬한 인명 관련 책자와 지명위원회에서 제정한 '번역음표(译音表)'를 참고한다.

1.2.3.3. 중국 물리학 전문 용어 표준화 원리

본 연구 과제의 일환으로 국내 물리학 전문 용어에 대한 분석 작업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중국 물리학회 물리학 명사 위원회의 전문 용어 표준화 원칙'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물리학 전문 용어는 원칙상 물리학 각 세부 분야의 전문 용어만을 수록하며, 물리학에서 상용하는 기타 학과(수학, 역학, 천문학 등)의 전문 용어와 물리학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자연과학, 공정 기술의 전문 용어를 적당히 수록한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전문 용어

25) 冯志伟(1997), <<现代术语学引论>>, 语文出版社, 101쪽.

의 목록은 지나치게 많아서는 안 되며 수록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가능한 해당 전문 용어의 소속 학과를 밝히도록 한다. 소속 학과의 약칭은 '{}' 안에 표기하는데, 이를 예로 들면 octode 八極管 {전자통신}과 같다.

② 전문 용어의 명명은 정확하고 간결해야 하며 중국어의 顧名思義의 특징을 감안하여 가능한 과학성과 통속성의 일치를 가져온다.

③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문 용어의 명명은 체계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인명과 지명, 상표명 외에 번역 명칭은 원칙상 음차를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laser는 激光이라 하고 萊塞라 하지 않는다. 발음과 뜻을 모두 고려하여 명명할 수 있다면 아주 좋다. 예를 들어 servo는 伺服로 발음이 원어와 비슷한 동시에 구성 한자 또한 servo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다. 일부 재료의 번역 명칭은 음역과 의역을 조합하여 만든다. invar를 殷(in)鋼(강철의 '강')으로 한 것이 그 예다.

⑤ 명명 시에 가능한 새로운 한자를 만들지 않는다. 물리학 전문 용어 중에 과거에 이미 새로운 한자들을 만들었으나 한자의 수를 늘이지 않기 위해 신조 한자를 만들지 않는다.

⑥ 하나의 전문 용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질 때, 각각의 뜻에 대해 명칭을 정하고 (1), (2), (3), ……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예를 들어 order의 경우 (1)급 (2)서 (3)계{수학}으로 기입한다. inclusive(1)내함 (2)단거{고에너지물리}; background(1)본저{핵물리} (2)배경{천체물리}; isomer(1)동질이능소{핵물리} (2)동분이구체{화학}

⑦ 일부 외국어 전문 용어는 하나의 전문적인 뜻을 가지나 여러 개의 번역 대응어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중에서 가장 적당한 하나를 채택한다. 이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경우, 여러 개를 동시에 나열하고 ‘,’로 구분하며, 추천하는 번역 명칭을 가장 앞에 기입한다.

⑧ 두 개 이상의 전문 분야에서 통용하는 전문 용어는 기초과학에서 결정한 전문 용어에 준한다. 물리학과 기상학에서 통용하는 전문 용어는 물리학 소속으로 준한다.

⑨ 인명에 관련된 외국어 전문 용어는 아래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이미 굳어진 전문 용어는 계속하여 사용한다. Cartesian coordinates는 디카르좌표
- 굳어지지 않은 전문 용어는 名從主人, 즉 주인의 이름을 따라 해당 인물의 국적과 사용 언어를 따라, 그리고 번역음표(譯音表)[26] 혹은 번역음책자(譯音手冊)에 따라 번역한다.

⑩ 전문 용어에서 생략된 한자는 ‘[ ]’안에 기입하며 주석은 간결하게 쓰되, 해당 전문 용어 뒤에 ‘( )’ 안에 기입한다. 예: volt (v) 伏[特](电压单位)

⑪ 수록한 전문 용어는 자모의 순서에 따라 배열하며, 구유형의 전문 용어는 역순으로 배열하지 않는다.

⑫ 전문 용어는 단어형 전문 용어를 중심으로 하고 구유형의 전문 용어는 자주 쓰이는 것만 제시한다.

⑬ 이미 통용되는 전문 용어는 최적의 것이 아니더라도 혼란을 일으켜 통일에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쉽게 변경하지 않는다. 명확한

---

26) 전국 언어 문자 사업 위원회에 의해 제정되고 공포된 언어 표기법의 하나로, 번역에 있어서 음차에 사용되는 가능한 한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오역이거나 중의성의 가능성이 높은 전문 용어는 전문 용어 위원회(또는 분과)의 토론을 거쳐 수정하고 공포한다.

1.2.4. 중국어 전문 용어의 정비 실례

1.2.4.1. 중국어 전문 용어의 일반적 특징

중국어 전문 용어의 평균 길이는 2.13단어이다. 품사 유형을 살펴보면, 명사, 동사, 명사와 동사의 겸류사[27](兼类词) 전문 용어, 명사와 형용사의 겸류사 전문 용어 네 가지이다. 이 중에 명사형 전문 용어에만 음역 또는 음역과 의역이 결합한 형식의 전문 용어가 있다. 이 중에 단어로 된 전문 용어의 조어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7) 명사와 동사의 겸류사는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는 품사 통용어를 말한다.

전문 용어 분류	의미 분류	조어 구조 1	조어 재료 간 관계	비고	예
명사형 전문 용어	의역	단순어	단음절		数
		형태소+ 접사			子程序(서브루틴)
		접사+ 형태소			自动化(자동화)
		형태소+ 형태소	병렬 관계	두 개의 형태소가 병렬 관계로 결합한 것	语言(언어)
			관형어+ 중심어	앞의 형태소가 뒤의 형태소를 수식하는 것	硬件(하드웨어)
			동사+ 목적어		积分(적분)
			주어+ 술어		语用(화용)
			보충 관계	뒤에 오는 형태소가 앞에 오는 형태소가 뜻하는 사물의 계량 단위를 감당함으로써 보충해 주는 것	星座(별자리)
	음역				比特(bit, 비트)
	음역+ 의역				安培计(Amperemeter, 전류계)
동사형 전문 용어	의역	단순어	단음절		读(읽다)
		형태소+ 접사			量化(양화하다)
		형태소+ 형태소	병렬 관계		寻找(찾다)
			관형어+ 중심어		复写(복사하다)
			동사+ 목적어		采样(샘플링하다)
			보충 관계		返回(돌아가다)
명사 동사 겸류사	의역		관형어+ 중심어		否定(부정)
			병렬 관계		编排(편집)
			보충 관계		输入(입력)
			동사+ 목적어		编码(부호화)
명사 형용사 겸류사	의역		병렬 관계		准确(정확한)
			동사+ 목적어		等价(등가의)
명사 한정사 겸류사	의역		병렬 관계		顺序(순서)

1.2.4.2. 중국어 전문 용어 정비의 예

코카콜라의 중국어 표기가 '可口可乐'으로, '커커우컬러'로 원어와 유사하게 발음하는 동시에 '입맛에 맞아 즐겁다'의 뜻을 표현하여 상품에 색깔을 더한 예는 널리 회자되고 있다. 중국어는 전문 용어의 표준화에서도 중국어 한자의 뜻글자 특징을 충분히 반영한 이런 번역 방식을 선호한다.

중국어 전문 용어에는 음역 외래어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긴 하나, 일본어와 비교했을 때 '게임이 안 될("小巫见大巫")[28] 만큼' 적은 편이다. 스유웨이(史有为, 1999)에 따르면 중국어 어휘에서 음역 외래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1~1.5%가량이다. 전문 용어 중에 외래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보다는 높아 약 6.8%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어의 현대 과학 기술과 컴퓨터 기술 등에 관련한 전문 용어는 대부분 한자의 뜻글자 속성을 활용해 음역보다는 의역을 통해 만들어진다. 또, 의역의 경우에라도 원어의 발음과 유사한 한자로 표현하여 발음과 의미를 모두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중국어 전문 용어 표준화의 몇 가지 실제 사례를 보인다.

○ 의역의 예

'hardware(하드웨어)'와 'software(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중국어 전문 용어를 살펴보면 각각 '하드'와 '소프트'에 해당하는 '굳을 硬(경)'과 '연할 软(연)'에, 'ware'에 해당하는 '물건 件(건)'을 합성하여 '硬件,

---

28) 史有为, 论当代语言接触与外来词, 应用言语学研究, 1999, (1).

软件'의 전문 용어로 표준화하였다. '하드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콤팩트디스크'의 경우에는 '접시'를 뜻하는 형태소 '盘'에 각각 '하드, 플로피'를 뜻하는 '硬(경)'과 '软(연)'을 합쳐 '硬盘, 软盘'으로 정착되었다. '콤팩트디스크'의 경우 빛을 뜻하는 '光(광)'에 '盘'을 붙여 '光盘'으로 표준화하였는바, 의미상 '硬盘, 软盘'보다 빠른 속도로 구동되는, 또 콤팩트디스크의 광택이 나는 표면을 연상시킨다.

아래의 여섯 개의 컴퓨터·통신 용어들은 의미상 연관성이 깊으며, 영어에서는 네 개의 전문 용어가 'net'이라는 형태소를 포함하고 있다. 중국어는 여섯 개의 대역 전문 용어 모두 '网'이라는 형태소를 포함하여 직관상으로도 이들 사이의 연관성을 짐작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영어	중국어	한국어
Internet	因特网	인터넷
internet	互联网	인터넷
WWW	万维网	월드와이드웹
network	网络	네트워크
netizen	网民	네티즌
on-line	网上	온라인

○ 음역 + 의역의 예

아래는 컴퓨터·통신 전문 용어의 예인데 한국어와 대조하여 보인 표다. 총 26개의 전문 용어 중에 중국어의 경우 24개가 의역되었고, '黑

客(해커)'와 '万维网(월드와이드웹) 2개는 음역과 의역을 혼합하여 만들어졌다. 따라서 음차하여 사용하는 전문 용어는 하나도 없다. '黑客(해커)'는 발음이 'heike'로 원어인 hacker와 비슷한 동시에 '검을 黑'과 '손님 客'을 합성하여 만들어졌는데, 표면적으로 '해커'의 부정적인 의미가 드러나 있다. 반면에, 한국어의 경우 '최종 사용자, 단말기' 두 개 외에는 모두 음차하였다.

영어	한국어	중국어
computer	컴퓨터	计算机/电脑
digital	디지털	数字化/数码化
network	네트워크	网络
internet	인터넷	因特网
hardware	하드웨어	硬件
software	소프트웨어	软件
hard disk	하드 디스크	硬盘
floppy disk	플로피 디스크	软盘
compact disk	CD, 콤팩트디스크	光盘
router	라우터	路由器
modem	모뎀	调制解调器
menu	메뉴	菜单
server	서버	服务器
mouse	마우스	鼠标/滑鼠
keyboard	키보드	键盘
end user	최종 사용자	最终用户
terminal	단말기, 터미널	终端
processor	프로세서	处理器
interface	인터페이스	接口
LAN	랜	局域网
browser	브라우저	浏览器
platform	플랫폼	平台
RAM	램	随机访问存储器
ROM	롬	只读存储器/唯读存储器
hacker	해커	黑客
WWW(Word Wide Web)	월드와이드웹	万维网

○ ‘음역 + 의미 표지 형태소’의 예

중국어 전문 용어의 제정은 음역 형태소의 앞뒤에 의미 표지 역할을 하는 중국어 형태소를 더하는 조어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poker(포커)’의 경우 ‘扑克牌’, 즉 발음이 원어에 가까운 ‘扑克(puke)’에 카드를 연상시키는 ‘호패 牌’를 더해 만들어졌다. ‘shampagne’도 마찬가지로, 발음이 원어와 비슷한 ‘香槟(xiangbin)’에 ‘술 酒’를 더해 ‘香槟酒’로 불린다. 이는 음역과 의미 표지 형태소의 적절한 결합으로 만들어진 예들로써 중국어 전문 용어 정비의 성공적인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의역 + 의미 표지 형태소’의 예

‘mouse(마우스)’의 예도 흥미롭다. ‘mouse’는 중국어에서 ‘鼠标’로 표준화되었는데, 쥐를 뜻하는 ‘鼠’에 ‘표시, 표지’의 의미를 지닌 ‘标(표)’가 합쳐서 만들어졌다. 마우스는 ‘滑鼠’라고도 하는데, 글자가 지닌 뜻인즉 ‘미끄러지는 쥐’다. 두 용어 모두 동물의 ‘쥐’와는 구분되면서도 ‘mouse’의 기능이나 특징을 보이는 의미 표지 형태소를 첨가하여 표준화하였다.

○ ‘음역의 축약형 + 의미 표지 형태소’의 예

긴 지명의 경우에는 지명의 음역을 축약한 뒤에 의미 표지와 합성하는 조어법을 이용한다. ‘Philadelphia’는 중국어에서 ‘费城’으로 번역되는데, ‘费’는 음역어의 첫 글자이고, 도시를 뜻하는 ‘城’은 의미 표지다. ‘California’는 ‘加州’로 표기되는데, ‘加’는 음역어의 첫 글자이고, ‘州’

는 행정 단위 '주'의 대역어다. 이 두 경우 모두 의미 표지 형태소로 인해 지명임을 직관으로 알 수 있는 동시에 전문 용어의 주요 특징인 간결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 음역에서 의역으로 교체된 예

또, 음역어가 사용 과정에 의역어로 대체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laser'는 도입 초기에 단순어 구조인 '莱塞'로 음역되어 사용되었으나 나중에는 '아주 빠른 빛'을 뜻하는 '激光'으로 표준화되었다. 'motor'가 '马达'에서 '电动机'로 순화된 것도 같은 예이다.

1.3. 러시아에서의 전문 용어 정비 사업

러시아어에서 '전문 용어'에 해당하는 용어는 'термин', 또는 'терминология'이다. 전자는 각각의 전문 용어를 뜻하며, 후자는 전문 용어들의 집합인 '전문 어휘'를 뜻한다. 이 두 낱말과 동일한 어근에서 파생한 형용사 'терминологический'는 '전문 용어의'의 뜻을 나타내며, 동사 'терминировать'는 '(어떤 사물을) 학술어로 부르다 또는 학술어·전문어를 정하다/만들다[29]'의 뜻으로 쓰인다. 러시아에서의 전문 용어 정비에 관련한 문헌들에서 '정비'의 개념과 관련하여 '정리(упорядочение)', '통일(унификация)', '표준화(стандартизация)' 등 용어가 가장 자주 쓰이나[30], 표준화 관련 문서에서는 'стандартизация терминологии', 즉 '전문 어휘의 표준화'로

29) 고대 러시아 문화 연구소 편(1987), '노한사전', 주류 도서출판, 1484쪽.

30) 郑述普(2005), 俄罗斯当代术语学, 商务印书馆, 213쪽 재인용.

표준화하여 사용한다.

20세기 초반 구소련은 공업화 과정에서 과학 기술의 학습과 전파의 수요가 급증했고, 이는 전문 용어의 통일된 사용에 대한 수요로 이어졌다. 따라서 러시아는 일찍이 1930년대부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문 용어 정비 사업을 전개해 왔고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31].

1.3.1. 전문 용어 정비 사업의 역사

러시아의 전문 용어 정비 사업에 대한 논의에서는 러시아 과학원(Российская академия наук, РАН)에 설치된 '기초과학 분야 과학 전문 용어 위원회(Комитет научной терминологии в области фундаментальных наук, КНТТ)'를 빼놓을 수 없다. 일찍이 1933년 당시의 소련 과학원에서 발의하여 설립된 '과학 기술 전문 용어 위원회(Комитет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й терминологии АН СССР, КНТ АН)'(КНТТ의 전신)은 과학 기술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추천 용어집을 출판하였다.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의 전문 용어 정비 또한 주로 과학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과학원에서 주관하는 전문 용어 사업은 크게 세 분야로 나뉜다. 전문 용어 연구 사업의 대상에 대한 연구, 여러 방면의 연구, 전문

31) 국내에서 접근 가능한 러시아에서의 전문 용어 정비 사업에 대한 자료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본 과제가 단기 과제인 관계로 충분한 자료 조사가 불가능했다. 러시아에서의 전문 용어 정비 사업에 대한 연구 조사를 위해서는 추후 연속 과제를 기대해 본다.

용어 사업의 조직 형식이 그것이다. 전문 용어 사업의 대상은 아래의 다섯 가지 분야를 아우른다.

① 개념에 대한 등급별 분류, 즉 개념의 체계화
② 개념에 대해 정의
③ 과학 기술 언어에 대한 연구
④ 전문 어휘와 관련어들 간의 차이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 각각의 전문 용어에 대한 연구
⑤ 전문 어휘의 축약형에 대한 연구

과학원이 주도하는 전문 어휘 사업은 이론 연구에서 연구 방법론에 대한 탐색, 전문 어휘의 사용법에 대한 확정, 용어집 편찬을 통한 전문 용어 정비, 문헌에서 사용된 전문 용어가 통일되게 규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 민족 간, 국가 간 과학 기술 어휘에 대한 조정 등 광범위하게 진행된다. 이론 연구 부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로 다음과 같다.

- 전문 용어 형성의 이론 근거, 개념의 체계화 등 이론적인 연구
- 전문 어휘와 일반 어휘 간의 경계, 전문 용어 정의의 특징, 전문 어휘와 일반 어휘의 상호 영향 등 문제
- 전문 용어의 규범성, 차용 전문 용어의 표기, 표준어와 과학 메타언어 간의 상호 영향, 전문 용어 사전 편찬 등
- 언어학 측면에서의 전문 용어 연구, 즉 전문 용어 표현이 언어 규범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동의어들 중에서 전문 용어 채택의

언어학 원칙, 전문 용어의 조어 규범, 전문 용어의 표기 규범
- 일반 사전에서의 전문 용어 뜻풀이의 원칙
- 정보 검색을 위한 키워드 용어집 제정
- 정보학 측면에서의 전문 용어 연구
- 외국어 교육과 과학 기술 문헌 번역에서의 전문 용어 연구
- 새로운 전문 용어의 확정

러시아 과학원(구소련 시기 '소련 과학원'의 후신)은 러시아의 최고 과학 기구로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기초 연구를 선도하는 기구이다. 구소련 시기에서부터 구소련 해체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과학원은 전문 용어 정비 사업을 주관하고 전문 용어 연구에 앞장서 왔다. 하지만 분야별 기초 연구 성격을 지닌 실제 작업은 각 전문 분야 연구소에서 분담하여 진행한다.

이 위원회는 1933년부터 1956년까지 선도적 과학 조사 연구소와 전문 분야별 연구소들 간의 전문 용어의 심의 전 논의의 전개를 위해 "전문 용어 보고(Терминологические бюллетени)" 또는 "전문 용어 과제(Терминологические проекты)"라는 시리즈로 КНТТ 추천 용어집을 출판했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위원회는 과학, 기술, 공업의 각 분야에 적용되는 '전문용어집(Терминологических сборников)'을 출판했다. 구소련 시기에 위원회는 67권의 이런 용어집을 출판했다.

1947년부터 위원회는 전문 용어 추천집을 출판하기 시작했고, 이 작업은 1951년부터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1933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출판된 용어집과 용어 추천집은 120여 권에 달한다[32]. 이

런 용어집은 러시아어로만 되어 있거나, 또는 영어, 불어, 독일어 등 언어의 등가 전문 용어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20세기 60년대에는 구소련은 과학 기술 전문 용어 표준화 체계를 구축했다. 1965부터 1984년 사이에 800개의 국가 표준과 300개 이상의 전문 용어와 정의 표준을 제정했으며 이에 관련된 전문 용어는 8만 개에 달한다. 1986년까지 제정된 국가 표준은 총 1,792개로, 10만 개의 전문 용어를 포괄하는 것으로 상당한 규모를 자랑한다. 이 중에 공용 부문의 국가 표준 642개, 업종별 표준 286개, 부록을 포함한 국가 표준 864개와 추천 용어집 111권을 포함하며 추천 용어집에 수록된 전문 용어는 약 5천 개이다. 참고로, 1990년대까지 세계적 범위에서 제정된 전문 용어 표준은 모두 2만 개다.

이 외에, 이 위원회는 오래전부터 '러시아 과학원 과학 기술 전문 용어 위원회'의 이름으로 '과학 표준 전문용어집(Сборников научно-нормативной терминологии КНТ РАН)'을 계획하고 있다.

1.3.2. 전문 용어 표준화의 절차 및 형식

1.3.2.1. 전문 용어 표준화 절차

P-50-603-1-89 '전문 용어와 정의 표준의 제정'에서는 표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표준을 완성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

32) 부록에 '러시아 과학원 기초과학 과학 기술 전문 용어 용어집 목록'을 첨부함.

- 정리할 전문 용어 학과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다.
- 개념을 추출하고, 전문 용어 항목과 정의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 개념에 대해 체계적인 분류를 한다.
- 표준의 구성과 전문 용어의 각 구성 부분에서의 분포를 확정한다.
- 전문 용어 항목과 정의를 분석하고 평가하며 선택한다. 필요시 새로 제정한다.
- 표준 초안 작성 시 일러두기 부분
- 표준을 구축하는 주요 체계 부분과 알파벳 색인
- 표준의 부록을 작성한다. 부록은 개념 체계의 분류도, 본 표준 내의 전문 용어 확정에 필수적인 일반적인 기술 개념의 전문 용어의 정의의 출처, 관련 외국어 음차어의 출처, 그림, 반드시 준수해야 하거나 추천 성격을 지닌 전문 용어로 구성된 규칙과 모델 등을 붙일 수 있다.
- 설명문을 작성한다.
- 본 표준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공문을 보낸다.
- 피드백을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표준안을 마련하며 주관 부서에 제출하여 심사·허가를 하도록 한다.

하지만 생산 기술과 과학 기술 분야의 전문 용어의 정리 방법은 차이점이 있다. 생산 기술 분야의 전문 용어의 정비는 일반적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표준을 작성하는 반면에, 과학 기술 분야의 전문 용어의 정비는 용어집을 만들어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데 머문

다. 권장되는 용어는 우선 과학 문헌, 교재와 참고 문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물론, 이런 권장 용어 역시 해당 전문 분야의 최고 전문가 그룹과 편집장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표준이 정식으로 출판된 뒤에, 수렴된 의견들은 대부분 전문용어집으로 묶어서 출판된다.

1.3.2.2. 전문 용어 표준의 형식

러시아에서 제정한 표준의 서면 구조는 통일된 형식을 갖춘다. 즉 일러두기, 본문, 알파벳 색인과 부록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일러두기는 해당 표준의 적용 범위와 그에 대한 관련 상황, 표준화의 대상 및 기타 관련 정보들을 기록한다. 본문은 관련 전문 용어 항목들로 구성되며, 핵심 전문 용어는 일반적으로 200~300개 정도다. 전문용어집에는 용어 표준으로 확정된 전문 용어와 동의어, 영어, 불어, 독일어 등 주요 유럽 언어에서의 등가어, 전문 용어의 정의 및 도식 등이 수록된다.

ГОСТ 17.2 104-77의 '오염 물질'에 해당하는 러시아 전문 용어 'Примесь в атмосфере'의 기술 양식을 보기로 전문 용어 표준의 형식을 보인다.

2. Примесь в атмосфере Примесь Ндп. *Загрязнитель*	Рассеяное в атмосфере вещество, не содержащееся в её постоянном состове
D. Beimengungen, Schadstoff E. Pollutants F. Polluants	

위의 표가 뜻하는 바는 다음의 표에서 설명한다.

표준화 전문 용어 Примесь Ндп. *비권장 용어*	정의문
D.(독일어 식별 코드) 독일어 등가어 E.(영어 식별 코드) 영어 등가어 F.(불어 식별 코드) 불어 등가어	

식별 코드 설명

- Ндп.: '용인할 수 없는'의 뜻을 가진 'недопустимый'의 약자로 '비권장 용어'의 뜻이다.
- D.: 독일어 식별 코드
- E.: 영어 식별 코드
- F.: 불어 식별 코드

- 보다 많은 외국어 등가어를 제시할 경우, 해당 언어의 식별 코드와 더불어 등가어를 제시하도록 한다.

1.3.3. 전문 용어 정비의 실제

정보 통신 분야를 보기로 전문 용어 표준화의 원리와 그 실제, 즉 전문 용어의 조어의 유형, 조어의 재료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러시아 정보 기술과 통신부의 국립통신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화 규정: 표준 문서 작성의 원칙(ПР 45.02-97 Правила по стандартизации: ПРИНЦИПЫ РАЗРАБОТКИ НОРМАТИВНЫХ ДОКУМЕНТОВ)'의 전문 용어 표준화 중에서 전문 용어 채택에 관련한 부분을 요약해 보인다.

① 전문 용어는 단어, 단어 결합 및 약자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② 전문 용어 채택에 있어서 단의성, 단어의 의미와 개념의 일치, 체계성, 간략한 특성을 지니고, 파생의 특성을 지녀 조어 생산력이 높으며 언어 규범에 적합해야 하는 등의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러시아어 문법에 대해 처음으로 과학적인 기술을 한 로모노소프는 과학 기술 용어에 대해서도 많은 기여를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외국에서 도입된 전문 용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들을 했다.

첫째로, 외국의 전문 용어는 반드시 러시아어로 번역해야 한다.

둘째로, 해당 의미를 나타내는 러시아어가 없거나, 외국어 단어가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될 경우에 한해서는 번역하지 않아도 된다.

셋째로, 번역하지 않더라도 외래어가 러시아어의 습관적인 형식을 일부 지니고 있도록 해야 한다.

그는 자신의 저술에서 솔선수범하여 위의 주장을 현실에 옮겼고, 그가 처음으로 사용했던 많은 전문 용어는 그래도 정착되어 지금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러시아어 정보 통신 용어의 경우,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영어에서 도입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러시아어 정보 통신 용어에서 순수 러시아어로 된 번역 용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다음으로 음차 용어, 번역과 음차가 결합한 형태의 용어,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용어의 순서라고 한다. 로모노소프의 상기의 주장들이 현대 러시아어의 전문 용어 표준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어 정보 통신 전문 용어의 정비의 예는 방교영(2001)의 관련 부분을 요약하여 보이는 것으로 대신한다. 러시아어 정보 통신 용어는 조어의 재료에 따라 번역, 음차, 번역과 음차가 결합한 경우,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등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① 번역한 예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캐드	CAD, Computer Aided Design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ное проектирование
메인프레임	mainframe	большая ЭВМ, центральный процессор
HTML, 하이퍼텍스트마크업랭귀지	hypertext markup language	язык разметки гипертекста
메일박스	mail box	электронный почтовый ящик

② 음차의 예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음차)	러시아어(번역어)
도메인	domain	домен	область
아이콘	icon	иконка	пиктограмма
캐시메모리	cache memory	кэш	кэш-память
모뎀	modem	модем	
모니터	monitor	монитор	
네티켓	Netiquette	нэтикет	сетевой этикет
사이트	site	сай т	
서버	server	сервер	
해커	hacker	хакер	

③ 번역과 음차가 결합한 예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번역+음차)	러시아어 동의어
프린터케이블	printer cable	кабель принтера	
게이트웨이	gateway	межсетевой интерфейс	межсетевой шлюз
윈도용 응용프로그램	Windows application	программа с оконным интерфейсом	
목록서버	Directory server	сервер каталога	сервер директории
메일서버	mail server	сервер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ы	

번역 용어가 명사, 형용사, 전치사 등 모든 품사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음차 용어는 대부분 명사형이다. 두 개의 명사가 결합하는 경우, 번역 용어와 음차 용어는 'сервер каталога'와 같이 격 변화를 통해 수식어 또는 피수식어가 된다. 또 형용사+명사로 구성된 용어에서 형용사는 대부분 번역 용어이다. 음차어인 두 명사가 러시아어 전치사와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④ 외국어(영어+번역어, 영어+음차)

한국어	러시아어(외국어)	러시아(동의어)
IP주소	IP-адрес	интернет-адрес, адрес в интернет
웹진, 전자잡지	Web-журнал	электронный журнал
웹브라우저	Web-броузер	
웹서버	Web-сервер	

최근에는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다. 외국어의 상당 부분은 기술 수입 원천 언어인 영어이다. 동일한 의미를 갖는 두 개 이상의 전문 용어의 사용 빈도의 우위가 유동적으로 변화하기도 하는데, 둘 이상의 전문 용어가 유사한 빈도수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빈도수의 우위가 확연히 드러나는 예도 있다. 컴퓨터 용어인 '아이콘'은 러시아에서 'пиктограмма', 'иконка', 'значок' 등의 용어가 동시에 쓰이는데, 최근에는 'пиктограмма'의 사용 빈도수가 'иконка'를 앞서고 있다. 컴퓨터 용어 캐시메모리를 뜻하는 'кэш-память'와 'кэш'가 쓰이는데, 'кэш-память'의 빈도수가 'кэш'를 앞서고 있다.

한국어	러시아1	러시아어2	러시아어3
IP주소	IP-адрес	адрес в интернет	
웹진, 전자잡지	Web-журнал	электронный журнал	
아이콘	пиктограмма	иконка	значок
캐시메모리	кэш-память	кэш	
계정	счет	учетная запись	расчет

부록: КНТ АН에서 발행한 용어집 목록

<인쇄 발행 도서류>

1. Терминология гидромеханики, вып. Механика. Серия - мех аника, вып.1. изд. АН СССР, 1947.
2. Терминология строительной механики, вып.2. изд. АН ССС Р, 1947.
3. Терминология теплопередачи, вып.3. изд. АН СССР, 1951.
4. Терминология по коррозии и защите металлов, вып.4. изд. АН СССР, 1951.
5. Терминология горного дела. Горные работы и элементы си стем разработки твердых полезных ископаемых, вып.5. из д. АН СССР, 1952.
6. Терминология физико-химического анализа, ч.1, вып.6. изд. АН СССР, 1951.
7. Терминология термодинамики, вып.7. изд. АН СССР, 1952.
8. Терминология по структурному анализу и синтезу релей но -контактных схем, вып.8. изд. АН СССР, 1953.
9. Терминология горного дела. Горные крепи, ч.1, вып.9. изд. АН СССР, 1952.
10. Терминология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сигнализации, централиз ации стрелок, сигналов и блокировки, вып.10. 1952.
11. Терминология деталей машин. Разъемные соединения, в ып.11. изд. АН СССР, 1953.
12. Терминология механики жидкости (гидромеханики), вы п.12. изд. АН СССР, 1952.

13. Терминология электрических явлений в газах, вып.13. изд. АН СССР, 1952.
14. Терминология теории упругости, испытаний и механических свойств материалов и строительной механики, вып.14. изд. АН СССР, 1952.
15. Классификация и терминология горных машин, вып.15. изд. АН СССР, 1952.
16. Терминология жидкостных ракетных двигателей , вып.16. изд. АН СССР, 1953.
17. Терминология аэродинамического расчета самолетов, вып.17. изд. АН СССР, 1954.
18. Терминология конструкции и прочности самолета, вып.18. изд. АН СССР, 1954.
19. Терминология конструкции турбореактивных, турбовинтовых и поршневых двигателей , вып.19. вып.19. изд. АН ССР.
20. Терминология воздушных винтов и вертолетов, вып. 20. вып.20. изд. АН СССР, 1954.
21. Терминология гидротурбин, вып.21. вып.21. изд. АН СССР, 1953.
22. Терминология взрывных работ, вып.22. М., вып.22. изд. АН СССР, 1953.
23. Терминология авиационных силовых установок, вып. 23. М., вып.23. изд. АН СССР, 1954.
24. Терминология теории и характеристик авиационных газотурбинных двигателей и турбомашин для комбинированных силовых установок, вып.24. вып.24. изд. АН СССР.
25. Терминология электрооборудования самолетов, вып. 25. в

ьш.25. изд. АН СССР, 1954.
26. Терминология кислородного и высот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вы п. 26. вьш.26. изд. АН СССР, 1954.
27. Терминология гидротехники, вьш. 27. М. вьш.27. изд. АН СССР, 1955.
28. Терминология управления, регулирования и автоматики а виадвигателей , вьш.28. вьш.28. изд. АН СССР.
29. Терминология по воздушному фотографированию, вьш. 29. вьш.29. изд. АН СССР, 1954.
30. Терминология волновых движений жидкости, вьш.30. вы п.30. изд. АН СССР, 1954.
31. Терминология электрической тяги, магистральных желез ных дорог и метрополитенов. Электротяговая сеть, вы п.31. вьш.31. изд. АН СССР, 1954.
32. Терминология электрической тяги, магистральных желез ных дорог и метрополитенов. Тяговые подстанции, вы п.32. вьш.32. изд. АН СССР, 1954.
33. Терминология общей механики, вьш.33. вьш.33. изд. АН СССР, 1954.
34. Терминология поршневых двигателей внутреннего сгоран ия, вьш.34. вьш.34. изд. АН СССР, 1954.
35. Терминология основных понятий автоматики, вьш.35. вы п.35. изд. АН СССР, 1954.
36. Терминология горного дела. Горные работы и горные выр аботки, вьш.36. вьш.36. изд. АН СССР, 1954.
37. Терминология по автомобилям, вьш.37. вьш.37. изд. АН С ССР, 1954.
38. Терминология по водоподготовке для паровых котлов, вы

п.38. вып.38. изд. АН СССР, 1956.
39. Терминология электровакуумных приборов, вып.39. вы п.39. изд. АН СССР, 1956.
40. Терминология горного давления, вып.40. вып.40. изд. АН СССР, 1956.
41. Терминология газовой техники. вып.41. изд. АН СССР, 1957.
42. Терминология вычислительных машин и приборов, вып. 42. М., вып.42. изд. АН СССР, 1957.
43. Терминология обогащения твердого ископаемого сырья. в ып.43. изд. АН СССР, 1957.
44. Терминология топлива для двигателей внутреннего сгор ания. вып.44. изд. АН СССР, 1957.
45. Терминология деталей машин. Муфты. вып.45. изд. АН СССР, 1958.
46. Терминология теоретической электротехники вып.46. из д. АН СССР, 1958.
47. Терминология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радиоволн. вып.47. изд. А Н СССР, 1957.
48. Терминология светотехники. вып.48. изд. АН СССР, 1957.
49. Терминология реле. Терминолог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 49. Ру сский Англий ский Немецкий Французский вып.49. изд. АН СССР.
50. Поршневые двигатели внутреннего сгорания. Дефекты ра боты двигателей . Терминология. вып.50. изд. АН СССР, 1959.
51. Терминология систем разработки месторождений твердых полезных ископаемых подземным способом. вып.51. изд.

АН СССР, 1959.
52. Основные буквенные обозначения в астрономии. вып.52. и зд. АН СССР, 1959.
52а. Электрические машины. Виды электрических машин. вы п.53. изд. АН СССР, 1960.
53. Диэлектрики. Терминология. вып.54. изд. АН СССР, 1960.
54. Электровакуумные приборы. Режимы, параметры и характ еристики. Терминология. вып.55. изд. АН СССР.
55. Обработка металлов давлением. Операции и переходы ков ки и штамповки. Терминология. АН СССР вып.55. изд. А Н СССР, 1961.
56. Лопастные насосы. Центробежные и осевые. Терминология и буквенные обозначения. вып.56. изд. АН СССР, 1961.
57. Зубчатые колеса, зацепления и передачи с постоянным пе редаточным отношением. Терминология. вып.57. изд. АН СССР, 1962.
58. Гидромеханика. Волновое движение жидкости. Строительн ая механика. Терминология. вып.58. изд. АН СССР, 1962.
59. Терминологического сборника (русские толкования, англи йские, немецкие, французские эквиваленты к русским те рминам, вып.59. изд. АН СССР.
60. Теория надежности в области радиоэлектроники. Термино логия. вып.60. изд. АН СССР, 1962.
61. Обработка металлов давлением. Волочение. Терминологи я. вып.61. изд. АН СССР, 1962.
62.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ые приборы, ч.1. Основные понятия. Тер минология. вып.62. изд. АН СССР, 1962.
63. Гидропривод, ч.1. Гидродинамические передачи. Терминол

огия. Терминологический выпуск №63 АН. Терминологич еский словарь с эквивалентами на англий 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вып.63. (С) Издательство "ЭТС".
64. Теория информации. Терминология. АН СССР. А.А. Харкев ич вып.64. (С) Издательство "ЭТС".
65. Ускорители заряженных частиц. Основные понятия. Терми нология. вып.65. изд. АН СССР, 1963.
66. Гидропривод, ч.2. Объемный гидропривод. Терминология. вып.66. "Наука", 1964.
67. Надежность технических систем и изделий . Основные по нятия. Терминология. вып.67. Изд.стандартов 1964.
68. Теория механизмов. Основные понятия. Терминология. вы п.68. Изд. АН СССР.
69.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ые приборы. Терминология. вып.69. Изд. АН СССР.
70. Терминологический выпуск. Дозиметрия ионизирующих и злучений . Основные понятия. Терминология. вып.70. "На ука".
71. Основные понятия автоматики. Терминология. вып.71. "На ука", 1966.
72. Вычислительная техника. Общие понятия. Цифровые выч ислительные машины. Терминология. вып.72. "Наука".
73. Ускорители заряженных частиц. Терминология. вып.73. "Н аука", 1966.
74. Физическая оптика. Терминология. вып.74. "Наука", 1968.
75. Квантовая электроника. Терминология. (Совм. с Министер ством радио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ССР). вып.75. "Наука", 1968.

76. Дозиметрия ионизирующих излучений . Терминология. вы п.76. "Наука", 1968.
77. Элементы технической кибернетики. (Теория информаци и. Автоматика - Основные понятия. Вычислительная тех ника - Общие понятия. Цифровые вычислительные маши ны. Терминология. вып.77.
78. Электротехнические материалы. Терминология. Изд. АН С ССР.
79. Физическая оптика. Терминология. вып.79. "Наука", 1970.
80. Вычислительная техника. Терминология. вып.80. "Наука", 1970.
81. Терминологического комитета АН (рус., англ., нем., фр.). вып.81. "Наука", 1970.
82. Строительная механика. Терминология. вып.82. "Наука", 1970.
83. Теория теплообмена. Терминология. вып.83. "Наука", 1971.
84. Аналоговая вычислительная техника. Терминология. вы п.84. "Наука", 1972.
85. Термодинамика. Терминология. Под общим научным руко водством акад. В.А. Кириллина. вып.85. Изд. АН СССР, 1973.
86. Терминологический выпуск 86. М., Терминолог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Академии Наук страниц - терминов 64 (на русс ком, англий ском, немецком и французсском языках; расш иренные толкования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ах). вып.86. Изд. АН СССР.
87. Вычислительная техника. Терминология. вып.87. "Наука", 1974.

88. Основы теории подобия и моделирования. Терминология. вып.88. "Наука".
89. Ускорение заряженных частиц. Терминология. вып.89. "Наука", 1977.
90. Теоретическая механика. Терминология. вып.90. "Наука", 1977.
91. Ядерная геофизическая разведка и ядерно-физический анализ. Терминология. вып.91. "Наука", 1978.
92. Прогностика. Терминология. вып.92. "Наука", 1978.
93. Теория механизмов и машин. Терминология. вып.93. "Наука", 1978.
94. Теория передачи информации. Терминология. вып.94. "Наука", 1979.
95. Надежность систем энергетики. Терминология. Терминолог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с эквивалентами на немецком, английском, французском языках вып.95.
96. Теоретическая механика. Буквенные обозначения величин. (приложение - Библиография сборников рекомендуемых терминов Комитета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й терминологии АН СССР за 1962 - 1980 гг). (русск.) вып.96. "Наука", 1980.
97. Термодинамика. Термины и буквенные обозначения величин. вып.97. "Наука", 1980.
98. Гидромеханика. Буквенные обозначения величин. (приложение - Библиография сборников рекомендуемых терминов Комитета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й терминологии АН СССР за 1962 - 1980 гг). вып.98. "Наука", 1980.
99. Теория механизмов и машин. Буквенные обозначения величин. вып.99. "Наука", 1984.

100. Основные понятия магнитной гидродинамики: МГД - ус трой ства и МГД - установки. (рус., англ., нем., фр.) вы п.100. "Наука", 1982.
101. Теория передачи информации. Терминология. Буквенные обозначения величин. вып.101. "Наука", 1984.
102. Теоретическая механика. Терминология. Буквенные обозн ачения величин. Терминологический выпуск № 102. Тер минолог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с эквивалентами на англий ско м, немецком, французском языках вып.102. (С) М.- Изда тельство "ЭТС" и Polyglossum.
103. Термодинамика. Основные понятия. Терминология. Букве нные обозначения величин. вып.103. изд. АН СССР.
104. Квантовая механика. Терминология. вып.104. "Наука", 1985.
105. Квантовая теория твердого тела. Терминология. вып.105. "Наука", 1985.
106. Механические колебания. Основные понятия. Терминолог ия. Буквенные обозначения величин. вып.106. "Наука", 1987.
107. Теория управления. Терминология. вып.107. "Наука", 1990.
108. Гидромеханика. Терминология. Буквенные обозначения в еличин. вып.108. "Наука", 1990.
109. Прогностика. Терминология. вып.109. "Наука", 1990.
110. Физика атомного ядра и элементарных частиц. Терминол огия. вып.110. "Наука", 1989.
111. (제목 미상) вып.111. "Наука".
112. Матрицы и квадратичные формы. Основные понятия. Те

рминология. вып.112. "Наука", 1990.

113. (제목 미상) вып.113.

114. Хроматография. Основные понятия. Терминология. вып.114. 1996.

115. Робототехника. Терминология. вып.115. изд. ИППИ РАН, 2000.

116. (제목 미상) вып.116. изд. ИППИ РАН.

117. Волновое движение жидкости. Терминология. вып.117. изд. ИППИ РАН, 1994.

118. Гироскопия. Терминология. вып.118. изд. ИППИ РАН, 1994.

119. Военные роботы. Терминология. вып.119. изд. КНТ РАН 1995.

<전자 도서류>

1. Надежность технических систем и изделий . Основные понятия. Терминология. "Наука", 1965.
2. Пособие переводчику. ОСНОВНЫЕ ВИДЫ И РАЗДЕЛЫ ТЕХНИЧЕСКОЙ ДОКУМЕНТАЦИИ на русском и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ах, (C) M.- Издательство "ЭТС" и Polyglossum.
3. ОСНОВНЫЕ ВИДЫ И РАЗДЕЛЫ ТЕХНИЧЕСКОЙ ДОКУМЕНТАЦИИ, (C) M.- Издательство "ЭТС" и Polyglossum.
4. Справочно-терминологический немецко-русский русско-нем словарь Модульная координация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C) M.- Издательство "ЭТС" и Polyglossum.
5. Электротехника. Электроника. Теоретическая электротехни

ка. Буквенные обозначения основных величин в электроме ханике. Электрические машины (виды электрических маш ин). Реле. Электровакуумные приборы. Диэлектрики. Терм инология. - Терминологический слова, (С) М.- Издательст во "ЭТС" и Polyglossum.

6. Энергетические системы. Терминолог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русс кий , англий ский , немецкий , французский , (С) М.- Издат ельство "ЭТС" и Polyglossum.

1.4. 프랑스에서의 전문 용어 정비 사업

프랑스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비는 아주 오랫동안 아카데미 프랑세즈에 의해 이루어졌다. 1646년 루이 13세가 창설한 이후 1930년대에 국립 언어 기관들이 설립되기 이전까지 전통과 권위의 유일한 기관이었으며, 역사적으로 볼 때 전문어, 학술어를 다루는 곳 역시 이 기관 외에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1930년대에 와서 전문 용어와 언어 정책에 대한 관심이 동시에 일어났는데, 한편으로는 그때 당시 생겨난 국제, 국내의 산업 기술 표준 기관의 영향과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기술 발전과 교류로 인해 외래어(주로 영어) 유입이 증대된 것이 그 이유라 할 수 있겠다. 산업 기술 표준 기관인 프랑스 표준화 기구(AFNOR)에 의해 주도되는 용어 표준화 작업은 프랑스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해당 분야가 제한되어 있고,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비교적 적다고 생각되므로 본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겠다. 국가 차원의 언어 정책, 전문 용어 정비 사업과 해당 법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4.1. 프랑스의 전문 용어 관련 기관

1.4.1.1. 현대 프랑스 기술 용어 위원회(1933)

국립프랑스어원인 OLF가 설립된 1937년보다 앞선 1933년에 전문 용어 기관인 현대 프랑스 기술 용어 위원회(Commission de la

terminologie technique française moderne)가 창설되었다. 초대 위원장이었던 브뤼아는 다음과 같이 이 기관의 역할을 밝혔다. “지식인, 전문인, 기술자들이 모여 프랑스 기술 용어를 통일하고 또한 불쾌하고 불규칙적인 신어들로부터 자국어를 보호하면서, 산업 발전과 발견에 발맞춰야 한다. [……] 프랑스 산업과 기술자들에게 익숙한 기술 언어가 영어와 독어로 편찬되는 문서를 전부 번역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프랑스는 세계 경제에서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산업 기술 사전을 준비하였으나 1937년 이 기관은 문을 닫는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의 영향과 더불어 영어 어휘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많은 지식인과 학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33] 이때부터 수많은 언어 기관들이 생겨나게 된다. 그 중 학술어 자문 위원회(1952)가 대표적이다. 이 기관은 test 같은 영어 단어를 인정하였지만, 프랑스어 동사의 굴절 어미가 붙은 형태(tester)는 인정하지 않았고, position의 파생 동사 positionner도 불인정으로 심의하였다.

1.4.1.2. 프랑스 기술 용어 연구 위원회(1954)

1950~60년대는 전례 없이 활발히 전문 용어 관련 기구들이 활동을 한 시기이다. 프랑스 학술원(아카데미 프랑세즈) 내에 용어 위원회 설치를 필두로 정부 기관의 지원으로 대부분 이루어진 다른 많

33) “오늘날 차용어들이 우발적이고 아무 원칙 없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과 또 언어를 증진시키는 책임 국가 기관이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Brunot & Bruneau 1949, Depecker 2001: 16 재인용.)

은 단체들이 생겼다. 그 첫 번째 기관이자 50~60년대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한 중요 단체는 1954년 창립되어 현재까지 활동 중인 프랑스 기술 용어 연구 위원회(Comité d'étude des termes techniques français)이다.

피에르 아그롱과 프랑스 가스공사 사장이자 학술어 자문 위원이었던 조르쥬 콩베가 대표로 있으면서, 과학 기술 전문어를 취급하는 여러 사람들과 기관에게 용어 실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하였다. 프랑스 표준화 기구(AFNOR)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전문어의 명시성과 적확성을 부여하고 특히 무분별한 외래어 침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 기관은 스스로 언어의 이민국과 같은 기관임을 자처하면서 수입되는 모든 용어들에 대한 여과기 역할을 하였다.

심의 전 용어	표준 용어	설 명	정착 여부
abstract	analyse / extrait	기존에 있는 불어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	정착
know-how	savoir faire	불어에 알맞은 통사구조 및 의미로 번역 '할 줄 알기'	정착
gas-oil	gazole	영어를 불어식으로 발음할 때 가장 자연스러운 철자로 신조어 만듦.	정착
listing	listage	불어에 알맞은 명사형 접미사 첨가	정착
briefing	breffage	이에 해당하는 동사 breffer도 만듦.	x
ripper	défonceuse	의미 변역	정착

flash	éclair	의미 변역	정착

1.4.1.3. 국제 프랑스어 심의회(CILF)

1968년 국제 프랑스어 심의회(CILF Conseil international de la langue française): 회장 Hubert Joly, La banque des mots(가장 오래된 용어에 대한 잡지, 1971에 제1권 발행), 이 기관은 프랑스의 용어 정책이 정착되는 시발점이 된다. 이 기관이 용어 관련 작업만 한 것은 아니지만, 적은 예산과 소수의 정책 결정자와만 연결되어 있었던 당시 상황에서는 놀랄 만한 결과물들을 내놓았다. 이들은 “항공 우주 사전”, “사진 사전” 등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 시 응급 치료 사전”관 같이 실제 활동 영역의 전문 용어 사전도 만들고 있다.

1.4.2. 정부 부처 용어 위원회(CMT)

그러나 60년대 말까지도 전문 용어 정비에 대한 중요성이 지도층에까지 확산되지는 못했다. 그런데 국제 사회에서 프랑스어의 역할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그 이유를 용어 발전과 생성에 프랑스어가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진단이 용어 정책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전문 용어와 신조어 센터(CTN), 자크 아미요 센터(Centre Jacques Amiot) 등의 창립과 용어론에 대한 대학원 교과목 개설, 그리고 언어 관련 국가 기관에 유수한 언어학 석학(베르나르 케마다, 클로드 아제쥬, 베르나르 세르키

글리니, 샤를르 뮐레르, 앙드레 마르티네 등)을 임용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제도적인 움직임이 모색되었다.

1966년에 프랑스어 보호와 확산을 위한 고등 위원회(Haut Comité pour la défense et l'expansion de la langue française)가 수상(그때 당시 조르쥬 퐁피두)의 지원으로 창설되었다. 과학연구부 장관 갈레의 표현 의하면 그 당시 불어는 연간 3000 단어의 적자를 보고 있었다. 즉, 연간 외국에서 들어오는 단어가 그만큼의 양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재정 지원도 법적 문건도 없었던 상황이었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4년이 흘렀다.

1970년 1월 14일, 그 당시 수상인 피에르 메메르(P. Mesmer)는 각 행정 부처에 용어 위원회(Comité ministérielle de la terminologie)를 구성하도록 명령하고 그 주된 목적은 영어 차용어를 대체하는 것임을 밝힌다. 3년 동안 각 부처 내에 용어 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드디어 1972년 1월 7일 용어 위원회를 제도화하는 법령(72호)이 수상에 의해 발표된다. “일정한 분야를 대상으로 삼아, 그곳의 어휘 공백을 메울 리스트를 작성하는 일과 새로운 현실을 지칭하기 위해서나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차용어를 대신하기 위해 필요한 용어를 제안하는 일”을 목적으로 밝혔다.

용어 위원회는 “행정 법규에 의해 중앙 정부의 모든 부처 내에 필요할 때마다 설치”하는 형식이며, 행정 부처의 대표자, 각 분야의 관련 기업이나 공기관 또는 사기관에 속하는, 해당 분야의 용어를 잘 알고 있는 전문인 등으로 구성된다. 표준화된 용어는 법령으로 발표되고, 그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① 국가 기관에서 정하는 모든 법률, 규정, 명령 등에 표준 용어를 쓴다.
② 행정 부처나 모든 국가 공공 기관에서 나오는 문서, 편지, 산출 결과물 등은 그 성격이 어떠한 것일지라도 표준 용어를 쓴다. 또한 국가나 국가 기관을 대상으로 할 때 표준 용어를 쓴다. 즉, 사립 단체나 기업들도 국가 기관을 대상으로 문서를 작성할 때는 규범을 따라야 한다.
③ 국가나 공공 기관이 참여하는 시장이나 계약에 표준 용어를 써야 한다.
④ 국가의 관리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국립, 공립 기관들이 사용하는 교재, 교육용·연구용 서적에 표준 용어를 써야 한다.

1973년 1월에 프랑스 공영 신문(Journal Officiel)에 방송 통신, 건설(공공사업과 도시계획), 핵, 석유, 항공 기술, 교통 운송 분야의 용어 규범이 발표되었고 이듬해 재정 경제와 전산 분야의 용어가 규범화되었다. 이후, 1975년 1월 보건 분야, 1976년 8월 국방 분야, 1978년 12월 의학 분야의 용어 위원회들이 발표를 하였다. 1970년부터 1973년까지 11개의 용어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하지만, 이후에 그 활동이 뜸해졌는데, 아마도 용어 정리 작업을 모두 일단락 지었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1978년 이후부터 다시금 정비되지 않은 분야와 재정비할 용어를 대상으로 용어 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되었고 1993년 대장정의 결산물인 『공식 용어 사전(dictionnaire des termes officiels)』을 발간

한다. 1993년까지 총 16개 부처의 용어 위원회와 1개의 총괄 용어 위원회를 발족했으며, 각 용어 위원회에서 한 개 이상의 전문 분야의 용어를 두 번 이상씩 개정하였다. 1993년 이후에 용어 정비 사업은 더욱 활기를 띠어 총 29개의 분야에서 용어 정비가 이루어졌다. 용어가 정비될 때마다 언제나 부령으로 발표하였으며, 1993년도 이후의 정비 상황은 다음과 같다. 정비된 모든 용어는 프랑스어 총대표부(Délégation à la langue française et aux langues françaises)의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분야	발표 날짜			
외교	2006/09/16			
농업과 낚시	2004/06/12	2001/12/30		
군사 무기	2003/01/30			
자동차	2006/06/02	2006/04/05	2004/02/15	1999/10/23
생물학	2006/11/23			
화학	2005/09/25	2003/10/08	2001/04/18	
물리화학	2003/06/15			
전자 부품	2002/03/26			
전자메일	2003/06/20			
문화 및 교육	2006/10/26 2006/03/03	2006/09/16 2005/08/30	2006/09/09 1995/01/18	2006/04/05
국방	2005/02/10	2001/04/18		
법	2006/05/13			
경제 재무	2006/10/26 2004/04/24	2006/04/05 2004/03/26	2006/02/12 2001/07/28	2005/01/30 2000/05/12

	1998/08/14	1997/12/02		
설비 및 음반	2006/02/12 1997/12/02	2004/10/22	2004/10/21	2003/06/21
전산학	2006/05/13	2003/02/27	1998/10/10	
정보와 인터넷	2006/04/05 2005/05/20	2006/03/25 2002/12/08	2006/02/12 1999/06/16	2005/12/18 1997/12/02
핵 개발 산업	2005/09/21	2004/06/18	2004/06/16	2000/08/03
수학 물리	2006/03/09			
석유 및 가스	2006/11/25	1999/01/12		
중합	2001/03/01			
보건	2003/06/03			
인문과학	2006/03/04	2005/12/18		
체육	2004/02/15	1997/12/02		
입체화학	2001/04/18			
항공기술	2005/12/31	2005/01/30	2001/04/18	
이동통신	2006/09/09 2004/12/14	2006/04/05 2004/06/14	2006/03/26 2002/03/02	2005/05/05
총칭 영역	2005/03/25			
유럽연합	1999/09/14			

1.5. 캐나다에서의 전문 용어 정비 사업

캐나다와 퀘벡에서 전문 용어의 비약적 발전과 진흥은 강력한 국가 기관의 개입과 언어 정비와 관련하여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완성된 형태의 언어법이라 불리는 “프랑스어 헌장(Charte de la

langue française)"(또는 법 101호)으로만 일궈낸 것은 아니다. 프랑스어가 다시 명실상부한 퀘벡의 언어가 된 데에는 퀘벡의 경제·정치적 운명을 내 손으로 개척해 보겠다는 퀘벡 주민의 자발성이 있었고, 코르베이유(J-C Corbeil)는 이를 '조용한 혁명'을 이끈 '이데올로기적 전환'이라 불렀다. 경제 상황이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캐나다 영어권의 영향이 커져감에 따라 프랑스어가 소수자의 언어가 이에 대한 반동으로 프랑스어 되살리기 운동이 전개되었다.

1.5.1. 프랑스어청(Office de la langue française)과 프랑스어 헌장

1961년 퀘벡 국회법으로 프랑스어청(OLF)이 설립되고 퀘벡에서 프랑스어의 질을 보장하는 역할을 위임받았다. 프랑스어청은 1965년 "퀘벡 프랑스어 말글에 대한 규범"을 출판하고, 이와 동시에 여러 전문 용어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하시오"류의 간행물과 좋은말 캠페인을 계속해서 벌인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방책은 언어적 불안감을 더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낳아 오히려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된다.

1969년 공식어(langue officielle)를 진흥시키는 구체적 법안(법 63호)이 통과되면서 결정적 전환의 계기를 맞는데, 이때부터 프랑스어청은 정치적 기구로서 프랑스어를 직업어(langue de travail)로 정착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적극적인 언어 정책과 전문 용어 정비에 뛰어들게 된다. '기업의 프랑스어화'라는 개념이 이때 생겨난다. 한정된 분야 안에서 의사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선 관찰하고, 어느 지점에 개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꼼꼼한 전략 짜기에 들어

간다.

1973년에 프랑스어청 내부에 용어 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 용어를 표준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1977년 법 101호가 제정되고 나서부터 실질적이고 영향력 있는, 그리고 또한 공식적이고 강제적인 언어 정책들이 실행된다. 프랑스어 헌장은 프랑스어 지위 자체를 모든 공식적 의사소통 상황에 사용되는 언어로 조정하고자 하는데, 프랑스어청과 각 행정 부처 안에 용어 위원회를 두고 그들 스스로 용어를 표준화하도록 하였으며 극도로 정확한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할 전문 용어의 용례를 공시하게 하였다. 상기 법 제 100조항은 프랑스어청이 “언어와 전문 용어의 연구 조사에 대한 퀘벡주의 모든 정치적 행위를 정의하고 지도하며, 프랑스어가 빠른 시간 내에 소통의 언어, 직업어이자, 상업, 비즈니스의 언어가 되게끔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프랑스어청 용어 위원회(CTOLF)가 1978년 설립되었고 그와 동시에 표준화할 용어의 특성과 그 기원, 각 부처 용어 위원회의 임무와 프랑스어청의 제안들을 전파하는 일 등을 발표하였다. 퀘벡의 언어 정책은 언어 전반이 아닌 전문 용어 표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색이다. 하지만, 전문 용어와 일반어 사이의 경계는 모호한 것이고 일반인이 또한 모두 어떤 직업이나 전문 분야의 전문인이기에 그 파급 효과는 컸다. 또한 이 두 경계가 분명한 것이 아니어서 예를 들어 의상이나 식품 분야의 용어를 표준화하였을 때는 이 용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 전체, 즉 대다수의 화자들이 표준 용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프랑스어청 용어 위원회는 처음 6년간 49회의 모임과 10,000건이 넘는 제안서를 프랑스어청에 올렸다.

1.5.2. 기업의 프랑스어화

가장 강력한 용어 정비 사업은 기업 단위에서 이루어졌다. 프랑스어 헌장은 제136조항에 50명 이상의 직원을 갖는 모든 단체는 “프랑스어청에서 발행한 프랑스어증을 소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강제된 것이었으며, 141조항에 “직업어로써 그리고 기업 내의 모든 의사소통의 언어로써 프랑스어를 사용해야 하며, 기업 내부의 모든 문서, 카탈로그나 설명서, 고객이나 납품업체, 일반대중을 상대로 한 모든 소통의 수단, 광고에서 프랑스어 용어를 사용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방대한 사업의 책임자 또한 헌장은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100명 또는 그 이상의 직원을 거느리는 기업은 적어도 6명으로 구성된 프랑스어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제146조항) 이 중 적어도 1/3은 노동자의 대표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프랑스어 위원회는 용어를 프랑스어화 하는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그것이 적용되는 것을 감찰하며 기업 내 프랑스어의 지위가 보장되도록 힘쓰는 임무를 위임받았다.(제150조항) 그래서 기업 내부뿐 아니라 프랑스어청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정비된 용어는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직업인들이 공유하게끔 배포되었다. 이는 영향을 안 받은 분야가 없을 정도로 사상 초유의 전문 용어에 대한 방대한 사업이었다.

하지만, 일단 용어 정비가 이루어지고 프랑스어증을 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용어의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983년 프랑스어 용어의 질과 사용의 지속성을 강화하는 법조항이 더욱 강

화되었으나, 여전히 프랑스어증은 용어 작업의 마침표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기업의 프랑스어 진흥 정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1989년 발표되기도 하였다. 기업이나 노동 단체 단위당 최대 연간 25,000달러를 제공하고 기업이나 노동 단체의 연합이면 그 액수의 두 배를 제공하였다.

1.5.3. 영어권 캐나다의 전문 용어 정책

캐나다의 전문 용어 정책은 공식어, 즉 영어와 프랑스어에 대한 언어 정책과 맞물려 시행되어 왔다. 제도적 이중 언어 체계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번역 문제들에 답하기 위해 캐나다는 번역원이라는 행정 부처를 두었으며, 캐나다의 용어 작업은 번역에 그 모든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번역원은 모든 공식 문서와 전문 용어의 영-프, 프-영 번역을 담당하고 용어 은행(TERMIUM)의 지속적 개발 및 증보, 용어와 용어학 관련 편찬 사업, 용어에 대한 자문 역할과 용어 표준화 사업을 수행한다. TERMIUM은 퀘벡의 용어 은행(BTQ)과 더불어 가장 규모가 큰 용어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이다. 오타와 대학이 개발한 것을 후에 캐나다 정부가 사들인, 1600개의 전문 영역을 망라한 대규모 자료인데, 이것은 BTQ와 달리 유료이다.

1.6. 북한에서의 전문 용어 관련 사업

북한에서는 1949년 2월에 '학술 용어 사정 위원회'가 조직되어 학술 용어들을 사정하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외

의 전문 용어 관련 기관으로는 1964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직속으로 출범한 '국어 사정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산하에 5~7명으로 구성된 분과 위원회와 23개의 전문 분야별 소분과를 두었다.

건설건재용어분과위원회
기계용어분과위원회
농학용어분과위원회
림학용어분과위원회
사회과학용어분과위원회
선박용어분과위원회
수산/해양용어분과위원회
자연과학용어분과위원회
지질/지리용어분과위원회
체육용어분과위원회
운수용어분과위원회
일반용어분과위원회
금속용어분과위원회
광업용어분과위원회
경공업용어분과위원회
문학예술용어분과위원회
상품용어분과위원회
수리용어분과위원회
생물용어분과위원회
전기/체신용어분과위원회
축산/가금용어분과위원회
화학용어분과위원회
의학/약학용어분과위원회

북한의 전문 용어 연구의 특징으로는 사회주의 체제 특성 상 모두가 수령과 국가 주도로 진행된다는 점과 고유어로 된 용어들을 잘 개발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전문 용어를 사정함에 있어 반드시 고유어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외래어 전문 용어 중 세계 공통적인 어휘는 정리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북한에서 출간된 전문 용어 관련 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언어학소사전≫(교육도서출판사, 1971)
≪다듬은 말 묶음≫(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78)
≪어휘교육사전≫1-3(교육과학연구원, 1979)
≪일조과학기술용어사전≫(외문도서출판사, 1980)
≪우리나라에서의 어휘 정리≫(박상훈·리근영·고신숙, 사회과학원출판사, 1986)
≪4개국 생물학용어사전≫(과학기술출판사, 1994)

2. 국내 사례

2.1. 전문용어연구공학센터(KORTERM)

21세기 세종계획 '전문 용어의 정비' 사업은 시기별로 4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도록 계획된 사업이다. 제1단계부터 제3단계는 전문 용어 연구를 전개하기 위한 기초 연구 수행 단계이고 제4단계는 최종 목표 마무리 단계인데, 현재 제3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각 단계의 연구 계획을 제시하고, 각 연도의 전문 용어 정리 현황을 DB 구축 현황과 표준화 현황을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각 단계의 연구 계획

구분	연구 목표	연구 내용
1단계	개발 환경	- 전문 용어 집성(경제학 분야 및 기초과학 분야)

(1998~2000)	구축 및 기본 자료 집성	- 전문 용어 3개국 대응 목록의 작성 - 전문 용어 개발 환경의 정비 및 체계 표준화 - 전문 용어 학문화 및 교육 저변 확대
2단계 (2001~2003)	전문 용어 확대 집성 및 실용화	- 전문 용어 집성(기초과학 분야 및 과학 기술 분야) - 전문 용어 3개국 대응 목록의 작성 - 기초과학 기술 용어 확장 및 관리 - 전문 용어 분야 확대 및 고품질화 - 언어 산업에 의한 응용성 강화 - 고신뢰도 검증 및 보급 - 위의 사업을 위한 KORTERM의 위상 확립을 위한 범부처적 협력
3단계 (2004~2007)	전문 용어 개발 관리의 자동화 기반 조성	- 전문 용어 집성(기술공학 분야) - 과학 기술 용어 확장 및 관리 - 과학 기술 분야 전문 용어 대규모 통합 정보 베이스 완성 - 전문 용어 교육 체계화 완성 - 전문 용어 개발 관리에 필요한 응용 제품 개발
4단계 (2008~)	관리 확장	- 전문 용어의 문화화 - 전문 용어 통합 정보 베이스 보급 - 지속적 전문 용어 확장 관리

② 전문 용어 정리 현황

구분		연구 목표	연구 내용 및 연구 범위
제1단계	1998년	전문 용어 DB 구축	- 경제학 사전을 입력하여 어휘 DB

		(경제학)	와 목록(1만 건)
		전문 용어 표준화 (경제학)	- 경제학 전문가에 의한 전문 용어의 표준화 DB(100개)
	1999년	전문 용어 DB 구축 (경제학, 물리학)	- 경제학 코퍼스(100만 어절) - 경제학 상세 의미 기술(100건) - 경제학 전문 용어의 조어 유형화(1000건) - 물리학 교과서 코퍼스(50만 어절) - 물리학 전문 용어 한-영 목록(1만 건) - 물리학 전문 용어의 구조화(1,000건) - 물리학 전문 용어의 조어 유형화(500건) - 물리학 동사 구조화 문형(100건) - 한-영-일 3개국 대응 물리학 대응 목록(영어 표제어 기준 1만 5천 건)
		전문 용어 표준화 (경제학, 물리학)	- 전문 용어의 용어사(경제학 1,000건, 물리학 300건)
	2000년	전문 용어 DB 구축 (화학)	- 화학 전문 분야 코퍼스(100만 어절) - 화학 한-영 전문 용어 목록(한국어 표제어 기준 1만 5천 건)
		전문 용어 표준화 (물리학, 화학)	- 물리학 전문 용어 조어법 분석(1만 건) - 물리학 전문 용어 표준화 유형화 분

			석(5천 건) - 한-영-일 전문 용어 사전 및 용어집의 입력 및 집성을 통한 한-영-일 3개국 물리학 대응 목록(1만 5천 건) - 화학 한-영-일 3개국 대응 목록(5천 건)
제2단계	2001년	전문 용어 DB 구축 (화학, 생물학)	- 생물학 코퍼스(100만 어절) - 한-영-일 3개국 대응 화학 전문 용어 목록(1만 건: 누적 1만 5천 건) - 한-영-일 3개국 대응 생물학 전문 용어 목록(1만 건: 일본어 대응률 70%) - 화학 및 생물학 전문가에 의한 용어 심의
		전문 용어 표준화 (화학)	- 화학 전문 용어의 표준화를 위한 기반 연구로서의 국어학적 분석(1만 5천 건) - 화학 전문 용어 정보의 국제 표준 형식(MARTIF) DB(1만 5천 건)
	2002년	전문 용어 DB 구축 (생물학, 의학)	- 의학 코퍼스(100만 어절) - 한-영-일 3개국 대응 생물학 전문 용어 목록 (5천 건: 누적 1만 5천 건) - 한-영-일 3개국 대응 의학 전문 용어 목록(1만 5천 건: 일본어 대응률 70%) - 생물학 및 의학 전문가에 의한 용어 심의
		전문 용어 표준화 (생물학)	- 생물학 전문 용어의 표준화를 위한 기반 연구로서의 국어학적 분석(1만 5천 건) - 생물학 전문 용어 정보의 국제 표준

			형식(MARTIF) DB(1만 5천 건)
	2003년	전문 용어 DB 구축 (수학, 전산학)	- 수학 코퍼스(100만 어절) - 한-영-일 3개국 대응 수학 전문 용어 목록(1만 건: 일본어 대응률 70%) - 한-영-일 3개국 대응 전산학 전문 용어 목록(1만 건: 일본어 대응률 70%) - 수학 전문가에 의한 용어 심의
		전문 용어 표준화 (의학)	- 의학 전문 용어의 표준화를 위한 기반 연구로서의 국어학적 분석(1만 5천 건) - 의학 전문 용어 정보의 국제 표준 형식(MARTIF) DB(1만 5천 건)
제3단계	2004년	전문 용어 DB 구축 (전산학, 전자전기공학)	- 한-영-일 3개국 대응 전산학 전문 용어 목록 (1만 건: 누적 2만 건, 일본어 대응률 50%) - 한-영-일 3개국 대응 전자전기공학 전문 용어 목록(1만 5천 건: 일본어 대응률 50%) - 전산 및 전자전기공학 전문가에 의한 용어 심의
		전문 용어 표준화 (수학)	- 수학 전문 용어의 표준화를 위한 기반 연구로서의 국어학적 분석(1만 건) - 수학 전문 용어 정보의 국제 표준 형식(MARTIF) DB(1만 건)
	2005년	전문 용어 DB 구축 (기술공학)	- 기계공학 용어 한-영 대응 목록(1만 건: 누적 1만 5천 건) - 산업공학 용어 한-영 대응 목록(5천 건) - 화학공학 용어 한-영 대응 목록(1

			만 건) - 재료공학 용어 한-영 대응 목록(5천 건) - 환경공학 용어 한-영 대응 목록(5천 건) - 건축공학 용어 한-영 대응 목록(5천 건) - 토목공학 용어 한-영 대응 목록(5천 건)
		전문 용어 표준화 (전산학, 전자전기공학)	- 전산학 및 전자전기공학 전문 용어 한-영-일 3개국 대역어 목록의 한국어 표제어에 대한 국어학적 분석(3만 5천 건) - 전산학 및 전자전기공학 전문 용어 정보의 국제 표준 형식 DB(3만 5천 건)

2.2. 한국학술단체연합회

한국학술단체연합회(이하 학단연)은 2003년 12월부터 학술 전문 용어 정비 및 표준화 사업을 해 오고 있다. 각 학회별로 용어를 정비하고 심의를 거치며 학단연 원리 위원회가 심의를 거친 용어를 다시금 검토하여 용어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한다. 또한 원리 위원회 내부에서 전문 용어에 적절한 맞춤법 및 용어 조어의 원칙을 연구하고 이를 교육 및 배포하고자 한다. 실제 용어 정비는 1차 사업의 18개 분야에서 일단락 지어 졌고, 2차로 11개 분야, 3차의 29개 분야가 현재 동시에 용어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1차 정비 완

료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인문사회과학 분야: 언어, 문학, 철학, 역사, 심리(5 분야)
② 물성과학 분야: 수학, 물리, 화학, 금속재료, 전기, 전자, 자동차, 가정학(8 분야)
③ 생명과학 분야: 생물, 수의학, 간호학, 한의학(4 분야)
④ 예체능 분야: 미술(1 분야)

2차 용어 사업은 다음과 같은 분야가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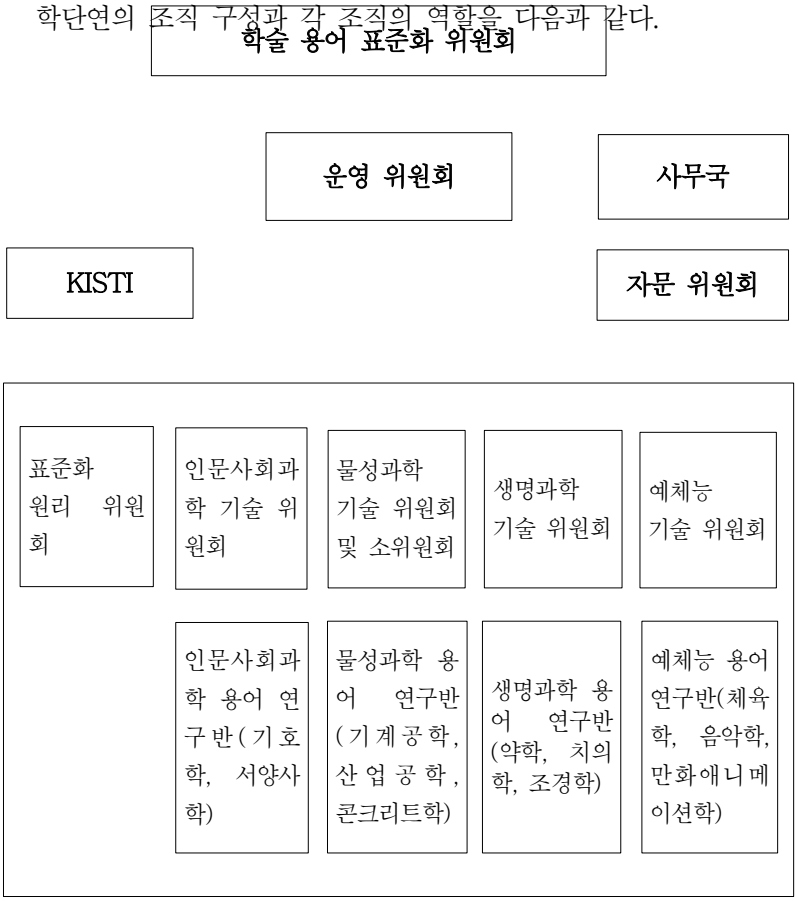
① 인문사회과학 분야: 기호학, 서양사학(2 분야)
② 물성과학 분야: 기계공학, 산업공학, 콘크리트학(3 분야)
③ 생명과학 분야: 약학, 치의학, 조경학(3 분야)
④ 예체능 분야: 체육학, 음악학, 만화애니메이션학(3 분야)

3차 용어 사업 참여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인문사회과학 분야: 동양사, 종교학, 고고학, 정치외교학, 경제학, 무역학, 경영학, 사회학, 지리학, 교육학, 법학, 행정학, 신문방송학, 인지과학(14 분야)
② 자연과학 분야: 지질학, 천문학, 대기과학, 해양학, 농림학, 수산학, 과학기술학(7 분야)
③ 공학 분야: 자원공학, 컴퓨터공학, 건축공학, 항공우주공학(4 분야)
④ 생명과학 분야: 의학(1 분야)
⑤ 예체능 분야: 무용학, 연극/영화(2 분야)

2.2.1. 조직의 구성과 역할

학단연의 조직 구성과 각 조직의 역할을 다음과 같다.



2.2.2. 각 위원회의 역할

각 위원회와 조직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표준화 위원회

1. 표준 및 규정 심의, 의결
2. 임원 선출(각 위원의 임기는 2년)
3. 전체 사업 관장
4. 표준화 안건 심의 의결
5. 표준화 용어 활용 방안 검토

나. 운영 위원회

1. 표준화 기본 계획 수립, 쟁점 도출
2. 표준화 안건 상정, 용어 위원회 및 연구반 활동 지원
3. 표준화 위원회 운영 제반 사항
4. 용어 표준 기초 기술 연구 개발
5. 국제적 표준과의 관련
6. 국내외 용어 관련 기관과의 협조

다. 사무국

1. 사업 운영 지원
2. 보고서 발간
3. 사업 진행 점검

4. 사업 진행 지원

라. 표준화 원리 위원회

1. 학술 용어의 문제점의 발견 및 이의 정리(기술 위원회에 보고)
2. 학술 용어 표준화의 원리와 방법 제정
3. 학술 용어의 표기(한글 맞춤법, 로마자 표기, 외래어 표기 등)에 대한 표준안 제정
4. 학술 용어 표준화를 위한 국어학적 원칙 제공(조어법 등)
5. 학술 용어의 정보 자료화를 위한 입력 구조 및 각종 문서 양식의 표준화 제정
6. 표준화된 학술 용어의 보급을 위한 웹페이지 구성과 그 운영
7. 과학 기술 정보 연구원과 협조 체제 관리

마. 분야별 기술 위원회

1. 해당 기술 위원회의 표준화 방향성 정립
2. 해당 기술 위원회의 표준화 업무 처리
3. 소속 분야의 연구반 운영
4. 표준안 검토
5. 분야별 연구반 구성

바. 연구반*

1. 표준화 과제의 실무적 추진

2. 분야별 용어 수집 및 정리
3. 표준 초안 작성
4. (*) 기술 위원회 분야와 같을 수도 있고, 기술 위원회 안에 둘 수도 있다.

사. 자문 위원회
1. 용어 연구반 및 기술 위원회의 용어 제정, 심의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성할 수 있다.

아. 협조 및 관련 기관 - 한국 과학 기술 정보 연구원(KISTI)
1. 용어 표준화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지원
2. 용어 자료 기반 설계
3. 연구반에서 생산한 용어 정보 자료화

2.2.3. 학술 용어의 수집, 정비 및 표준화 과정

학술 용어의 수집, 정리 및 표준화 작업은 각 학회의 학술 용어 정비 경험 및 조직 구성에 따라서 다르게 시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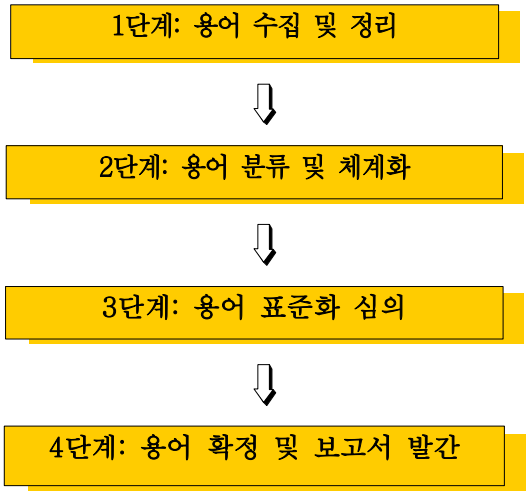
2.2.3.1. 용어 수집 및 정비 1차 작업

용어 수집은 각 기술 위원회에 속한 학문 분야별 연구반이 일차적으로 수행한다. 각 연구반에서 수행하는 용어 수집 및 정리 방법은 각 연구반의 경험과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2.2.3.2. 표준화 작업

분야별 기술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차적인 표준화 작업을 한다. 제1차 사업에서 얻은 경험과 방법과 자료를 활용한다. 자문 위원회도 참여한다. 표준화 원리 위원회가 이차 작업을 한다. 표준화 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용어 수집 및 표준화 작업의 흐름도>



앞서서 학단연의 용어 데이터베이스 파일 형식을 살펴보았다. 아래는 학단연이 제시하는 표기 및 어문 규정에 대한 지침서이다.

(1) 표기 원칙

① 학술 용어는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숫자나 영문자, 기호 등의 표기도 허용한다. 관용 표기의 허용 범위는 각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되, 각 분야를 통합하여 검토할 때, 통일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후에 조정하도록 한다.

설명: 모든 학술 용어는 한글로 표기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학술 용어 목록에 간혹 숫자나 영문자, 기호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pH 미터, U자관, X선 회절법, 고리형 AMP, 아세틸 CoA, 야누스 그린 B, 5탄당, 2가 염색체, FSH-RH, ZO형’ 등. 그렇지만 이러한 숫자나 영문자,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모두 우리말로 읽어 한글로만 제시하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를 허용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 다수이어서 이를 따르도록 하였다. 그 허용 범위는 각 분야에서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② 관용적으로 영문 등 다른 문자나 기호로 표기하는 학술 용어도 허용하기로 한다.

설명: 한글로만 표기하는 원칙을 세우기는 했지만 분야에 따라서는 관용적으로 영문자나 숫자, 기호를 포함하여 표기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한 원칙이다. 한글 표기를 검색어 필드와 표제어 필드에 제시하고 다른 문자나 기호를 사용한 표기를 관용 표기 필드에 제시함으로써 한글 이외에 다른 문자나 기호가 들어간 표기를 사용하기도 함을 보인다.

(2) 어문 규정 준수

① 한글 표기는 국어의 어문 규정을 준수한다. 이를 위해 국립국어원에서 간행한 표준국어대사전을 따른다.

설명: 국어에는 표기에 관한 규정이 있어 이를 어문 규정이라 한다. 어문 규정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네 종류가 있다. 이 중에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학술 용어와는 큰 관련이 없고 나머지 세 종류만 학술 용어의 표기에 관련된다. 이 규정은 전체 국민이 지키도록 권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술 용어의 한글 표기를 정함에 있어서도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어문 규정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가 용어 표기를 정하기는 어렵다. 규정의 내용 중에는 국어 전문가만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 간행한 표준국어대사전을 따르도록 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은 1999년에 국립국어원에서 간행한 것으로 어문 규정을 반영한 사전으로 각종 전문어도 포함되어 있어 전문어에 관한 표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전은 www.korean.go.kr에서 인터넷으로 서비스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사전을 사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학술 용어에서 자주 표기를 잘못하는 사례가 생기는 규정으로 그 규정의 내용을 국어 전문가가 아니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세부 원칙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리해야 한다.

② 규정에 따른 표기가 쉽게 결정이 되기 어려우면 국립국어원의 자문을 받아서 표기를 정한다.

설명: 어문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편찬된 사전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새로운 문제들이 발견된다. 특히 다른 언어로부터 들어온 말인 외래어의 표기에서 새로 문제가 되는 예들이 많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국립국어원의 자문을 받는 것으로 하였다. 국어에서 어문 규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임무는 국립국어원에서 담당한다. 따라서 표기에서 새로 문제가 제기되는 용어는 국립국어원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연구원에서는 기존의 사례를 검토하여 결정을 내리거나 쉽게 결정하기 못할 사항은 심의회 등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어떤 과정을 거치든 최종 결정은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하게 되고 한 번 발표된 사항은 그후에도 계속 적용되므로 국립국어원의 협조를 거치는 것이 앞으로 학술 용어의 정착을 위해 바람직하다.

(3) 기호의 사용

① 숫자

- 한글 표기가 완전히 동일하지만 별개로 구분해야 하는 용어가 있을 때에도 숫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설명: 소위 말하는 동철이의어(同綴異義語)에 관한 규정이다. 즉 표기는 동일하지만 뜻은 다른 용어에 대한 표기 원

칙이다. 예를 들어 '局部(locality)'와 '國富(national wealth)'는 한글로 적을 때는 모두 '국부'로 적는다. 이러한 동철이의어의 구분을 일반 사전처럼 한글 표기 뒤에 숫자를 붙여 구분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영문자로 구분이 될 수 있으니, 숫자를 표기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이었다.

② ( )

- 용어 중에서 일부가 생략되어 사용되어도 의미상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때 생략될 수 있는 성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설명: ( ) 부분을 빼도 의미가 바뀌지 않음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와 관련이 되는 기호로 대체 용어를 제시하는 것을 쓰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 ]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나 대체 용어를 따로 제시하는 것이 좋은지 같이 제시하는 것이 좋은지 결정을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남긴다.

- 생략되는 부분만 ( )로 표시한다.

설명: 이것은 ( )의 사용법에 대한 원칙이다. 대체로 혼란이 없지만 분명하게 밝혀 두는 게 좋을 듯해서 원칙으로 세운 것이다. ( )는 '대칭(도)형'의 예처럼 하나의 독립된 단위가 되는가의 구분 없이 생략될 수 있는 부분, 즉 '도'에만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 검색어 필드에서는 ( )가 있는 형태와 없는 형태 중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쪽 하나만 제시하고, 표제어 필드에서만 (

)을 사용하여 제시한다.

설명: 검색어 필드에 기호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표적인 형태 하나만 제시하고 표제어 필드에서만 병용되는 형태를 함께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③ -

- 대등하게 나열되는 두 말의 경계를 표시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설명: '-'는 기존 용어에서 자주 사용된다. '하디-바인베르크 법칙', '트랜스-레틴알(trans-retinal)', '포도당-6-인산(glucose-6-phosphate)', '게이 뤼삭의 법칙(Gay-Lussac's law)', '엔 피 엔(n-p-n)형 트랜지스터(n-p-n transistor)' 등. 대등하게 나열되는 말의 범위는 앞으로 정해야 한다.

- 독자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어와 붙어서만 사용될 수 있는 용어를 표시한다.

설명: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다른 용어와 붙어서만 사용될 수 있는 용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원칙을 제시하였다. 항상 다른 용어와만 붙어서 사용될 수 있는 의존적인 성분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두 말의 경계를 표시하고자 할 때는 구분되는 용어 중간에, 다른 용어와 붙어서만 사용될 수 있는 용어에서는 붙는 위치에 표시한다.

설명: '-'을 어느 위치에서 사용할 것인가를 정한 것이다. 대

등하게 나열되는 두 단어에 사용할 때는 당연히 둘 사이를 구분하는 위치에 넣어야 한다. 그리고 의존적으로 사용될 때는 해당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즉 다른 말의 뒤에 붙을 때는 앞에 '-'을 표시하고, 다른 말이 뒤따라야 하는 때는 뒤에 '-'을 표시한다.

- 검색어 필드에서는 -이 없는 것을 제시하고, 표제어 필드에서는 -을 사용하여 제시한다.

설명: 검색어 필드에 기호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표제어 필드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4) 띄어쓰기

① 모든 학술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서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설명: 띄어쓰기는 쉽게 원칙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매우 많은 문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글 맞춤법 제50항에 따르면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을 그대로 따라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렇지만 단어별로 띄어 쓴다 해도 영 어색한 사례가 생길 수 있다. 이를 위해 일부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띄어쓰기에 관한 세부 지침은 앞으로 정리해 나가야 한다.

2.3. 각 학회별 전문 용어 정리 작업

2.3.1.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용어 정리 원칙

2.3.1.1. 전반적 원칙

(1) 대한의사협회 원칙

① 알파벳순으로 정리한다.

② 한 개념에 한 용어로 통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완전히 다른 뜻으로 사용될 때는 중복 사용을 허용한다.

③ 모든 용어는 짧고 간단하게 정리한다.

④ 용어는 일차적으로 기억하기 쉬워야 하나 정확한 뜻을 담고 있어야 한다.

⑤ 조합된 한 용어는 하나로 붙여서 사용한다(예: 의학 용어 → 의학용어).

⑥ 어느 나라 말에도 상관없이 인명 용어는 Dorland 의학사전 최신판의 발음 부호에 따라 한글로 표기한다.

⑦ 위 (6)항 이외의 외래어 표기는 외래어 표기 원칙(문교부 고시 제85-11호)에 따른다.

⑧ 우리나라 말과 한자어가 같이 사용되는 경우 가능한 한 순 우리말을 선택한다. 그러나 낮춤말이나 비어가 되면 한자말을 선택한다.

(2)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학술 용어 및 진단명 제정 위원회 원칙

① 가능하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꾼다.

② 상식적인 것을 중시한다.

③ 이전 용어 제정 위원회 용어를 근거로 한다.

④ 순수 정신과 용어가 아닌 것은 해당 전문가의 의견에 따른다.
⑤ 선택된 용어집을 전국 수련병원에 배부하여 검토한다.

2.3.1.2. 올림말 작업 원칙

(1) 올림말 작업은 2원화하여 작업한다. 즉 현재 의학협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올림말 작업은 기존의 한글교과서(민성길 1996 ; 이정균 1994), comprehensive(6th ed) 및 DSM-Ⅳ, ICD-10의 index를 기준으로 하여 하고 DSM-Ⅳ와 ICD-10은 진단명을 포함시키는 데 사용한다. 이 외에 앞으로의 지속적인 작업을 위하여 위의 책 이외에 Talbott(2nd ed), psychiatric dictionary(cambpell, 7th ed) 등에 기재되어 있는 단어까지 올려서 올림말 작업을 한다.
(2) 올림말 작업의 최종 결정은 전체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3) 폐기간어 선정 기준은 상기 참고 문헌에 존재하지 않고 최신판 Dorland 사전에 없는 것을 폐기한다. 또한 오래되어 사용되지 않는 단어나 오래된 개념의 단어는 위원의 재량에 따라 폐기한다. 작업은 대한의사협회의 작업 지침에 준하여 실시한다.
(4) 정신과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거나 오래되어 사용치 않는 단어 등은 과감히 폐기한다.
(5) 신규 단어 선정
① 중심 단어와 이와 연관되는 파생어 표기는 중심 단어를 중심으로 파생어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schizophrenia가 중심 단어가 되는 경우 이에 대한 파생어 예

를 들어 schizophrenia, latent로 표기한다.

② 다른 과에서 주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라도 comprehensive에 올라 있는 단어는 전부 선택하여 올린다.

③ 인명, 약물은 올리지 않으나 인명이 들어간 검사나 질병명 등을 올리고 comprehensive에 나오는 검사명은 위원의 재량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약어의 경우(예를 들어 MRI), 흔히 사용되는 것일 경우는 약어 자체를 한단어로 올리로 '='를 이용하여 표기한다.

예) MRI = Magnetic Resonance Imaging

④ 기타 단어의 표기 문제는 comprehensive의 표기 방법에 준한다.

⑤ 신규 단어 등록 시 정신과 용어이면서 정신과 용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다른과 용어로 등재되어 있는 단어들이 있으므로 의학협회 의학용어집 제3판의 자신이 담당한 부분에서 이런 용어를 찾아내어 등재시킨다.

2.3.1.3. 우리말 작업 원칙

(1) 우리말 작업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1차 올림말 작업 후에 이들에 대한 한글화 작업은 기존의 용어집 및 모든 한글교과서, 진단기준집, 정신의학사전 및 남북한 의학용어집, 한글학회 발간 한글사전, 의학사전 등을 중심으로 모든 사용 가능한 한글 표기를 종합하여 취합한 후 각 위원이 소그룹으로 나누어 토의하여 적절한 것을 선정하고 나

서, 최종 선택은 용어 제정 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② 기초학회에 관한 용어는 기존 기초학회에서 마련한 한글 표기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③ 접두사와 접미사의 경우는 일반 원칙을 두고 예외 규정을 두어 사용토록 한다.

④ 인명은 Dorland 사전의 발음에 따라 외래어 표기 원칙에 따라 표기한다.

⑤ 복합 단어의 경우 의미를 존중해서 한글화한다.

⑥ 한 단어가 여러 뜻으로 사용될 경우 정신과적 용어만 표기한다.

(2) 한글화 작업 세부 원칙

① 진단명에 대한 결정: 기존의 진단명 뒤에 진단의 경우는 영문 표기에 상관없이 '병'으로 부치고 증상의 경우에는 '증'을 사용한다. 단 발달장애나 인격장애와 같이 일생 동안 지속되는 문제는 '장애'를 사용한다. 또한 앞으로 이런 의견을 용어 제정 위원회 이름으로 학회 news letter 등에 내어 의견을 듣고 환기시켜 나간다. 그러나 기존에 널리 사용되어 바꾸면 이상하거나 언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기존의 진단명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예: mania - 조증 ; 증상 및 진단에 공통 사용).

② 가능한 한, 한 용어에 한 가지 우리말 용어만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어려움 때문에 몇 가지가 사용될 경우 모두 명기하며, 복합 단어가 되는 경우는 < >로 표시한다.

예) psychiatry 정신의학, 정신과학
geropsychiatry 노인 정신의학<과학>

③ 때에 따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글자는 ( ) 안에 넣는다.
예) affective temperament 정동(성) 기질(전체 문맥에 따라 정동 기질, 또는 정동성 기질로 쓸 수 있음.)

④ 서로 다른 별개의 의미로 쓰일 때는 1., 2.로 구분하여 쓴다.
예) abstinence 1. 금단(약물) 2. 중단(일반적 사용)

⑤ 접두어의 일반 원칙은 다음과 같다.
hyper-- → 과다--, hypo-- → 과소--, dys-- → 곤란--, a-- → 불능--, over-- → 과--, under-- → 저--, sub-- → 준--

⑥ 유사 개념 및 주요 논의 단어
- --niform --양, like disorder 유사장애, spectrum disorder 범주장애, --zoid --성
- abstinence 1. 금단(약물) 2. 중단(일반적 사용)
  cf. withdrawal 1. 철퇴(정신) 2. 금단(약물)
- behavior 1. 행동(일반적 사용) 2. 행태(진단적 사용)
  cf. activity 1. 활동(일반적 사용) 2. 활성(도)(약리)
- action 1. 행위(일반적 사용) 2. 작용(약리), movement 운동
- amnesia 기억상실(증), paramnesia 기억착오(증), forgetfulness 잊어버림
- disorder 장애
  cf. disturbance, disability 장해, disease (질)병, illness 질환

- dysthymia 기분저하증(병)
  cf. minor depression 경우울병, mild depression 경도 우울병
- eating 먹기, 식이
  cf. feeding 먹이기, binge 폭식, bulimia 대식증
- emotion 감정
  cf. affect 정동, mood 기분, feeling 느낌
- fear 두려움, phobia 공포(증)
- fit 간질발작, spell, seizure, attack, paroxysm 발작, convulsion 경련, epilepsy 간질
- idea, ideation 관념, thinking 생각, thought 사고
- intoxication 중독, addiction 탐닉
- mechanism 기제(역동), 기전(생물학적)
- odd 괴상함, bizzare 괴이한, grotesque 기괴
- personality disorder (-성, -적) 인격장애(되도록 '-성'으로 표시), antisocial 반사회성, asocial 비사회성, dissocial 사회곤란성
- phase 상, cycle 주기, stage 단계, period 기간, (시)기
- positive ve negative 양성 vs 음성(증상일 때만), 긍정적 vs 부정적
- pre- --이전기, pre-oedipal period 에디푸스 이전기
- psychiatry 정신의학, 정신과학
- real self 실제(적) 자기, realistic anxiety 실제(적) 불안
- recall 회상, recollection 재수집, retrieval 재생

- recognition 인식, cognition 인지
- relation 관계, relationship 관계성, elatedness 관계(성)
  cf. related 관련된, association 1. 연관 2. 연상
- remission 관해, recovery 회복, improve 호전, subside 완화, cure 완치
- restraint 구속, inhibition 억제, repression 억압
- sex 성, sexuality 성성, gender 획득성
- sorting 추리기, classification 분류
- span 폭
  cf. attention span 주의폭, apprehension span 이해폭, life span 생명폭
- speech 말(하기), language 언어, verbal 언어성
- spirit 영, mental 정신
- strategy 전략, tactics 전술
- subconscious 잠재의식, subvigilance syndrome 준경각(성) 증후군, subwakefulness syndrome 준각성 증후군
- trait 성향, trend 추세, 동향, characteristic 특징, tendency 경향
- typical 정형(의), classic 전형(의)
- ventilation 1. 호흡 2. 환기(심리)

2.3.2. 한국물리학회의 용어 정리 원칙

다음은 한국물리학회가 《물리학 용어집》(1995)에서 제시한 용

어 정리의 원칙이다.

2.3.2.1. 전반적 원칙

① 자료는 모두 전산화한다.
② 물리학의 발전에 따라 생겨난 새로운 용어를 최대한 수용한다.
③ 일상 용어는 수록하지 않는다.
④ 로마자도 한글로 표기한다.
⑤ 용어의 분야 표시는 하지 않는다.
⑥ 무리적 내용에 충실한 풀이를 고른다.
⑦ 될 수 있으면 토박이말을 용어로 사용한다.
⑧ 북한에서 쓰이는 용어, 교육부 편수 자료 및 인접 학문 분야의 용어를 참조한다.
⑨ 외래어 표기는 교육부에서 제정한 기준을 따른다.
⑩ 복합어는 될 수 있으면 토박이말은 토박이말끼리, 한자어는 한자어끼리 짝을 짓는다.
⑪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글 용어에도 붙임표(-)를 사용한다.
⑫ 한자는 표시하지 않는다.(한자가 표시된 전산 자료는 따로 보관한다.)

2.3.2.2. 일러두기

(1) 표제어
① 영한편에서는 ABC, 한영편에서는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다.

② 영문 약어는 생략되지 않은 용어를 화살표(→)로 표시하였다.
예) AC → alternating current

③ 한영편에서 외래어 표기는 교육부에서 제정한 기준을 따랐으며, 로마자도 한글로 표기하였다.
예) 엑스선 X-ray

(2) 풀이

① 외래어 표기는 교육부에서 제정한 기준을 따랐다.

② 한 표제어에 뜻이나 쓰임새가 다른 풀이 용어가 둘 이상이 있을 때에는 (1), (2) 등으로 표시하였다.
예) spin (1) 스핀, (2) 회전

③ 뜻이 같은 둘 이상의 풀이 용어가 있으면 쉼표(,)로 구분하였으며, 본 위원회가 추천하는 용어를 앞에 놓았다.
예) conjugate 켤레, 공액

④ 현재 쓰고 있으나 앞으로는 쓰지 않기를 권하는 것은 별표(*)로 표시하였다.
예) diffraction 에돌이, * 회절

⑤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영문 용어의 경우는 ( )로, 한글 용어의 경우에는 < >로 표기하였다.
예) vapo(u)r 김, 증기
simulation 시늉<내기>

⑥ 용어의 보충 설명은 [ ]로 표기하였다.
예) tesla 테슬라[단위]

2.3.3. 대한화학회의 전문 용어 정리 원칙

다음은 ≪화학술어집≫(1994)에서 추출한 용어 정리 원칙이다.[34]

2.3.3.1. 전반적 원칙

① 외래어 표시법은 문교부에서 제정한 것을 따른다.
② 한자어는 표준어의 한자음을 쓴다.
③ 한자 술어는 널리 쓰이는 것 외에는 되도록 우리말로 고쳐 쓴다.
④ 신어는 적당한 우리말이 없을 경우 원어를 사용하되, 제한한다.
⑤ 외래어는 우리말로 고쳐 쓴다.
⑥ 어려운 한자 술어는 쉬운 말로 고쳐 쓴다.
⑦ 원소명을 우선 결정하고 화합물명을 제정하기로 한다.

2.3.3.2. 제정 원칙의 배경

상기 제정 원칙은 1963년 4월 17일에 있었던 제11회 연회에서 심의 확정을 보아 기초 자료의 수집을 서둘러 동년 9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게 되었다. 때마침 문교부에서도 편수국 주관하에 교과서 편찬에 필요한 과학 술어 제정에 착수하게 되어, 이 안의 작성을 화학회가 위임받기로 합의를 보게 되었다. 그 후 동년

34) ≪화학술어집≫(제4개정 / 증보판), 대한화학회(1994).

10월 19일에 이르기까지 전후 11차의 심의회를 거쳐 10월 19일 제11차 회의에서 원소명, 일반 술어, 무기화합물 명명법 및 유기화합물 명명법 최종안의 심의를 완료, 동년 10월 1일 제12차 연회에서 총회에 보고, 확정을 보아 『화학과 공업의 진보』 제3권 4호에 게재되었다. 그러나 이 1차 안은 원소명을 제외하면 불과 400단어밖에는 수록되지 못하여 시급한 확충 보완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1964년 4월 11일에 있었던 위원회에서 간사장으로 취임한 최○○ 박사의 후임으로 최○○ 박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다음의 6명의 분과 책임자를 선출 제정 대상 술어의 선정과 그 안을 제출토록 위촉하였다.

일반화학 성○○, 분석화학 박○○, 유기화학 장○○
물리화학 장○○, 무기화학 최○○, 생물화학 김○○

동년 7월 18일에 있었던 전체 회의에서는 일차적인 시안 작성을 분과별 전문 위원회에서 작성케 하고, 이 안을 분과 위원장 회의에서 심의한 후 심의 위원회에 제출케 하기로 의결하고, 동 27일에 전문 분과 합동 회의를 열어 1963년 10월 8일에 결정된 심의 원칙을 그대로 따르기로 합의를 보아 분과별 심의가 시작되었다. 동년 8월 말까지 각 분과 위원회 안이 성안되었으므로 동년 9월 초부터 다음 해(1965) 2월 말에 이르기까지 전후 10여 차에 걸친 분과 위원자 회의와 한국물리학회와의 합동 회의를 동하여 5,000여 단어에 이르는 최종안을 마무리 짓고, 무기화합물 명명법에 대한 개정안을 우선 『화학과 공업의 진보』 제4권 4호에 발표하고, 이어서 동제

제5권 1호(1965년 3월)에 제정한 전체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만 2년여에 걸친 일차 술어 제정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1965년 10월 22일 평의원회에서 지금까지 임시 기구이었던 화학술어 제정 심의회를 항구적인 기구로 바꾸고, 그 명칭도 화학 술어 제정 위원회로 변경하였다. 1966년 사업으로는 화학과 관계되는 외국 인명의 우리말 표기법을 제정키로 하고 수차에 걸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안이 『화학과 공업의 진보』 제6권 4호(1966년 12월)에 발표되었다. 1972년 과학기술처의 위촉을 받아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가 착수한 기초화학 술어 제정 사업에 본 학회도 참여키로 하고, 1965년에 제정되었던 술어의 재검토 수정 및 보완을 하기로 하여 약 6,600여 단어를 심의·확정, 과총 과학 기술 용어 제정 심의 위원회에 제출하고, 기초과학 술어 분과 위원회에 본 학회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최○○ 부회장과 장○○ 화학술어제정위원장을 파견하였다. 이 안은 이듬해인 1973년 술어 제정 심의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확정을 보게 되었다. 개정 및 새로 제정된 술어는 『화학과 공업의 진보』 제13권 6호 및 제14권 1호에 발표되었다.

한편 간단한 기본 원칙만이 제정되어 있던 화합물 명명법도 IUPAC 명명법을 토대로 하여 유기화합물 명명법의 탄화수소 및 기본 헤테로고리 명명법이 과거 『화학과 공업의 진보』 제9권 2호 및 3호에 발표 되었던 시안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1972년 12월에 확정을 보았고, 무기화합물 명명법은 무기화학 분과 위원회의 안대로 확정을 보았다.

Ⅲ. 전문 용어 사례 분석

1. 전문 용어와 어문 규정[35)]

1.1. 한글 맞춤법

1.1.1. 두음 법칙

전문 용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음 법칙이 적용될 수 있다.

① 아래의 한자음이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한자음	표기	예
녀, 뇨, 뉴, 니	여, 요, 유, 이	여성(女性), 요소(尿素)
랴, 려, 례, 료, 류, 리	야, 여, 예, 요, 유, 이	양심(良心), 용궁(龍宮)
라, 래, 로, 뢰, 루, 르	나, 내, 노, 뇌, 누, 느	낙원(樂園), 뇌성(雷聲)

② 단어 첫머리 이외에서는 본음대로 적는다.

남녀(男女), 당뇨(糖尿), 개량(改良), 와룡(臥龍), 쾌락(快樂), 낙뢰(落雷)

---

35) 제3장 제1절, 제2절의 어문 규정 및 외래어 표기법과 관련한 부분은 한국학술단체연합회 표준화 원리위원회의 내부 회의 및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예외 1) 단어 첫머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말과 합쳐서 쓰면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신여성(新女性): '여성'에 '신'이 합쳐진 예
대한요소비료회사(大韓尿素肥料會社): '요소'가 다른 말들과 합쳐진 예
※ '미립자(微粒子),' '소립자(素粒子)'는 사람들의 발음 습관을 따라 예외적으로 '미입자, 소입자'로 적지 않고 '미립자, 소립자'로 적는다.

예외 2) 한 글자로 된 한자어는 앞의 말이 고유어나 외래어인 경우와 한자어인 경우를 구분하여 달리 적기도 한다.

노동량(勞動量)/구름양(-量): '량(量)'은 한자어(예 '勞動') 뒤에서는 '량'으로 적고 고유어(예 '구름') 뒤에서는 '양'으로 적는다.
투고란(投稿欄)/어머니난, 가십(gossip)난
※ '태릉, 서오릉' 등에서는 '릉(陵)'으로 적는다.

③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

나열(O)/나렬(X): 모음 뒤에 이어지는 '렬'
분열(O)/분렬(X):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실패율(O)/실패률(X): 모음 뒤에 이어지는 '률'
백분율(O)/백분률(X):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률'
명중율(X)/명중률(O): 모음이나 'ㄴ' 받침이 아닌 것에 이어지는 '률'

이름의 첫 글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적고 두 번째 글자는 본음대로 적는다. 단,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도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

서용환(徐龍煥), 조희룡(趙熙龍)
신립(申砬), 최린(崔麟), 채륜(蔡倫), 하륜(河崙), 김립(金笠)
※ 이 이름들 외에는 원칙적으로 외자로 된 이름에도 두음 법칙을 적용한다.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 나는 것은 본음대로 적는다.

국제연합 => 국련, 대한교육연합회 => 대한교련

전문 용어에서 많이 보이는 두음 법칙의 오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오류 용어	관련 용어	잘못된 표기의 예
뇨관	요관, 수뇨관	뇨관결석, 뇨관폐색
뇨세관	요세관, 세뇨관	콩팥뇨세관산증
뇨스틱		
-류량	최대유량계, 유량계	최고날숨류량
-률/-율	반사율	절대꺾임율, 반복율, 유병율, 블리딩율

1.1.2. 사이시옷

일반적인 사이시옷의 법칙은 다음과 같다.

①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나뭇가지: '나무'와 '가지'는 모두 순 우리말임. 한자어나 외래어가 아님. 두 말이 합쳐지면 뒷말의 첫소리가 '까'로 발음이 되므로 'ㅅ' 추가
  모깃불: '모기'와 '불'은 모두 순 우리말임. 두 말이 합쳐지면 뒷말이 '뿔'로 발음이 되므로 'ㅅ' 추가
-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아랫마을: '아래'와 '마을'은 모두 순 우리말임. 뒷말이 'ㅁ'으로 시작되는데 두 말이 합쳐지면 '아래'가 '아랜'으로 발음이 되므로 'ㅅ' 추가
-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나뭇잎: ‘나무’와 ‘잎’은 모두 순 우리말임. 뒷말이 ‘ㅇ’ 즉 모음으로 시작되는데 두 말이 합쳐지면 ‘나무’가 ‘나문’으로, ‘잎’이 ‘닙’으로 발음이 되므로 ‘ㅅ’ 추가

②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순 우리말과 한자어라는 점만 차이가 있지 조건은 앞과 동일함.

-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아랫방: ‘아래’는 순 우리말, ‘방(房)’은 한자어임. 두 말이 합쳐지면 뒷말이 ‘빵’으로 발음이 되므로 ‘ㅅ’ 추가

-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제삿날: ‘제사(祭祀)’는 한자어, ‘날’은 순 우리말임. 뒷말이 ‘ㄴ’으로 시작되는데 두 말이 합쳐지면 ‘제사’가 ‘제산’으로 발음이 되므로 ‘ㅅ’ 추가

-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예삿일: ‘예사(例事)’는 한자어, ‘일’은 순 우리말임. 뒷말이 ‘ㅇ’ 즉 모음으로 시작되는데 두 말이 합쳐지면 ‘예사’가 ‘예산’으로, ‘일’이 ‘닐’로 발음이 되므로 ‘ㅅ’ 추가

③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툇간(退間), 횟

수(回數)

※ 이 설명에 따르면 '내과(內科), 이과(理科), 총무과(總務課)' 등은 모두 한자로 적을 수 있는 한자어이지만 6개의 예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ㅅ'을 추가하지 않음.

전문 용어에서는 '덧셈', '나눗셈', '아랫니', '아랫배' 등과 같이 일반 어휘에서도 쓰이고 전문 분야 안에서도 완전히 정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이시옷 원칙이 지켜진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더욱이 사이시옷을 붙이는 것에 대한 심한 반발도 예상된다. 전문 용어의 경우 입말보다 글말이 우세하여 그 정확한 발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도 있으며, 전문 용어 조어 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괄적인 사이시옷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보다 유동적인 적용이 용인되어야 할 것이다.

규정에 의하면 다음의 예들은 사이시옷을 붙여야 하는 용어들이다.

'~값' 유형	최대값, 최소값, 상대값, 대표값, 임계값, 고유값, 초기값
'~길' 유형	자리길(=궤도orbit)
'~살' 유형	전자살(electron beam), 분자살(molecular beam)

1.1.3. 표준어

전문 용어 조어 시 참고할 표준어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수꿩, 수나사, 수놈, 수사돈, 수소, 수은행나무

예외 1) 다음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한다. 접두사 '암-'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수캉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쩌귀, 수퇘지, 수평아리
암캉아지, 암캐, 암컷, 암키와, 암탉, 암탕나귀, 암톨쩌귀, 암퇘지, 암평아리

예외 2) 다음 단어의 접두사는 '숫-'으로 한다.

숫양, 숫염소, 숫쥐

②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기술자: 미장이, 유기장이
그 외: 멋쟁이, 소금쟁이, 담쟁이덩굴

③ ‘웃-’ 및 ‘윗-’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한다.

윗넓이, 윗눈썹, 윗니, 윗도리, 윗목, 윗몸

예외 1)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한다.

위짝, 위쪽, 위채, 위층: ‘짝, 쪽’은 ‘ㅉ’으로 된소리, ‘채, 층’은 ‘ㅊ’으로 거센소리임.

예외 2)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웃돈, 웃어른: ‘웃돈, 웃어른’은 그에 대립하는 ‘아랫돈, 아랫어른’이 없으므로 ‘웃돈, 웃어른’으로 표기

전문 용어에서 발견된 오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윗-’ 유형	위눈확틀샘(superior orbital fissure) 위이틀활(superior dental arch) 위눈꺼풀(upper eyelid) 도르래위신경(supratrochlear nerve)
‘위쪽’/‘뒤쪽’ 유형	뒷쪽흩뜨림(back scattering) 뒷쪽되비침법(back reflection method) 윗쪽언저리차원(upper marginal dimensionality)

1.1.4. 띄어쓰기 규정과 전문 용어 띄어쓰기의 실제

띄어쓰기의 대 원칙은 맞춤법 규정 제1장 총칙 제2항에 나와 있다.

또한 현행 띄어쓰기는 제5장 띄어쓰기(제41항~50항) 규정에 따르고 있다. 그리고 전문 용어에 관한 것은 제50항에 따로 규정되어 있다. 아래는 예시이다.

제50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 만성 골수병 백혈병	만성골수병백혈병
- 관상 동맥 경화증	관상동맥경화증
- 급성 복막염	급성복막염
- 두 팔 들어 가슴 벌리기	두팔들어가슴벌리기

전문 용어에서의 띄어쓰기의 실제를 살펴보면, 일괄적으로 붙여 쓰기를 하는 분야가 있는 반면, 대체적으로 뚜렷한 규정이나 법칙 없이 띄어쓰기와 붙여 쓰기가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생물학사전과 과학기술용어집에는 모두 붙여 쓰고 있으며, 법률용어집도 붙여 쓰고 있다. 의학, 수의학, 약학 분야도 모두 붙여 쓰기를 하고 있다.

① 북한의 전문 용어

정밀압착가공반, 제로접사형태, 핵융합에네르기

② “21세기 세종계획 전문 용어 정비 사업”의 심의 가이드라인: KORTERM의 방침

[제5조: 붙여 쓰기] 모든 복합 전문 용어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현재 <의학>, <수의학>, <약학>은 거의 절대적인 붙여 쓰기를 하고 있으며, 일부 <간호학>, <생물학>, <물리학>, <금속공학> 분야에서 붙여 쓰기를 많이 한다.

<약학> 대두카제인소화액체배지, 피오시아닌검출용녹농균한천배지

<수의학> 삼카르복실산회로, 동식물섬유위석, 트리오스인산이성질화효소

<간호학> 변못참음, 정신과의뢰연락간호사, 응급처치명령

띄어쓰기를 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볼 수 있었다.

① 일반적으로 <음차어+ 고유어>, <음차어+ 한자어>, <복합 음차어>의 경우 각 단어를 띄어쓰기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음차어+ 한자어>	
accelerating creep	가속 크리프
accelerating stress	가속 스트레스
cycle range	사이클 범위
data transmission	데이터 전송

<음차어+ 음차어>	
data register	데이터 레지스터
deck glass	덱 글라스
external energy	외부 에너지

<고유어+ 음차어>	
torsion moment	비틀림 모멘트
torsion coil spring	비틀림 코일 스프링
swivel fitting	스위블 이음

<복합 음차어>	
turret punch press	터릿 펀치 프레스
back spin turn	백 스핀 턴

그러나 음차어의 음절이 짧은 경우 붙여 쓰기도 한다.

tap drill 탭드릴
undeformed chip thickness 불변형 칩두께

음차어가 일음절 한자어(접사 또는 어근)와 조합될 경우 붙여 쓸 때가 많으나 띄어쓰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torch tube 토치관
torque rod 토크봉
valve chest 밸브실[36]
upset force 업셋 력

36) 예를 들어 'valve case 밸브 몸통'의 경우 띄어쓰기를 하고 있다.

② <고유어+ 한자어>의 경우 각 단어 사이에 띄어쓰기를 하는 경향이 있다.

torsion test 비틀림 시험
surface roughness 표면 거칠기
quality of fit 끼워맞춤 등급

하지만 고유어가 짧은 음절인 경우 붙여 쓰기도 한다.

swept-back blade 후퇴깃
ventilation cowl 환기갓

③ <한자어+ 한자어>, <한자어+ 한자어+ 한자어>의 경우 일관된 띄어쓰기의 법칙을 발견하기 어렵다.

- 접사나 어근형 일음절 한자어가 붙는 경우 대부분 붙여 쓰기를 한다.

pneumatic pipe 기송관
tool steel 공구강[37]
tool post 공구대
accelerating agent 촉진제
adhesive phase 접착층

37) tool tester 공구 시험기, tool microscope 공구 현미경

acid rock 산성암
control line 제어선, 관리선

- 짧은 한자어가 복합어를 이루는 경우 각 분야의 경향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기도 하고 붙여 쓰기도 한다.

control level 관리수준
control limit 관리한계
control position 조정위치
control circuit 제어회로
average density 평균밀도
average acceleration 평균가속도
electric action 전기작용

absolute unit 절대 단위
absolute temperature 절대 온도
abnormal loading 이상 하중

- 일반적으로 한 분야 안에서 하나의 개념을 지칭하고, 특히 그것이 중요한 핵심 개념인 경우 붙여 쓰는 경향이 있다.

[물리] electrostatic induction 정전기유도
electrostatic phenomenon 정전기 현상
electrostatic lens 정전기 렌즈

- 붙여 쓰기 한 용어가 다시 복합 용어를 형성할 경우 그대로 붙여 쓰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용어학적 입장에서 볼 때 이는 바람직한 것 같다.(개념적 일관성, 통일성의 보장)

[물리] audio frequency [AF] 가청진동수, 가청주파수
audio frequency amplifier 가청진동수 증폭기
audio frequency oscillator 가청진동수 발진기

[조경학] 도시계획구역, 근린공원
도시계획구역권 근린공원
도보권 근린공원

- 한 분야에 속한 용어라 하더라도 일관된 띄어쓰기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화학] 절대 비대칭 합성 absolute asymmetric synthesis
절대 반응속도론 absolute (reaction) rate theory
절대전기음성도 absolute electronegativity
절대압력 absolute pressure
절대 온도 absolute temperature
절대 위험성 absolute risk
절대 엔트로피 absolute entropy

[기계] 음향 임피던스 acoustic impedance
음향 그늘 acoustic shadow
음향강도 acoustic intensity
음향렌즈 acoustical lens
음향격리면 acoustical separator for double crystal probe
음향분할면 acoustical shield
음향이방성 acoustical anisotropy

1.1.5. 법조계와 의학 분야의 띄어쓰기 내부 규정 및 제안

법조계의 경우는 관행적으로 법률 용어를 붙여 쓰고 있다. 2004년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합동 회의'에서, 법률명 붙여 쓰기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 및 법률명 띄어쓰기를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법률명 붙여 쓰기의 문제점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① 법령명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모두 붙여 쓰는 법령명 표기는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에 어긋난다.
② 띄어쓰기는 읽는 사람의 독해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배려인데, 붙여 쓰기는 가독성(可讀性)이 현저하게 낮아 국민 법률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법률명 띄어쓰기를 권고하였다.

① 법률명을 붙여 쓰는 주된 이유는 한 단위로 파악되게 하려는 목적에서이다. 이것은 작은따옴표(‘ ’)나 밑줄, 활자체 변경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달성하면 되며, 그렇게 하면 띄어 씀으로써 한 단위로 파악되기 어려운 점을 극복할 수 있다.

② 법률명은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 ‘의, 에, 에서, 과’ 등의 조사나 ‘의한, 의하여, 관한’ 등과 같이 ‘-여, ㄴ’의 어미가 쓰인 경우, ‘및, 또는’ 등의 부사가 쓰인 경우, 의존 명사 ‘등’, ‘간’ 등이 사용된 경우에는 반드시 띄어쓰기를 하여야 한다.
- 명사들만으로 이어진 법률명 중 길이가 지나치게 길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들은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 명사들만으로 이어진 명사구라도 지나치게 긴 것이나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은 반드시 띄어 써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조사, 어미, 부사, 의존 명사를 전혀 포함하지 않는 법령명

※ 9음절 이상이고 명사로만 이어진 법령명: 의미 단위별로 최대 8음절까지 붙여 쓸 수 있도록 허용함. 다만, 작은따옴표(‘ ’)는 써야 함.

제주국제지유도시특별법: ‘제주v국제v자유v도시v특별법’(원칙), ‘제주v국제자유도시v특별법’(허용), ‘제주국제자유도시v특별법’(허용),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 8음절 이하이고 명사로만 이어진 법령명: 법령명을 모두 붙여 쓸 수 있도록 허용함.

도로교통법: '도로v교통법'(원칙), '도로교통법'(허용)

의학 분야의 경우 2006년 8월 30일 의학 용어 띄어쓰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다음과 같은 제안이 있었다.

① 의학 용어는 모두 붙여 쓸 수 있다. 단, 지나치게 붙여 써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잘못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띄어쓰기를 할 수 있다.
② 하나의 단어로 개념이 형성된 합성어는 붙여 쓴다.
③ 화학물질의 이름은 붙여 쓴다.
④ 균, 세균, 기생충, 곰팡이, 바이러스, 동식물명 등은 붙여 쓴다.
⑤ 인체 해부학 및 병리조직학 용어는 모두 붙여 쓴다.
⑥ '-증, -병, -염, -학, -성, -제, -법, -액, -수술, -모양, -질환, -호르몬, -증후군' 등과 같은 한자어는 앞의 낱말에 붙여 쓴다.
⑦ 앞에서 시간 또는 정도를 나타내는 '급성', '만성', '아급성', '전격', '경도', '중등도' 등은 띄어 쓸 수 있다.
⑧ 원어 한 단어로 된 우리말은 원어의 본래 의미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 붙여 쓴다. 우리말이 너무 긴 경우에는 붙임표(-), 가운뎃점(·) 등을 사용하여 한 단어로 만든다.
⑨ 두 개 이상의 원어가 결합된 용어는 의미가 손상이 가지 않는

한 붙여 쓴다.

- 일반 용어에 가까워 널리 사용되는 것은 띄어 쓴다.
- '-적', '-성'을 포함하거나 '및'이나 '용언의 관형형' 등에 이어지는 단어는 띄어 쓸 수 있다. 우리말이 너무 긴 경우에는, 원어의 띄어쓰기를 최대한 반영하여 의미 파악이 가장 쉽도록 적절하게 띄어 쓴다.

1.2. 외래어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대원칙은 맞춤법 규정 제1장 총칙 제3항에 나와 있다.

전문 외래 용어는 '외래어 표기법'(1986년 1월 7일, 문교부 고시 제85-11호)에 따라 한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외래어 표기법'의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5개항)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필수적)

제2항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자음이 모음 앞, 자음 앞 또는 어말에 따라 달리 적히는 게 일반적임.)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필수적)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8]

---

38) 일본어와 중국어에서는 '쓰(つ/ツ)', '쯔/쯔(ㄗ)', '싸/쓰(ㅅ)'처럼 일부 된소리를 인정함. 그리고 타이어와 베트남어에서는 'ㅉ, ㅆ(베트남어만), ㄲ, ㄸ,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1.2.1. 전문 용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외래어 표기법의 오류

① [f]

[f] 발음이 모음 앞에 나는 경우	
Pfizer	화이자
fiber	화이버 / 화이바
two-storage axial flow fan	2단 축류홴
[f] 발음이 마지막에 나는 경우	
staff	스탭

② [ʃ]

back flash	백 플래쉬
burnt fly ash	소성 플라이 애쉬
expert system shell	전문가 시스템 쉘
flash back	플래쉬 백

③ [tʃ], [ts]

ㅃ'처럼 전면적으로 된소리를 인정함. 아랍어에서는 'ㄲ/ㄳ(q)'처럼 일부 된소리를 인정할 예정이다.

actuator	액튜에이터 액츄에이터
closing gesture	종결 제스쳐
gesture	제스추어
situation	시츄에이션
texture	텍스츄어

④ 장모음의 표기

cellulose	셀룰로오스
enclosure	엔클로우져
hydroxypropylmethylcellulose	히이드록시프로필메칠셀룰로오스
air cleaner storage type	에어 클리너 스토레이지식
window	윈도우

1.2.2. 외래어 표기법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1.2.2.1. 모음의 표기

① [ɔ;ɑ]

- 영국 영어는 [ɔ]로, 미국 영어는 [ɑ]로 소리 날 때 원칙적으로 영국 영어 발음을 따라 '오'로 적는다. 미국 영어에서 [ɑ]로 소리 나는 것도 이 원칙에 따라 '오'로 적는다.

concert(콘서트), concept(콘셉트), contents(콘텐츠), contact

lens(콘택트렌즈), complex(콤플렉스), compact disk(콤팩트 디스크), shop(숍), workshop(워크숍), shot(숏, 연화 용어), synopsis(시놉시스), costume(코스튬), spot(스폿), drop(드롭), stop(스톱), top(톱), documentaion(도큐멘테이션), rock(록), topic(토픽), nonfiction(논픽션)

- 다음은 관용에 따른 예외적 표기이다.

shot(샷, 골프 용어), documentary(다큐멘터리)

- 다음의 예는 [ə]로 소리 나는 예라서 '어'로 적은 것이다.(특히, 'con-', 'com-'으로 시작하는 말에서 '오'와 '어'의 표기 혼란이 극심함.)

container(컨테이너), condition(컨디션), air conditioner(에어컨), consortium(컨소시엄), control(컨트롤), remote control(리모컨), compile(컴파일), component (컴포넌트), computer(컴퓨터), bonus(보너스), symposium(심포지엄), ketchup(케첩), career(커리어), clover(클로버), data(데이터), directory(디렉터리), festival(페스티벌), fortune(포천), interval(인터벌), Las Vegas(라스베이거스), license(라이선스), negative(네거티브), standard(스탠더드), symbol(심벌), tournament(토너먼트)

- 아래의 예는 [ə]로 소리 나는 데도 '오'로 적은 예인데 이는 관용에 따른 예외적 표기이다.(미국 영어에서 [ə]로 소리 나기도 하고 [ɑ]로 소리 나는 'o'는 철자에 이끌려 '오'로 적는 경향이 있음.)

  coconut[koukənʌt](코코넛), combine(콤바인), carol(캐롤); comparator[ə/ɑ](콤퍼레이터), compound[ə/ɑ](콤파운드)

- 다음의 예는 [ʌ]로 소리 나기 때문에 '어'로 적은 것이다.(특히, 'com-'으로 시작하는 말에서 '오'와 '어'의 표기 혼란이 극심함.)

  compass(컴퍼스), comeback(컴백), country(컨트리), color(컬러), honey(허니), brother(브러더), buzzer(버저), touch(터치), monkey(멍키), frontier(프런티어)

② [æ(:);ɑ:]

- 미국 영어는 [æ(:)]로, 영국 영어는 [ɑ:]로 소리 날 때 미국 영어 발음을 따라 '애'로 적는다.

  graph(그래프), photograph(포토그래프), phonograph(포노그래프), branch(브랜치)

- 특기 사항

pornography(포르노그래피), discography(디스코그래피)는 [ə]로 소리 나지만 '~g raph'에 이끌려 '어'로 적지 않고 '애'로 적는 예임.

③ [ɔ:;ə]

- 미국 영어는 [ɔ:]로, 영국 영어는 [ə]로 소리 날 때 미국 영어 발음을 따라 '오'로 적는다.

repertory(레퍼토리)

1.2.2.2. 자음의 표기

① 어말 또는 자음 앞의 유성 파열음은 '으'를 붙여 'ㅂ', 'ㄷ', 'ㄱ'로 적는다

head(헤드), bug(버그), hot dog(핫도그), zigzag(지그재그), bulb(벌브), land(랜드); baobab(바오바브), ronde(롱드), bague(바그)<이상 프랑스어><독일어는 어말의 유성 파열음 없음>
lobster(로브스터), kidnap(키드냅), 시그널(signal)<독일어, 프랑스어는 자음 앞 유성 파열음 거의 없음>

② 어말의 무성음이 [t]이고 1음절어인 경우에는 '으'를 붙여 적

는 게 자연스럽고 어말 또는 자음 앞의 유성 파열음 가운데 몇몇은 받침으로 적는 게 일반적이다.(관용)

knock(노크), net(네트), jet(제트), set(세트), mat(매트), bit(비트), dot(도트), mitt(미트)
bag(백), lab(랩), web(웹), job(잡), bobsleigh(봅슬레이)

2. 전문 용어의 조어법

2.1. 전문 용어 형성의 형태적 유형

특정 분야의 전문 용어가 우리말에 수용될 때, 전문 용어를 이루는 개별 단어의 유형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겠다.

① 고유어

어저귀[식], 옻_나무[식], 외_떡잎_ 씨앗[식], 오름_다리[건], 얽어_짜임[건], 오른_배지기[운]

② 한자어

생태[생], 생태_형[생], 배상_명령[법], 생태적 지위[생], 배상 의무자[법]

③ 원어의 음차

생테티슴(synthétisme)[미], 어드벤티지(advantage)[운], 어드벤티지_룰(advantage rule)[운]

④ 약어의 음차

에스티디(STD)[해]

⑤ 고유어 + 한자어

어질_병(__病)[한], 여닫이_ 운동(___ 運動)[식], 오른손_ 법칙(___ 法則)[물], 여_사당_ 패(女__牌)[역]

⑥ 고유어 + 원어의 음차

에스키모_ 개(eskimo_)[동], 필름 감기(film __)[사], 오르트의 구름(Oort_ __)[천]

⑦ 한자어 + 원어의 음차

아밀로이드_증(amiloid症)[의], 에너지 소비 효율(energy消費效率)[전], 엑스_염색체(X染 色體)[의], 에스피_판(SP板)[음]

⑧ 고유어+ 한자어 + 원어의 음차

필름 나사 지름(film螺絲__)[사]

2.2. 전문 용어 형성의 형태론적 유형

전문 용어의 내적 구성 형식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우리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정리될 수 있겠다.

① 단일어

- 하나의 고유어

spotting 얼룩

- 하나의 음차어

fitting 피팅
energy 에너지

- 한자어로 된 하나의 단어

absorption 흡수 / 흡광
fixation 고정 / 고착

electric shock 감전
specific fravity 비중

② 파생어 형성

- 접미사(한자어) 첨가

ozonization 오존화
constitutive 구성적
a priori 선험적

- 접두사(한자어) 첨가

dehydrogenation 탈수소
antipornography 반포르노그래피

- 접사(고유어) 첨가

acceptor 받개
adapter 잇개
true electric current 참전류

- 접두사, 접미사 첨가

delocalization 비편재화 / 비국소화

- 명사형, 동사형, 관형형 어미

abrasion 벗겨짐
appearance 나타남
scattering 흩뜨림
to posit in opposition 반정립하다
exact 정확한

③ 합성어 형성

- 독립된 두 한자어 또는 두 고유어 또는 고유어+한자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경우: 구성 요소가 용어일 수도 있고 일반 단어일 수도 있으나 합성어는 전문적 의미를 가져야 함.

gas pressure 기체압력
foam rubber 발포고무
rheumatic fever 류마티스열

- 두 개 이상의 음차어 조합으로 이루어진 경우

Fermi energy 페르미 에너지
analogue computer 아날로그 컴퓨터

- 두 개 이상의 용어 및 일상 어휘의 조합

dark companion 어둠동무별
essential fatty acid 필수지방산

④ 복합 형성

- 파생어와 합성어의 조합을 모두 이 경우로 처리한다.

electric precipitator 전기집진기
antiferromagnetic resonance 반강자성 공명

(5) 구

- '~의', '~에 관한'과 같은 기능어가 포함된 명사구 구성, '및' 또는 '~와/과'가 붙은 명사구, 관형형 어미가 쓰인 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띄어쓰기 원칙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 듯하다.

adaptation of eye 눈의 명암적음
advancement of learning 학문의 진보
additive inverse 덧셈에 관한 역원
appeal to illicit authority 부적절한 권위에의 호소

- 하지만 ‘죽은조직’, ‘작은어금니’ 등은 ‘작은창자’처럼 붙여 쓰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관형어형 어미가 붙은 용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동적인 띄어쓰기 규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3. 전문 용어 형성의 의미적 유형

① 외연 확대

해당 용어의 외연, 지시체가 확대되었음에도 옛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전에 ‘사진기’라는 용어는 수동 카메라와 자동카메라만을 지칭하였다면 현재는 디지털 카메라도 가리킨다. 마찬가지로 콤팩트디스크는 한때 음악 시디로서 음반만을 의미하다가 현재는 음악뿐 아니라 영상, 영화, 동영상 등을 수록하는 기기로 그 개념이 바뀌었다.

② 내포의 확대 또는 축소

비유의 의미적 전이를 통하지 않고 어휘의 의미가 축소 또는 확대되어 전문 용어의 기능을 하는 경우이다. 일반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던 ‘은銀’은 학문적으로 정의되어 전문적 의미를 부여받은 경우이다. 지시체나 외연이 바뀌지 않은 채 전문적 개념을 부여받아 화학 용어가 되었다. ‘가스’의 경우 일반인들이 ‘가스’ 하면 떠올리는 의미

와 자원공학자가 갖고 있는 개념이 다르다. 또한 화학자가 정의하는 가스는 자원공학자의 그것과 또 다를 것이다. 전문어가 일반 어휘화되어 가면서 새롭게 의미의 축소 현상이 일어났고, 화학자들의 경우 어휘의 의미를 가장 확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③ 비유 이용

은유, 직유 등 비유의 방식을 통해 용어가 형성되는 경우이다.

- 직유: 비유적 유사성을 직접 유추할 수 있게끔 하지 않고 직유적 표현어구를 이용하여 용어 형성. '~모양', '~형' 등의 표현이 사용된다.

  반달모양관, U자형관, 호랑이무늬 망막

- 은유: 일상어가 완전한 의미의 전이를 이루어 전문적 의미를 갖는 경우이다. 일반 어휘의 다의적 성질을 이용하는데, 형태, 기능, 위치 등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일반 어휘를 가져다 쓴다.

  용어의 구성 요소 중 일부에 은유를 이용한 경우

  예) 병목 현상, 우산 효과, 피스톤 수송, 이온 구름, 이온샘, 빛덫(light trap), 온갖 종류의 동식물, 곤충명(무당버섯,

피젖버섯, 애기똥풀, 초롱꽃……)……

은유를 통해 일반어휘가 완전히 용어화한 경우 (terminologisation): 일반인에게 보다 친숙함을 주기 위해 일부러 전략적으로 용어를 일상어휘에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컴퓨터 용어가 그 대표적 예이다. 하지만, 이렇게 전략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언제나 일상어휘로 사고하고 이해하기에 전문가들도 아주 자연스럽게 은유적 표현으로 전문어를 구성하고 있다.

예) 입질[영화에서, 시나리오에 대해 배우가 흥미를 가지는 현상], 개미[주식 시장에서, 소액 투자자들]

많이 사용되어 은유라고 느끼기 어려운 어휘가 이용된 경우 (죽은 은유)

예) pointer 바늘[물리, 화학, 전기]

④ 전문 분야 간 차용

인접 또는 전혀 관련 없는 분야의 용어를 차용하여 그 분야에 적합하게 새로 정의한 경우이다. 즉, 동일한 용어 형식이 서로 다른 분야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동위성(isotope)[본래 화학 용어인데, 언어학에서 차용]
북극, 남극[본래 지리 용어지만, 물리, 전기, 전자에서 사용]

하지만 많은 용어들에 대해 어떤 분야에서 어떤 분야로 차용되었는지 그 통시적 고찰이 어렵다. '핵'의 경우 화학 용어에서 군사 용어로 전이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지만, '침식'과 같은 경우 지리 분야에서 먼저 쓰였는지 화학 분야에서 먼저 발생한 개념인지 알기가 어렵다.

⑤ 일상 어휘

어떠한 은유나 비유를 통한 의미의 전이 없이 일상 어휘가 그 의미를 그대로 간직한 채 용어 명칭에 이용되는 경우이다. 사실, 전문 용어에 빈번히 사용되는 일반 어휘 단위는 그리 다양하지 않으므로 목록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어휘들은 거의 전 영역에 고루 사용되어 용어 형성을 도와준다.(general vocabulary for scientific use) 이러한 단위들은 그 자체로 독립해서 전문적 의미를 지닌 용어로 쓰일 때도 있으나 그러한 용법과 분리하여 합성 용어나 복합용어에 가장 일반적 의미로 사용될 때만 이 용법으로 간주해야 하겠다. 특히 이러한 단위는 그 앞이나 뒤에 오는 요소와 붙여쓰기를 하는 경향이 높다.

-효과, -법(칙), -시간, -기(-기계), -기간, -기계, -기구, -기관, -기기, -장치, -기능 등

⑥ 고유 명사를 이용한 용어 형성

케플러(의) 법칙, 조셉슨 접합, 조르당 곡선, 켈빈온도눈금……

⑦ 설명 번역

누적도수분포곡선(ogive)

2.4. 원어 용어 번역의 유형

① 일대일 대응: 원어와 그 번역이 일대일 대응으로 이루어진 경우

- 원어가 한 단어로 이루어진 경우

  acceleration 가속도

- 원어가 파생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접사의 의미를 고려하여 번역한 경우도 일대일 대응으로 간주한다.

  accelerator 가속기
  accelerometer 가속도계
  de-icer 제빙기

- 원어가 두 개 이상의 어휘 단위로 이루어져 있고, 그 구성원을 각각 번역한 경우

interval estimation 구간추정
absolute space 절대공간
magnetic field 자기장
method of steepest descent 최급강하법 / 최대경사법

- 원어를 음차한 경우

② 축소 번역

- 원어 용어의 한 부분을 생략하고 번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용어의 일부분으로 전체 용어가 추론 가능할 때 생략한다.

long focal length lens: [사] 장초점 렌즈

속성의 일부를 생략한다.

one-shot color camera: [사] 원숏 카메라

대상을 생략한다.

automatic film winding stop: [사] 자동이송 정지장치

- 원어 용어의 한 부분을 제하고 음차 표기하는 경우

single reflex camera 싱글 리플렉스

③ 확대 번역

- <방법>을 명시한다.

liquid-liquid (물리) 액-액 추출

- 속성의 <대상>을 명시한다.

quality (영화) 퀄리티 / 화질
loudness (물리) 음의 크기 / 소리 크기
fission 핵분열

- <목적>을 명시한다.

information network 정보 처리망

- <기능>을 명시한다.

ultraviolet filter: [사] 자외선 흡수 필터

④ 기타 번역: 위 세 가지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2.5. 원어 용어 차용 시 대역 기준

① 용어는 되도록 쉬운 어휘를 사용하여 구성한다.
② 외국어 음차 표기보다는 순 우리말 용어를 받아들인다.
③ 원어 용어를 음차 표기하거나 원어 약어를 음차 표기할 수 있다. 음차 표기 시에는 그 나라 말에 해당하는 외래어 표기법을 따른다.

chaconne: fr. [음] 샤콘

④ 원어 용어를 차용하되 자국어 실정에 맞게 형태론적 변형을 가할 수 있다.

spanish skirt → 스페인 치마

⑤ 용어 및 용어 내 성분 어휘는 일관성을 갖도록 한다. 원어 용어를 번역(직역)할 경우, 구성 요소들을 각각 번역하여 조합할 수 있다.

latent image: [사] 잠상

cinéma pur: [영] 순수 영화
slow shutter shooting: [사] 저속도 촬영

⑥ 원어 용어가 합성어일 경우, 구성 요소 중 적절한 것만을 선택적으로 번역하여 조합할 수 있다. 또한 원어에는 없어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적절한 요소를 삽입할 수 있다.
⑦ 의미를 완전히 풀어서 기술하여 원어와 구조가 전혀 다른 용어를 만들 수 있다.

ogive: [수] 누적 도수 분포 곡선 / 누적도수분포도

⑧ 원어 용어가 합성어일 경우, 그 구성 요소 중 일부가 이미 한국어 용어로 존재한다면, 기존 용어를 사용한다. 여기에 새로운 요소(명사나 명사구 등)를 첨가하여 신용어를 생성할 수 있다. 새로이 첨가되는 부분은 원어의 음차나 고유어 또는 한자어가 올 수 있다.

[화] 아세트산 > 아세트산 비닐 > 아세트산 비닐 수지
[광] 선광 > 부유선광 > 우선부유선광

⑨ 개념적 일관성, 번역 및 음차의 일관성: 번역의 경우 한 원어 용어가 별 무리 없이 하나의 번역어로 표기될 수 있을 때 그 원어 용어가 등장하는 복합 용어마다 동일하게 번역어가 적용되어야 한다.

psychosocial wellness 심리사회적 안녕감
psychosocial health 사회심리적 건강
psychosocial well-being 사회심리적 안녕

위 경우에는 모두 '심리사회적'으로 통일되어야 하겠다.

또한 같은 분야 안에서 서로 다른 음차 표기의 형식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를 통일시켜야 할 것이다.

coupler 커플러, 접속구
coupler joint 코플러 이음

core 코어, 핵
core test specimen 코아 시험 공동체

전문적 개념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개념망을 형성하므로 이러한 개념적 연관성이 용어에 투명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다음 원어의 경우 유종 관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용어가 형성되었으나 우리말에서 다르게 차용되었다. 일관성 차원에서 '토션 바' 대신에 '비틀림 바 스프링'이 더 바람직한 것 같다.

torsion spring 비틀림 스프링
  torsion coil spring 비틀림 바 스프링
  torsion bar spring 토션 바

hydrolic brake 액압 브레이크

air assisted hydrolic brake 공기보조 유압식 브레이크

hydraulic이 포함되는 자동차 공학 용어를 보면 다음 표와 같은데, '유압', '액압', '액체' 등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쓰이고 있다. 일관성 확보를 위해 다른 분야의 용어에서도 쓰이고 있는 '유압식 브레이크'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영어 용어	한국어 용어
air over hydraulic booster	공기 액압 증가 부스터
air-assisted hydraulic brake	공기보조 유압식 브레이크
air-over-hydraulic brake	공기 액압 증가 브레이크
brake with a combination system, air-over-hydraulic brake	복합 브레이크
electric hydraulic actuator	전기 유압식 엑추에이터
electric hydraulic system	전기 유압식
electro-hydraulic system	전기-유압 시스템
hydraulic	유압식
hydraulic actuation	액체 작동
hydraulic air servo	액압 공기 서보
hydraulic brake	액압 브레이크
hydraulic buffer	액체 완충기
hydraulic control system	유압 제어 시스템
hydraulic cylinder	유압 실린더
hydraulic cylinder	유압 실린더

⑩ 원어 용어 음차 시 출발어에 대한 자세: 어떤 용어가 영어 발음에 기반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한국어 화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굳이 영어 발음에 맞춰 표기 형태를 바꾸지 않는다. 즉, 전문 용어 중에 전문인, 일반인 사이에 두루 알려져 있고 또한 통용되는 것은 해당 분야의 표기 규정(일반적으로 음차 표기는 미국 영어 발음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 등)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통용되는 그대로 사용한다.

<화학> vitamin 바이타민 → 비타민
cyan 사이안 → 시안
<의학> allergy 알러지 → 알레르기
<생물> genome 지놈 → 게놈

3. 물리학, 철학, 의학 분야 전문 용어 사례 분석

본 사업에서는 한국학술단체연합회 학술 전문 용어 정비 및 표준화 사업과 전문용어언어공학연구센터의 전문 용어 정비 사업의 용어 데이터베이스 중 물리학, 철학, 의학 3개 분야의 용어 15,000개를 임의로 추출하여 용어의 조어 방식을 분석하였다.

3.1. 용어 내적 구성

용어 내적 구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번호	구분
1	단일어
2	파생어
3	합성어
4	복합어
5	구
6	문장
7	기타

내적 형식의 실례는 아래에서 볼 수 있는데, 각 분야별 분석 예는 다음과 같다.

<철학 분야의 내적 형식 분석 사례>

영어 용어	한국어 용어	용어 내적 형식
Archeology of Knowledge, The	지식의 고고학	5
ardent conduct	역행	1
argument by authority	권위에 의한 논증	5
Argument on the Land	전론	1
argumentation	심사	1
argumentum ad hominem	사람에의 논증, 대인 논증	5,3
arhat	아르하뜨	1
arising	현전	1

arising[production] from other cause	타생	1
aristocratism	귀족주의	3
Ariston of Ceos	케오스의 아리스톤	5
Aristophanes	아리스토파네스	1
Aristoteles' Rhetorics I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I	5
aristotelianism	아리스토텔레스주의	3
army rituals	군례	1
arousal of mind	발보디심	3
arrival	도래	1
art of accommodation	겸술	1
Art of Rhetoric	수사학	2
art of the measurement	측정술	2
artificial insemination	인공 수정	3
artificial insemination doner	비배우자 간 인공 수정	4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 지능	3
artificial selection	인공 선택	3
arts of the bed chamber	방중술	2
Asanga	아상가	1

<물리학 분야의 내적 형식 분석 사례>

영어 용어	한국어 용어	용어 내적 형식
acid	산	1
acidic	산성-	3

acidity	산도	3
acoustic	소리-, 음향-	1,1
acoustic absorptivity	소리 흡수율, 음향 흡수율	4,4
acoustical vibration	소리떨기, 음향진동	3,3
actinium series	악티늄 계열	3
action at a distance	원격작용, 먼거리작용	3,4
action integral	작용적분	3
action-angle coordinate	작용-각 좌표, 작용-각 자리표	4,4
action-reaction	작용-반작용	7
activation energy	활성화 에너지	4
activity	활성도, 활동도	3,3
adapter	연결기, 잇개, 어댑터	3,2,1
adaption	순응, 적응	1,1
addition theorem	덧셈정리, 가법정리	3,3
additivity principle	더하기 원리	3
adhesive force	부착력, 접착력	3,3
adiabatic approximation	점진(적)근사, 점진(적)어림법	3,4
adiabatic change	단열변화	3
adiabatic compression	단열압축	3
adiabatic demagnetization	단열자기소거	4
adiabatic hypothesis	① 단열가설 ② 점진변화가설	3,4
adiabatic state	단열상태	3

adiabats	단열선	3
adjoint matrix	수반행렬	3
adsorption	흡착	1
affinity	친화도	3
aged eye	노안	1
aggregation	① 뭉침, 응집 ② 뭉치, 응집체	1,1,1,3
air column	공기기둥	3

<의학 분야의 내적 형식 분석 사례>

영어 용어	한국어 용어	용어 내적 형식
abdominal aorta	복부대동맥	3
abdominal cavity	복강	1
abdominal hysterectomy	복식자궁절제술	7
abdominal pain	복통	1
abdominal pregnancy	배안임신	3
abdominal reflex	복벽반사	3
abdominal region	복부	1
abduction	외전	1
aberrant conduction	이상전도	3
aberrant thyroid	딴곳방패샘	7
aberrant thyroid	이소갑상샘	3
aberration	미주	1
aberration	이상	1

abnormal behavior	이상행동	3
abortion	낙태	1
abrasion	마멸	1
abrasion	찰과상	1
abruptio placentae	태반조기박리	3
abscess	고름집	3
absence	결여(증)	1
absence	없음(증)	2
absorbed dose	흡수선량	2
absorption	흡수	1
accelerated idioventricular rhythm	가속심실고유리듬	3
acceleration	가속	1
accelerator	촉진인자	3
accelerator	촉진제	2
accentuation	강화	1
acceptor	수용체	2
accessory pathway	부전도로	3

또한 각 항목별로 그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일어>

영어 용어	한국어 용어	용어 내적 형식
(abridgement of) alaya vijnana	알라야	1
(attendant) novice	행자	1

(religious) Daoism	도교	1
(whole) world	천하	1
ability	능력	1
abstraction	추상	1
academy	아카데미아	1
act	업	1
activity	활동(성)	1
actuality	현실(성)	1
adaptation	적응	1
adumbration	음영	1
aeon	깔빠	1
affection (for one's parents, child, wife, etc.)	은애	1
affirmation	긍정	1
afflictions	번뇌	1
alaya	알라야	1
allegories	비유	1
alms-giving	보시	1
altruism	서	1
analogy to show the unsubstantiality of existence	수월	1
anger	분노	1
antagonism	적대 (관계)	1
Antichrist, The	안티크리스트	1
anxiety	불안	1

apcrypha or the woof a fabric	경위	1
appearance	가상	1
appearance of true reality as it is	자연	1

단일어의 경우, 원래 원어가 단일어이고 이를 음차한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본래 일상 어휘로 존재하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전문적 개념을 부여하는 경우(한자어 또는 고유어)와 새로이 이음절 한자어를 만든 경우가 발견되었다. 또한 원어에서는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전문 용어가 우리말에서는 단일어로 대응되거나, 그와 반대되는 경우 역시 관찰된다.

<파생어>

영어 용어	한국어 용어	용어 내적 형식
acceptor	받개	2
cofactor	여인수	2
collider	부딪치개	2
complement	여집합	2
degeneration	겹침	2
dissipation	흩어지기	2
donor	주개	2
electrolyte	전해질	2
extinct volcano	사화산	2
grain	낟알	2

heterogeneous	불균질-	2
irreversible	비가역-	2
microscopic	미시적-	2
neutron	중성자	2
nucleon	핵자	2
overvoltage	과전압	2
reciprocal dispersion	역분산	2
sheath	덮개	2
slide rule	계산자	2
unstable	불안정-	2
vernier	아들자	2
vertex	꼭지점	2
very high frequency[=VHF]	초단파	2
virtual body	허물체	2
virtual focal point	허초점	2
virtual image	허상	2

파생어의 경우, 일음절 한자어 접사인 '-화', '-적', '탈-' 등이 사용된 경우와 '-개' 등의 고유어 접사를 이용하여 새로이 용어를 만드는 경우, 명사형, 동사형, 관형형 어미를 이용한 경우 등이 발견되었다. 특히 전문 용어를 한자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점점 일어남에 따라 '-ㅁ/-기'형 어미가 붙은 용어들이 대폭 늘어났다.

<합성어>

영어 용어	한국어 용어	용어 내적 형식
abdominal aorta	복부대동맥	3
abdominal pregnancy	배안임신	3
abdominal reflex	복벽반사	3
aberrant conduction	이상전도	3
aberrant thyroid	이소갑상샘	3
abnormal behavior	이상행동	3
abruptio placentae	태반조기박리	3
abscess	고름집	3
accelerated idioventricular rhythm	가속심실고유리듬	3
accelerator	촉진인자	3
accessory pathway	부전도로	3
Achilles tendon	아킬레스힘줄	3
acid-base equilibrium	산염기평형	3
acne rosacea	장미여드름	3
acoustic lens	음향렌즈	3
acoustic neurinoma	안뜰신경집종	3
acoustic reflex	소리반사	3
acoustic resistance	음향저항	3
acquired blindness	후천시각상실	3
Actinomyces	방선균	3
active movement	능동운동	3
active transport	능동운반	3
acupuncture	침술	3

adenoma	샘종	3
adenomatoid tumor	샘모양종양	3
adipose tissue	지방조직	3
adiposity	비만증	3
adoptive immunotherapy	입양면역요법	3
advanced cancer	진행암	3
aerobiosis	산소생활	3

합성어는 단연코 가장 많이 이용되는 용어 조어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독립된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것을 합성어 처리하였으나, 합성어와 단일어, 합성어와 파생어의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용어 내적 형식을 분석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점은 일음절 한자어의 경우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접사로 분류된 많은 일음절 한자어들이 어떤 전문 분야 내에서는 고유의 특수한 개념을 가지고 어근처럼 기능하는데, 의학 분야의 '-증', '-술' 등, 물리학의 '-파', '-장'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의학에서 '-증', '-술'을 예로 들어보면, 접사의 일반적 용례를 보이는 용어들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여러 형태를 보인다. 특히, '증'이 개념적 독립성을 확보한 듯이 단어 머리에 위치한 경우('증-', '술-')도 있다.

① '증'

- 빈혈증, 무력증, 가학증, 공포증, 사모넬라증

협심증, 패혈증
수용언어상실증, 직장협착증, 가성원형탈모증
저칼륨증, 저산소증
골화석증, 혀비대증
쓸개돌증, 요소땀증
오줌찔끔증, 심장딴곳증
위산없음증, 수정체없음증, 관절굽음증

- 증례
증례보고
증례연구

② '술'

- 조직확장술, 기관절개술
- 술전, 술후, 술기

이러한 의미 기능을 고려하여, 전문 용어에서는 많은 수의 일음절 한자어를 접사가 아닌 어근으로 처리, 합성어 구조로 분석하였다. 전문 용어를 만드는 전문가들에게 '증'은 접사이기 이전에 증상, 증세의 줄임말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전문 용어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압력/압', '파동/파', '자기, 전자기/자' 등에서 보이는 형태적 유동성과 의미적 투명성이 용어 조어에 활발히 이용된다.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전문 용어는 투명성과 간결성이라는 모순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합성, 파생, 복합어 형태의 비교적 긴 형태를 선호하고 또 그 길이를 줄이고자 하는 노

력이 끊임없이 상충되고 반복된다.

- 표면압, 최대증기압, 수압, 수압기
  외부압력, 정상압력, 압력분포
- 잔류자기, 고른 자기마당
  전자기 단위계, 지구전자기학
  자력계, 자화, 자성
- 반사파동, 파동함수
  탄성파, 심해파, 파수(wave number), 검파, 검파기

파생어-합성어 구분 외에, 전문 용어에서 단일어-합성어, 파생어 구분도 어려운 경우가 있다. 아래의 '겸술'이나 '음소'와 같이 한자어 합성법으로 새로이 만들어진 어휘이지만, 이음절 한자어이기 때문에 단일어로 취급하는 경향이 많은데,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라 할 수 있다.

art of measurement 측정술 - 합성어
art of the bed chamber 방중술 - 합성어
art od accomodation 겸술 - 단일어

원소 - 단일어
무한소 - 합성어
의미소 - 합성어
음소 - 단일어

사실, 용어학적 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띄어쓰기가 되지 않은 요소를 단일용어로 취급하는 방식, 또는 개념적 자립성이 있다면 일반어휘에서 접사라 하더라도 하나의 용어로 간주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국어학적으로 더 세밀히 분석 가능하다 하더라도 전문 개념을 지칭하지 않는 한 의미가 없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복합어>

합성어와 파생어의 조합을 모두 이 경우로 처리하였다.

영어 용어	한국어 용어	용어 내적 형식
absolute idealism	절대적 관념론	4
actual occasion	현실적 계기	4
alchemical matter theory	연금술적 물질 이론	4
allocative justice	할당적 정의	4
altruistic surrogacy	이타적 대리 출산	4
analytic truth	분석적 진리	4
anomalous monism	무법칙적 일원론	4
anthropocentric ethics	인간 중심주의적 윤리	4
artificial insemination doner	비배우자 간 인공 수정	4
biological determinism	생물(학)적 결정론	4

body-for-other	대타적 신체	4
cartesian skepticism	데카르트적 회의론	4
categorical intuition	범주적 직관	4
categorical proof	정언적 증명	4
causal closure	인과적 폐쇄(성)	4
causal dependence	인과적 의존	4
causal exclusion	인과적 배제	4
causal mechanism	인과적 메커니즘	4
causal process	인과(적) 과정	4
causal realism	인과적 실재론	4
causal theory of reference	인과적 지시 이론	4
chymical	연금-화학적	4
classical utilitarianism	고전적 공리주의	4
clear and distinct	명석판명한	4
cognitive value	인지적 가치	4
communicable	전달가능한	4
communicative rationality	의사소통적 합리성	4
comprehensive doctrine	포괄적 교설	4

또한 앞의 '증', '술'류의 예에서 살펴볼 수 있었듯이, 의학 용어에서는 '줄넘기', '갈림길'형 조어 구조와 그 확장형이 많이 보이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다. 첫 번째 유형은 논항 구조를 보이며 최종적으로 파생의 형태를 띠는 단어군이다. 두 번째 유형은 수식어가 파생 형태를 보이는 구조인데, 수식어가 단어일 경우도 있고 그보다 큰 단위일 경우도 있다. 세 번째

유형은 파생 형태의 피수식어에 수식어가 다양한 형태로 붙은 경우이다. 아래의 구분은 매우 간략한 것으로 차후에 더욱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 '줄넘기', '높이뛰기' 유형 - [(A+B)파생]
  양손잡이, 두눈보기, 눈꺼풀처짐, 혈액거르기, 창자막힘, 떨림버기, 짝짓기, 대이음, 땀남, 횡경막처짐, 말더듬, 위맞물림, 뇌실뚫기, 등쪽굽힘, 위날문막힘, 근육층신경얼기

- '갈림길'유형 - [(A)파생+B]
  얽힘막, 이음막, 내림근, 내림창자, 빨기반사, 오르내림열, 공기삼킴증, 쓰기언어상실증, 관절굳음증, 동정맥지름술, 머리덮개뼈, 밖굽이무릎, 내림잘룩창자, 바로잡기반사, 포도당겸딤겸사, 자궁내막버팀질육종, 마비척추옆굽음증, 엄지발가락가쪽휨증, 항문조임근마비

- [A+(B)파생]
  율동눈떨림, 진동눈떨림, 조화운동불능눈떨림, 시각운동성눈떨림, 심방잔떨림

<구>

구 구성에는 '~의'가 포함된 표현, 관형형 어구 등이 관찰되었다.

Coulomb's theorem 쿨롱의 정리
against methods 방법에의 도전
anatomical study of the motion of the heart and the blood in animals 동물의 심장과 혈액의 운동에 관한 연구
optically dense 광학적으로 조밀한
incommensurate 이안맞는
solid 속이찬

영어 용어	한국어 용어	용어 내적 형식
abandonment of being	존재의 떠남	5
Adrastus of Aphrodisias	아프로디시아스의 아드라스토스	5
Advancement of Learning, The	학문의 진보	5
Aenesidemus of Cnossus	크노소스의 아이네시데모스	5
Against Methods	방법에의 도전	5
Ammonius Saccas of Alexandria	알렉산드리아의 암모니오스 사카스	5
Analysis of Sensations, The	감각의 분석	5
Anatomical Study of the Motion of the Heart and of the Blood in Animals, An	동물의 심장과 혈액의 운동에 관한 연구	5
Andronicus of Rhodos	로도스의 안드로니코스	5
Anselm of Canterbury	켄터베리의 안셀무스	5
appeal to illicit authority	부적절한 권위에의 호소	5
Apuleius of Madaurus	마다우루스의 아풀레이우스	5

Archeology of Knowledge, The	지식의 고고학	5
argument by authority	권위에 의한 논증	5
Ariston of Ceos	케오스의 아리스톤	5
Aristoteles' Rhetorics I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I	5
autonomy of technology	기술의 자율성	5
basic structure of society	사회의 기본 구조	5
Being and Beings, The	존재와 존재자들	5
Being and Nothingness	존재와 무	5
being towards death	죽음을 향한 존재	5
Birth of Tragedy	비극의 탄생	5
Birth of Tragedy, The	비극의 탄생	5
blameworthiness	비난받을 만함	5
Boethius of Dacia	다키아의 보에티우스	5
Bruno, or on the Natural and the Divine Principle of Things	브루노 혹은 사물의 신적이며 자연적인 원리에 관하여	5
care ethics	보살핌의 윤리	5
Case of Wagner, The	바그너의 경우	5

<문장>

전문 용어에는 문장도 하나의 단위로 등재된다.

Ecce Homo 이 사람을 보라

<기타>

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인명, 지명 책명 등의 고유 명사들과 불교철학이나 인도철학 등 전문적 지식이나 해당 원어에 대한 지식 미비로 분석하지 못한 사례들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원어의 약어를 음차한 경우도 원어의 원형태를 모를 경우 분석하지 못하였다.

영어 용어	한국어 용어	용어 내적 형식
'Jam dpal rgya mtsho	잠빼 갸초	7
?nanda	아난다	7
Adorno, T.	아도르노	7
Aetius	아에티우스	7
Ajatasattu	아자따삿뚜	7
Al-ji	알지	7
Ambapali	암바빨리	7
Ames byang chub 'byung gnas	아메 쟝춥 쥥내	7
An Xi	안희	7
Analects	논어	7
Anaxagoras	아낙사고라스	7
Anaximander	아낙시만드로스	7
Anaximenes	아낙시메네스	7
Andreas-Salome, L.	안드레아스-살로메	7
Antiphon	안티폰	7
Asanga	아상가	7

Asangavajra	아상가와즈라	7
Atikuta	아띠꾸따	7
Atisha	아띠샤	7
Austin, J.	오스틴	7
Averroes	아베로에스	7
Ayer, A.	에이어	7
Baekho	백호	7
Baekhojeonseo	백호전서	7
Bai Ju-yi	백거이	7
Ban Biao	반표	7
Bangyesurok	반계수록	7
Baolinsi	보림사	7

이러한 내적 구성의 유형은 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흥미로운 차이를 보이는데, 이 역시 각 분야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더 많은 고찰을 필요로 한다.

유형	물리학	의학	철학
단일어	13.78%	25.82%	18.28%
파생어	1.16%	13.62%	1.62%
합성어	47.67%	45.52%	49.45%
복합 구성	30.33%	5.8%	3.71%
구	4.62%	2.1%	6.41%
문장	0.02%	0%	0.01%
기타	2.38%	4.86%	20.65%

3.2. 단어 대응성

원어 용어가 이미 존재할 때, 이를 근거로 하여 우리말 단어 대응 유형을 살펴보았다.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번호	구분
1	일대일 대응
2	축소
3	확대
4	기타

한국어 전문 용어 조어의 실례를 보면, 개념을 세우고 용어를 직접 만드는 1차 용어 형성보다는 원어 용어를 참고하거나 번역하는 2차 용어 형성이 주된 방법이다. 2차 용어 형성의 실제 패턴은 다음과 같다.

<철학 분야의 번역에서 단어 대응 유형 분석>

영어 용어	한국어 용어	단어 대응
'Jam dpal rgya mtsho	잠빼 갸초	1
(abridgement of) alaya vijnana	알라야	2
(attendant) novice	행자	1
(orthodox) transmission[tradition] of the way	도통	2

(religious) Daoism	도교	1
(whole) world	천하	1
?nanda	아난다	1
absorption in the state of compassion	자심사마디	4
absorption of mindfulness of the buddha	염불사마디	4
abstraction	추상	1
absurdity	부조리	1
affection	변용, 성질	1,1
affection (for one's parents, child, wife, etc.)	은애	2
affinity	자기화	3
affirmation	긍정	1
affirmative action	차별 수정 조치	3
afflictions	번뇌	1
after completion	기제	2
after-life	후세	1
after-life	후신	1
Against Methods	방법에의 도전	1
Against the Sceptics	아카데미아학파 반박	1
aggregates as demons	음마	2
agnosticism	불가지론	1
agreeable condition[circumstances]	순경	1

이를 각 분야별로 그 비율을 보이면 아래와 같으며, 원어와의 일

대일 대응 유형이 압도적이다.

유형	물리학	의학	철학
일대일 대응	98.62%	99.26%	67.97%
축소	0.26%	0.18%	2.39%
확대	0.98%	0.4%	1.35%
기타	0.14%	0.16%	28.29%

3.3. 용어 구성 방식

전문 용어의 형태적 구성 방식은 다음의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번호	구분
1	고유어
2	한자어
3	음차어
4	분석 불가

그리고 파생, 합성, 복합어의 경우, 22, 32, 123, 321, 223 등으로 구성 요소가 해당하는 번호를 조합하여 표시하였다. 파생 접사의 경우는 제외하고 어근에만 번호를 붙이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물리학의 예를 들어 보이면 아래와 같다.

<물리학 분야의 형태적 유형의 예>

영어 용어	한국어 용어	수용 방식
AC voltmeter	교류전압계	22
accelerating tube	가속관	22
acceleration	가속도	2
acceptor	받개	1
accessible state	도달가능상태, 허용상태	222,22
accuracy	정확도, 정확성	2
achromatic	색지움-	11
achromatic condition	색지움 조건	112
acid	산	2
acidic	산성-	2
acidity	산도	2
acoustic	소리-, 음향-	1,2
acoustic absorptivity	소리 흡수율, 음향 흡수율	12,22
acoustical vibration	소리떨기, 음향진동	11,22
actinium series	악티늄 계열	32
action at a distance	원격작용, 먼거리작용	22,12
action integral	작용적분	22
action-angle coordinate	작용-각 좌표, 작용-각 자리표	222,221

분야별로 그 비율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데, 분야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각 학문 분야의 특징과 전문 용어 수용 방식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더 심도 있는 분석과 고찰이 필요하다.

유형	물리학	의학	철학
원어-고유어	18.31%	12.16%	6.15%
원어-한자어	71.31%	77.2%	82.8%
원어-음차어	10.16%	5.06%	9.39%
기타	0.22%	5.59%	0.65%

3.4. 의미 번역 방식

전문 용어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로는 용어도 있지만, 일반 어휘도 발견된다. 특수한 개념을 전달하는 데에 전혀 새롭고 어려운 한자어 구성보다는 쉽게 접하고 일반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그 개념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데 동기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동기화된 용어 조어를 위해 일반적으로 일반 어휘를 그대로 의미적 변용 없이 사용하기도 하고 타 분야에서 사용하여 이미 정착된 용어를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전문 용어에서도 은유 등 비유적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6가지 기준으로 전문 용어 조어 방식에 대한 의미적 분석을 하였다.

번호	구분
1	일반 어휘
2	외연 확대
3	유사성에 따른 적용
4	비유 이용

5	타 분야 용어 사용
6	설명 번역
7	기타

<의학 분야의 의미적 유형>

영어 용어	한국어 용어	의미 유형
abdominal aorta	복부대동맥	1
abdominal cavity	복강	1
abdominal hysterectomy	복식자궁절제술	6
abdominal pain	복통	1
abdominal pregnancy	배안임신	1
abdominal reflex	복벽반사	6
abdominal region	복부	1
abduction	외전	1
aberrant conduction	이상전도	6
aberrant thyroid	딴곳방패샘	4
aberrant thyroid	이소갑상샘	4
aberration	미주	1
aberration	이상	1
abnormal behavior	이상행동	6
abortion	낙태	1
abrasion	마멸	1
abrasion	찰과상	1
abruptio placentae	태반조기박리	6
abscess	고름집	4

absence	결여(증)	1
absence	없음(증)	1
absorbed dose	흡수선량	1
absorption	흡수	1
accelerated idioventricular rhythm	가속심실고유리듬	6
acceleration	가속	1
accelerator	촉진인자	6

각 분야별로 유형에 따른 전문 용어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유형	물리학	의학	철학
일상 어휘	96.85%	97.26%	47.15%
외연 확대	0%	0%	0%
유사성에 따른 적용	0%	0.04%	0.06%
비유	1.65%	2.24%	0.21%
전문 분야 간의 차용	0.68%	0%	0.25%
설명 번역	1.51%	0.4%	0.49%
기타	0%	0.06%	52.21%

3.5. 축약 여부

우리말의 경우, 축약어를 활용하는 경우가 외국어보다 현저히 떨어졌다. 분석 사례 중에서는 물리학 분야의 '원자폭탄-원폭'이 유일한 경우이다. 이는 축약어가 필요할 때 영어를 그대로 쓰는 일이 많

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자어의 특성상, 축약어인지 합성어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분석 대상이 된 용어 파일이 표준 용어 목록이기 때문에 축약어를 등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3.6. 고유 명사 사용 여부

고유 명사를 이용한 용어 형성 방식도 전문 용어에서는 자주 발견된다. 그 비율은 다음과 같다.

유형	물리학	의학	철학
고유 명사 사용 여부	7.5%	0.2%	18.82%

IV. 전문 용어 정리 방법론 제언

1. 문제점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외 전문 용어 정리의 사례와 전문 용어의 일반적 정리 방법론, 그리고 기존의 한국어 전문 용어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용어 정리의 경향이나 어문 규정 준수 여부, 조어의 유형과 번역의 유형 등을 검토해 보았다. 짧은 기간과 전문 용어에 대해 기준이 될 만한 지침이 국내에 거의 없다는 점이 본 작업에 어려움을 더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바탕으로 전문 용어 정리 작업에 있어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몇 가지 짚어 보겠다.

1.1. 어문 규정과 현실의 괴리

전문 용어가 국어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 규정을 따라야 하지만 실제로 전문 용어의 실례를 검토한 바 어문 규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전문 용어는 많이 있다. 사이시옷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고 띄어쓰기를 고수하는 전문 분야도 극히 드물었다. -국어학자들도 국어학 용어에 대해 띄어 쓰지 않는 경우가 허다함- 일관된 띄어쓰기의 규칙을 갖고 있는 학회나 기관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모든 단위를 붙여 쓰는 의학계의 경우 일관성은 있으나 해독불가능한 요소들이 있어 개념 접근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대문학'과 '현대 문학'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며, '현대문학적 감수성'과 '현대 문학적 감수성'은 다른 뜻이라

본다. 후자는 오히려 개념적 모호성을 띠어 현대 사회의 문학적 감수성인지 현대 문학에서 보이는 감수성인지 쉽게 파악하기 힘들다. '한국 사회 심리학계'도 마찬가지이다. 일관되게 붙여 쓰는 것과 모두 띄어 쓰는 것 사이의 보다 유동적인 띄어쓰기 원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띄어쓰기에 대한 예를 들어 보았으나,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전문 용어를 만들고 다루는 데에 필요한 원리가 제공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1.2. 전문 용어 담당 기관의 부재

전문 용어는 국가 지식,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어 있다. 국가 차원에서 전문 용어를 담당하는 기구를 설립하고 전문 용어의 발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며, 산업과 지식 체계의 발전에 비례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용어를 관리하고 정비하는 것은 실제적인 지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 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전문 용어 표준화의 총체적인 방법론과 각 분야별 원칙이 수립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용어 자료가 그 전문 분야에 관련한 모든 사람들이 접근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정보를 무료로 항상 제공해야 할 것이다. 지금껏 전문 용어에 관한 심의는 외래어 심의 위원회에서 맡은 것 이외에 이렇다 할 것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외래어 표기법을 심사하는 기관에서 더 나아가, 그대로 마

구잡이로 들어와 쓰이는 외국어들로 인해 언어생활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여과 장치와 같은 전문 용어 심의 기관이 필요할 것이다.

1.3. 사회 문화적 인식 부족

사실, 전문 용어는 특수한 닫힌 집합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은어가 아니라 일반인이 직장에서 또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만나는 어휘들이기도 하다. 한 개인의 용어 사용 습관이 그대로 일상 언어생활에 반영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전문 용어를 관리하는 기구가 있고 한국어로 그러한 전문적 개념을 명명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말에 대한 자긍심과 한국의 기술력을 고취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전문어와 일반어는 그 경계가 모호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서구어보다 비교적 구분 확실한 셈이다. 이러한 일반어와 전문어의 구분은 현학적 자세나 전문가들끼리 닫힌 집합을 형성하고 있어서라기보다, 오히려 전문 용어를 일상어 안에 쉽고 자연스럽게 통합시키려는 노력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전문 용어가 쉽고 불편하지 않은 말로 정리되었을 때 일반 대중들은 훨씬 더 전문 지식을 소통하기 쉬울 것이다.

현재 국외의 많은 국가들은 용어학을 대학과 대학원의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고, 전문 용어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체계적으로 용어를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의 교육 및 양성이 필요하다.

2. 전문 용어 정리를 위한 제언

2.1. 어문 규정의 유연성과 언어 현실을 반영한 정리 방법론

전문 용어는 어휘의 일종이기에, 모든 어휘적 특성을 공유하지만, 또 한편 일반 어휘와는 무척 다른 속성을 띠고 있다. 전문 용어는 무엇보다도 개념을 명명하는 어휘 단위이므로 개념과의 관련성을 고려해야 하여 띄어쓰기와 합성법, 파생법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몇몇 전문 용어에서 보이는 창의적인 조어 방식[예: 거꿀상관(=역상관) 등]은 오히려 다른 신어 생성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전문 용어를 정리하는 주체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전문 용어의 수용자들이자 산출자들, 또 신조 용어 시험의 장이자 용어가 선택되고 정착되는 곳도 전문 분야를 이루는 구성원들인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어학자와 용어학자가 공동으로 협업하여, 전문 용어를 국어의 변두리에서 끌어내야 할 것이다.

2.2. 전문 용어 담당 기관과 정비의 지속화

현재 개별 학회나 정부 부처에서 용어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지만, 이들 사이에 소통의 통로를 제공하고 정보를 공유하게끔 해야 할 것이다. 서로 같은 분야의 용어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린다거나 같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똑같은 노력을 여기저기서 벌이는 소모적 일을 중단하고, 보다 일관된 방식으로 전 영역에 걸쳐 전문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총체적인 통제와 관리, 감독 및 후원을 할 수 있는 국가 기관이 책임을 지고 이루어 내야 하

는 사업이다. 용어는 그 발전과 생성, 사멸 속도가 일반 어휘보다 훨씬 빠르므로, 용어 정비를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좋다. 또한 일회성 사업이 아닌 꾸준히 용어를 관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상설 기관이 절실하다.

참고 문헌

1. 일본

<도서·논문류>

大塚明郎(1971), 学術用語の制定, 言語政策15

大塚保忠利(1952), 学術用語の問題をめぐって, ことばの教育38

中山亮一(1994), 用語集の作成にあたり検討すべき諸項目の現状, 専門用語研究6

中山亮一(1999), 1概念に1用語？, 専門用語研究18

中山亮一(1999), 用語はなぜ名詞形ばっかりなのか？, 専門用語研究18

日本規格協会(1995), 『日本規格協会50年のあゆみ』

日高遠(1993), 用語の造語メカニズム, 専門用語研究5

四ノ宮明夫(1999), 学術用語は用語集か, 専門用語研究18

玉村文郎(1991), 専門用語の性格, 専門用語研究3

田口泖三郎(1952), 日本語と学術語, 中等教育資料1-10

仲本季四郎(2005), 『専門用語概論』, 日本図書館協会

宇野隆保(1956), 日本のことばはどうあるべきかー専門語の改正ー, 講座日本語 2国語と国字

佐竹秀雄(1982), 現代の専門用語, 講座日本語の語彙7現代の語彙

宋永彬(2000), 韓国における専門用語の歴史と現状, 専門用語研究19

服部静夫 外(1953), 学術語はどうなるか, 言語生活22

服部静夫(1955), 学術用語の改訂, 中等教育技術4-12

服部静夫(1955), 学術用語は各部門で実際にどう決まったか[植物], 国文学解 釈と鑑賞20-2

東秀彦(1990), 日本工業規格における用語規格, 専門用語研究１
長尾真(1993), 専門用語辞典の体系構成法, 専門用語研究5
青戸邦夫(1952), 学術用語について, 中等教育資料1-10
青戸邦夫(1955), 学術用語の置き換えの現状, 国文学解釈と鑑賞20-2
青戸邦夫(1956), 学術用語の制定, 学術月報8-12
青戸邦夫(1960), 学術用語の制定, 学術月報12-12
青戸邦夫(1961), 学術用語審議規準について, 学術月報13-11
青戸邦夫(1968), 学術用語の制定のための審議状況, 学術月報21-9
青戸邦夫(1975), 学術用語の標準化28年の展望, 学術月報28-9
青戸邦夫(1997), ローマ字による学術用語の書き表し方, 専門用語研究 14
宮島達夫(1994), 専門用語の語構成, 専門用語研究7
柴田武(1994), 専門用語集の理想, 専門用語研究6
馬場重徳(1955), 学術用語制定の足跡, 国文学解釈と鑑賞20-2
盛岡健二(1993), 専門用語の命名における諸問題, 専門用語研究5
菊沢李生(1933), 国語位相論, 明治書院
緒方富雄(1956), 専門語, ことばの講座２これからの日本語
内田亨(1954), 学術語のかきかえ, 学鐙１
国立国語研究所(1981), 専門語の諸問題, 秀英出版
広浜文雄, 学術用語の整理統一, 言語生活33
稲垣文男(1970), 専門用語言い換えの一考察, 文研月報21－２
稲垣吉彦(1970), 専門用語論 どんなことばで伝えるか, 広報202

<사전류>
国語学大辞典(1980), 東京堂出版

国語学研究事典(1977), 明治書店
日本語百科大事典(1988), 大修館書店
現代言語学辞典(1988), 成美堂
言語学大辞典6巻(1996), 三省堂
JIS日本工業用語大辞典第5版(2001), JSA

<규범집>

現行の国語表記の基準(1967), 文部省
常用漢字表 · 現代仮名遣い · 外来語の表記(1992), 財務省印刷局
JISハンドブック56－標準化(2004), 日本規格協会
JISハンドブック56－標準化(2005), 日本規格協会
JIS Z8301: 1989, 2000, 2005

2. 중국

<도서·논문류>

冯志伟(1997), 现代术语学引论, 语文出版社。
吴风鸣, 我国自然科学名词术语研究的历史回顾和现状, 见<<自然科学术语研究>>, 1985年, 第1期。
钱三强, 在全国自然科学名词审定委员会工作会议上的讲话, 见<<自然科学术语研究>>, 1987年, 第1期。
黄昭厚, 全国名词委的十年概况, 见<<中国术语网通讯>>, 1994年, 第2-3期, 总第3-4期。
吴风鸣, 我国科技术语的继承性及其翻译的发展历史, 见<<自然科学术语研究>>, 1991年, 第2期。
冯志伟, 专业术语命名的法规与原则, 见<<中国术语网通讯>>, 1994年,

第4期, 1995年, 第2期。
西米, 翻译与术语学, 见<<中国术语网通讯>>, 1994年, 第3期。
栗武宾, 术语标准化工作回顾, 见<<术语标准化与信息技术>>, 1996年, 创刊号。
栗武宾, 术语学与术语标准化, 见<<标准, 计量, 质量>>, 1990年, 第4期。
金万平, 术语标准化的协调与管理, 见<<中国术语网通讯>>, 1994年, 第1期。
刘青, 简述科技术语规范化的基本环节, 见<<科技术语研究>>, 2001年, 第1期。
冯志伟. 我国的术语规范化工作, <<语文建设>>, 1995年, 第12期。
于常海. 加强交流,为语言和科技名词的统一而努力, <<科技术语研究>>, 2000年, 第3期。
史有为, 论当代语言接触与外来词[J].应用言语学研究, 1999年, 第1期。

<사이트류>

중국 전문 용어 정보넷(中国术语信息网), http://www.cnterm.org
중국 언어 문자넷(中国语言文字网), http://www.china-language.gov.cn
표준넷(标准网), http://www.standardcn.com
중국 표준화 정보넷(中国标准化信息网), http://www.china-cas.com/

3. 러시아

<도서·논문류>

郑述普, 俄罗斯当代术语学, 商务印书馆, 2005。
郑述普, 俄罗斯术语研究掠影, 科技术语研究, 1999年, 第3期。

방교영, 러시아어 정보 통신 전문 용어 유형 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 논문집 제4집, 2000.

И. Михлина, Упорядочение терминологии – приоритет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науч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http://www.gpntb.ru/win/library97/15.html

Госкомсвязи России, ПР 45.02-97 Правила по стандартизации: ПРИНЦИПЫ РАЗРАБОТКИ НОРМАТИ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http://www.minsvyaz.ru/site.shtml?id=2677

<사전류>

고대러시아문화연구소 편, '노한사전', 주류 도서출판, 1987.

<사이트류>

러시아 과학원(Россий ская академия наук), http://www.ras.ru/

러시아 과학원 정보 통신 문제 연구원(Институт проблем передачи информации), http://www.iitp.ru/

ETS 출판사(Издательство "ЭТС" и Polyglossum), http://www.ets.ru/

러시아 정보기술&통신부(Министерство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связи Россий 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www.minsvyaz.ru

Wiki 자유로운 백과사전(Википедия—свобод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http://ru.wikipedia.org

강현화(2000), 「전문 용어의 표준화를 위한 유형 분석」, 『전문용어 연구2』, 전문용어언어공학센터.

김광수(2004), ≪남북한 전문 용어 비교 연구≫, 서울: 역락.
김현권(2001), 「전문 용어의 언어학적 특성과 사전적 기술의 문제」, 『전문용어연구3』, 전문용어언어공학센터.
이현주(2004), 「전문 용어 명명 절차에서의 다의성-사진 용어와 관련하여」, 『불어불문학연구』 제60집, 한국불어불문학회.
이현주(2006), 「전문 용어 명명 절차 속의 일상 어휘의 역할-angle, plan, image 그리고 lumière에 대하여」, 『프랑스학연구』 37집, 프랑스학회.
최기선 외(2001), ≪21세기 세종계획 전문 용어의 정비≫,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최기선 외(2002), ≪21세기 세종계획 전문 용어의 정비≫,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최기선 외(2003), ≪21세기 세종계획 전문 용어의 정비≫,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최기선 외(2004), ≪21세기 세종계획 전문 용어의 정비≫, 서울: 국립국어원.
최기선 외(2005), ≪21세기 세종계획 전문 용어의 정비≫, 서울: 국립국어원.
한국학술단체연합회(2005), 『학술 전문 용어 정비 및 표준화 제2차 사업 1차 워크숍 자료집』.
21세기 세종계획 홈페이지, http://www.sejong.or.kr/sejong_kr/index.html

Antia, B.(2000), *Terminology and Language Planning. An Alternative Framework of Practice and Discourse*,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Philadelphia.

Cabré, M.T.(1998), *La terminologie. Théorie, méthode et applications,* Armand Colin, Paris.

Depecker, L.(2001), *L'invention de la langue. Le choix des mots nouveaux*, Armand Colin, Larousse, Paris.

Felber, H.(1987), *Manuel de terminologie*, Infoterm, Paris.

ISO 704: 2000 *Travail terminologique. Principes et méthodes.*

ISO 1087-1: 2000 *Terminology work. Vocabulary, Part 1: Theory and application.*

Lee, Hyunjoo(1998), *La représentation du vocabulaire de l'économie par les réseaux sémantiques terminologiques,* Mémoire de DEA, Université Paris 7.

Lee, Hyunjoo(2000-2003), «La métaphre dans le processus de dénomination dans le domaine de la photographie» *in Cahier du C.I.E.L.*, EILA, Paris.

Lee, Hyunjoo(2004), *Le precessus de nominationdans la terminologie de la photographie. L'apport de la polysé*mie *à* la nomination terminologique. Thèse dedoctorat. Université Paris 7.

L'homme, M.C.(2004), *La terminologie: Principes et techniques,* Les Presses de l'Université de Montréal, Canada.

Lotte, D.S.(1981), «Principes d'établissement d'une terminologie scientifique» dans *Textes choisis de terminologie,* éd. par G. Rondeau et H. Felber, Girsterm, Québec.

Otman, G.(1996), *Les représentations sémantiques en*

terminologie, Masson, Paris.

Sager, J.(1990), *A Practical Course in Terminology Processing,*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Philadelphia.

Rey, A.(1972), *La terminologie. Nom et notion,* PUF, Paris.

Wright, S.E. & Budin, G.(1997), *Handbook of Terminology Management. Basic Aspects of Terminology Management*, vol.1,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Philadelphia.

Wright, S.E. & Budin, G.(2001), *Handbook of Terminology Management. Application-Oriented Terminology Management*, vol.2,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Philadelphia.